조선근로자들은·단결하라!

근로자

贈呈

19 호 10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근로자

제19호 (41)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1949년10월15일

내용

正誤表

페지	數·行	誤	正
五〇	하 一七	六六一명	六六二명
一一五	중 八	프로레따리아트	인민민주
一一五	중 九	같은 한	(삭제)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총궐기하고 있는 조선인민은 공화국정부의 배려와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절대적 방조와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환호 속에서 十월 十四일부터 二十三일에 이르는 十일 간에 걸쳐 「조쏘친선과 쏘베트 문화순간」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가지게 되었다。

어「순간」을 가지면서 공화국 전체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해방의 은인이며, 진정한 원조자이며, 친근한 벗인 쏘베트인민과 그의 영명한 수령이신 쓰딸린대원수에게 심심한 감사와 최대의 민족적 영예를 드리면서 쏘베트동맹과의 친선을 일층 공고발전시킬 결의를 일층 새롭게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베트인민은 자기의 고귀한 피로써 우리 민족을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었을뿐만 아니라 해방 四년 간에 있어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백방의 원조를 다하여 주었다。

그 결과 공화국 북반부는 민주조국의 튼튼한 기지로 구축되었으며 과거의 암흑과 질곡의 세계로부터 인민생활의 행복과 자유와 광명과 희망의 세계로 전변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통일적 민주주의독립국가 수립을 예견한 一九四五년 모쓰크바 三상회의 결정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음모와 배신적 행위로 말미암아 파탄되게 된 一九四七년 九월에 쏘베트동맹은 남북 쏘미 량군의 동시 즉시 철거를 제의하였으며 一九四八년 말에는 자기 군대를 조선으로부터 완전 철거하였다。

一九四八년 九월에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 쏘베트동맹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존중시하여 공화국 정부를 솔선 승인하고 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

였다。이렇으로써 공화국 인민으로 하여금 세계 민주주의 제 국가와 인민들과 동등한 권리로써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공동적인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여 주었다。뿐만 아니라 一九四九년 三월에는 조쏘 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강력히 보장하여 주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 진주한 첫날부터 식민지 군사기지화 정책을 감행하였으며 이는 망국적 리승만 괴뢰정부 조작 이후 일층 로골화하고 있다。그 결과 해방 四년 간에 남조선 산업은 근본적으로 파괴당하였으며 민족문화는 여지없이 말살 유린당하고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은 기아와 빈궁과 실업의 도탄속에 빠지고 있다。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으며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애국자들은 검거 투옥 학살당하며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완전히 지하로 구축되었다。오늘 남조선은 테로 학살이 강행되는 중세기적 암흑천지로 전변되었다。해방 四년 간에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던 애국자들로서 학살당한 수는 九만三천명에 달하며 투옥당한 수는 一五만四천여명、피검된 애국자 수는 四七만八천여명에 달한다。

조선인민은 해방후 四년 간의 경험을 통하여 위대한 쏘베트동맹만이 조선인민의 진정한 원조자이며 벗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영원 불멸의 조쏘친선만이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있어 승리의 담보가 된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그 반면에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리승만 도배들은 조선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수이라는 것을 더욱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은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 일방으로는 조쏘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과 투쟁을 다하여 왔으며 타방으로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인「유·엔 조선위원단」、리승만 도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규모와 범위를 나날이 확대강화하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쏘베트동맹을 선두로 한 세계민주진영을

반대할 목적으로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그들은 북대서양동맹을 비롯하여 각종 군사동맹을 조작하며、군비를 확장하며、군사기지를 설정하며、원자탄을 축적하며、전쟁선전과 전쟁히스테리 조작에 날뛰고 있다。

그러나 새 전쟁 도발자들의 침략정책은 오늘 세계 도처에서 파탄과 실패를 보고 있다。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평화와 안전과 자유와 민주의 초소에 튼튼히 서있는 쏘베트인민과의 친선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면서 민족적 독립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에로 전진하고 있다。새 전쟁 도발자들이 최대의 희망을 걸고 있던 유일한 위협적 무기인 원자탄의 비밀도 폭로된지 이미 오랬을 뿐만 아니라 쏘베트의 선진과학은 원자에네르기를 평화적 사업건설에 리용하고 있다。

오늘 우리 조국에 있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식민지화 정책과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매국적 반동정책이 일층 로골화되어 가고 있으며 장개석、요시다(吉田)、퀴리노、리승만등의 반동세력의 최후 발악이 혹심하여져 가고 있는 정세 하에 있어서 조쏘친선을 일층 강화하며 쏘베트문화를 일층 광범히 활발하게 섭취하기 위한「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촉진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베트문화는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혁명의 산아이며 쏘베트인민의 모든 건설적 투쟁 속에서 창조되었다。

레닌 쓰딸린당의 지도 하에 강대한 쏘베트주권과 튼튼한 사회주의경제의 토대 위에서 개화된 쏘베트문화는 직접 쏘베트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인민들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헌신성과 반동에 대한 증오와 철저한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쏘베트문화는 쏘베트인민들의 투쟁과 건설 속에서 형성된 인간의 새로운 모습과 도덕을 반영시키고 있으며、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문화로써 맑쓰—레닌주의로 무장되고 있으며、국제주의사상과 고상한 애국주의사상과 각국 인민들과 민족 간의 친선과 협조의 사상으로 일관되고 있다。그것은 가장 다채롭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면서 인민을 교양하며 교육하며 투쟁과 승리

에로 고무하여 주는 사상적 무기로서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문화이며 진정한 인도주의 문화로써 공산주의로 지향하는 인류사회의 최고봉의 문화이다. 참으로 쏘베트문화의 탁월성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화는, 이와는 정반대로 조락과 타락의 진흙탕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복무하며 전쟁방화자의 무기로 되어진 부르죠아문화는 전쟁을 선전하며 전쟁히스테리를 조작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인민을 도덕적으로 불구자(不具者)화하며 인민들에게 개인주의와 탐욕과 흉악한 부르죠아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배양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을 침략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매국도당들도 역시 모든 과학과 문학예술을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면서 퇴폐적인 에로치즘과 개인주의적 향락주의와 아울러 배타적 민족주의를 선전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한 비방과 중상으로 인민을 기만하며 우롱하고 있다.

오늘 조국창건의 선두에서 투쟁하는 우리당의 전체 당원들은 전 인민적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되는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에 있어 쏘베트인민들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섭취하여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기초인 민주개혁의 성과를 일층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이 「순간」 사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써 제기된 중산투쟁과 강연, 좌담회, 연극, 영화, 기타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쏘베트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선진 인류문화로서의 쏘베트문화의 탁월성을 널리 인민 속에 침투시키는 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이다. 이 「순간」을 계기로 조쏘친선과 조쏘문화 교류를 그의 본신 사업으로 하는 조쏘문화협회를 일층 강화하며 나아가서 우리조국의 민족문화의 정당한 발전을 위하여 쏘베트문화를 일층 광범히 섭취하여, 철저한 민주주의적 애국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확립하여 인민을 교양 교육하며, 일제사상 잔재와 봉건사상 잔재와 협소한 민족주의의 사상을 반대 숙청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당원들은 이 모든 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을 공화국정부 수상 김일성장군 주위에 일층 굳게 집결시키며 조쏘친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을 급속히 쟁취하자.

반동의 지반을 소탕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자

리 승 엽

김일성수상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四차회의에서의 당신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단결된 인민들의 위력으로써 원수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지반을 없애버림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전 조선인민들의 지표이다. 조국을 통일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긴급한 문제이며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은 전 인민들의 최대 갈망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조선의 애국적 력량의 총집결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가장 공평한 제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은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한 생산투쟁과 집회를 통하여 자기들의 굳은 결의를 열렬히 표현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지지투쟁과 발을 맞추어 남반부 인민대중들도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일치하게 궐기하였다. 리승만 매국도당의 야수같은 테로 학살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로동자들의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 지지 총파업을 선두로 하여 농민, 인테리, 학생, 기업가, 상인, 종교인등 각계 각층의 인민들이 집회, 시위 및 무장투쟁등의 방법으로 궐기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통일에 대한 제안은 실로 전체 인민들의 의사와 소망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만족적 리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줌도 못되는 매국노 리승만도당은 이 적절한 제안을 철두철미 판포한 행위로써 반대하고 나섰다. 매국도당은 이 제안에 대하여 통채로 인민들 앞에 내놓지 아니하려 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남반부 각계 각층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사회적 활동가들과 및 기타 인사들에게 보

넌 수백매의 서한은 리승만 도당의 악랄한 은패 행위에 의하여 전부 몰수되었다。

남반부에 있어 통일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가장 용감한 투사인 남조선 로동당을 위시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참가한 남반부 제 애국 정당 사회단체들은 이 평화적 통일방책을 인민들에게 전달 해설하는 자기의 역활을 과감하게 수행하였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선언서를 위시하여 수백만매의 삐라와 포스타가 산포되었다。 리승만 매국도당의 은페시도는 완전히 실패되었다。 이 란포한 은페 시도는 도리어 인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 대중적으로 격발시킬 뿐이었다。

리승만도당은 더욱 포악하고 잔인한 테로 학살과 함께 동족상잔의 내란을 더욱 도발 조직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반대 방해하기에 발악하고 있다。 소위 「병역법」을 강제 실시하느니、三八선 통행을 제한하느니、 무기공급에 대하여 미국상전들에게 애걸복걸하느니、 갖은 반동적 행위와 함께 미국상전들이 쥐어준 총칼로써 만들어낸 소위 국군과 경찰을 총동원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남반부인민대중을 학살하고 특히 우리조국의 진정한 아들 딸들인 용감한 무장유격부대를 「토벌」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의 지시하에 있는 리승만도당의 흉악무쌍한 법제에 의하여 조성된 현하 정세에 있어 우리 인민들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전민족적 리익에 가장 절실하게 부합되고 전인민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과 의사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어떻게 하여야 시급히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대답은 아주 명백하다。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동족상잔과 내란을 조직 도발하는 리승만도당을 인민들은 자기들의 진로에서 소탕하여야 하며 리승만도당을 소탕하려면 그들이 서 있는 지반을 더욱 철저하게 끝까지 붕괴시키어 리승만도당을 더욱 완전히 고립시키어야 된다。

리승만도당은 고립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완전히 고립시키어 앉을 곳도 설 곳도 없이하여야 한다。

×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영용무비한 무력으로 해방되고 레닌—쓰딸린적 대외정책에 충실한 쏘련인민들의 성의있는 원조아래서 인민이 정권을 틀어쥐고 인민자신의 손으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있게 성취한 북반부에서는 반동의 지반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장구한 일제 억압을 반대하여 과의 투쟁을 계속하면 조선인민들의 애국주의적 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을 급진적으로 제고시키었다。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대한 미증유의 열의는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로동당을 중심으로한 민주진영의 편에 서게 하였다。

그러한 까닭으로 공화국 남반부에 있어서도 반동들의 지반은 극히 미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에 있어 해방직후 조선인민의 정치적 창의에 의하여 탄생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북반부에서뿐 아니라 남반부 전지역에서도 조직되었었다。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의 반동세력이 민주세력보다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동은 그 자체가 친일과 민족반역자와 봉건적 지주 및 미 독점자본가의 매판적 주구들로써 구성되었다。 이러한 요소는 그 수에 있어 극히 소수인 것이 그 첫째 특징이다。 일본 강도들이 조선인민을 억압할때 어떠한 계급에게든지 정권을 분랑하지 않고 오직 극 소수의 반역분자들을 자기의 주구로 등용하였었다。 이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그 거의 전체가 반동적 계급인 지주들과 일본 금융자본의 앞잡이들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봉건적 지주는 친일과 민족반역자 이외에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요、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계급적 성격을 표시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미독점자본가의 주구들은 어떠한가? 이것도 역시 그 대부분은 일본 금융자본의 앞잡이들인 친일파로써 자기의 상전을 변경한데 불과하다。 오직 몇개의 미제국주의자와 직접적 주구인 리승만 리범석등이 가담되었을 뿐이다。 일본 금융자본의 앞잡이들은 미제국주의자의 반동진영에 대한 비호정책에 의하여 자기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뿐 아니라 새로운 리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게 되었다。 곧 미독점자본가들의 매판적 역활을 담당함으로써 인민의 고혈을 더욱 가혹하게 빨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금융자본의 앞잡이들로써 변모된 미 독점자본가의 주구배의 괴수가 곧 매국노의 괴수 리승만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현하 남반부에 있는 반동은 그 거의 전체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구성되고 있다。

반동의 둘째 특징은 인민과 조국의 원쑤로서 그 죄악이 인민들의 눈앞에 완전히 드러난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인민의 분노와 증오의 표적이 되어있는 그것이다。 이것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구성된 반동의 불가피의 성격이다。 인민들은 일본강도놈이 쥐어준 채쩍으로 자기들을 일본놈의 노예로서 머리를 숙이고 우마와 같이 착취 되기를 강제한자가 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이던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자들이 미제국주의자의 주구 리승만을 머리위에 올려 앉히고 남반부

에서 반동진영을 구미고 앉아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고혈로써 제 배를 불리고 앉아있는 지주들이 이 반동의 계급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실로 반동은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의 표적으로서 여하히 교활하게 그 죄악을 은폐하고 여하히 폭력적으로 인민을 굴종시키려고 강요한다 할찌라도 인민으로부터 그 배격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다。

반동은 그 수에 있어 극히 소수이며 그 역사적 관계에 있어 인민들의 원쑤일뿐 아니라 지난 四년동안에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은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인민들의 증오를 더욱 불타게 하고 있다。인민들은 그들을 타도 소탕치 않고는 민족 전체가 자기의 존립에 크게 위협되고 인민자신이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셋째 특징이다。

해방후 四년간의 반동의 죄악은 실로 심중하다。이것은 우리민족을 재차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적 노예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의 직접적 주구인 리승만에게 전체 책임이 있는 것이다。자기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조선인민들은 남북을 가릴것 없이 민주발전과 자주독립 완성을 위하여 궐기하였다。

조선인민들은 로동당의 전신당들을 중심으로 군게 단결하고 민주개혁의 실시에 들어섰다。이 재혁의 첫째 과업은 두말할 것 없이 인민과 조국의 원쑤인 친일과 민족반역자를 숙청하여 반동진영의 생장과 민족 분렬의 기초를 제거하려함에 있었던 것이나。

조선식민지화의 음모를 가지고 들어온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첫날부터 남조선 민주운동의 거대한 발흥에 대하여 탄압하기 시작하였다。친일과 민족반역자는 차례로 등용되었다。 친일과의 수괴 김성수는 미군정의 수석고문으로 임명되었다。이것은 친일파들로 정치세력을 만들어 민족분렬을 책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진영을 중심으로한 민족통일은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친일과 숙청의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미제국주의자들은 드디어 자기의 주구 리승만을 불려 들이었다。리승만은 미국 비행기에서 나리면서 「덮어놓고 한데 뭉쳐라」「친일파는 우리 정부를 세운 후에 법에 의하여 처리하자」고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인민들의 분노와 증오에 의하여 죽어가는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에게 리승만의 이 구호는 「회생수」와도 같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금력으로 리승만의 모든 흉책을 비호하였다。리승만은 로동자 농민이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를 따르시오」하는 연설을 친일과 민족반역자의 집회 석상에서 떠들어댔다。리승

만은 실로 반동진영의 조직자이며 이것을 조직함으로써 민족분렬을 시도한 원흉이다。

리승만은 四년간 남반부에서 九만三천명의 애국적 활동가와 무고한 인민들을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하여 무참하게 학살하였고 오늘도 수백의 애국자들을 날마다 학살하고 있다。역시 동일한 리유로써 十五만四천여명의 형제 자매들을 악독한 고문으로써 감금 투옥하고 있다。남조선의 산업경제를 통채로 미제국주의자에게 팔아먹음으로써 남조선을 완전히 미독점자본가의 시장으로 예속화시키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적 통일방책을 반대하고、갖은 모략으로 동족상잔과 내란을 도발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리승만을 두목으로한 남조선 반동은 四년간의 흉악한 범죄에 의하여 그것을 타도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 인민들은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반동은 자기들의 소위 기관들이나、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소위 정당들이나、그것을 구성한 개개인들 사이에나、아무러한 통일도 일치도 있을 수 없으며 폭력과 강제가 아니고는 자기들의 가장 큰 지주가 되는 소위 「국방군」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폭력과 강제로 만들어진 「국방군」속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 발전을 갈망하는 량심있는 병사들의 의거 사건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이것은 모순과 붕괴의 내적 조건이 극히 성숙되어가는 것으로 반동의 또 한가지의 특징이다。

미제국주의자의 지시 밑에서 반동은 리승만을 중심하고 그간 수많은 반동진영의 련합을 시도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부 실패하였다。

소위 비상국민회의、민주의원、립법의원、민족통일총본부、최근에 시도하는 소위 민족진영 강화대책위원회등등 그 어느것 할 것이 없이 사분오렬로써 저들 내부의 개인과 개인의 싸움、패와 패의 싸움으로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수차를 두고 떠들어대던 소위「三거두」합작은 김구씨에 대한 리승만의 흉악한 암살사건으로 아주 그 뿌리채 뽑아치우고 말았으며 소위「국회」에서는 부의장 김약수를 위시하여 거의 一〇%의「의원」이 검거 투옥되고 있다。

매국정부 내에서도 암투와 궤락이 그칠 사이가 없다。소위 국방、내무、외무、사법、체신、상공、농림、보건동등이 모조리 갈리었으며 가장 권리를 부리는 소위 내무에서는 벌써 세번이나 갈리었다。소위 국회에 대한 매국정권의 강압은 날로 혹독하여지며 풍전등화격으로 되고 있다。

리승만 매국도당의 가장「큰」지주는 두말할 것 없이 소위「국방군」이다。그러나「국방군」은 반동도

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인민들의 자식으로써 꾸미지 않을수 없다。

그러한 까닭으로 정의의 빛이 「국방군」 내에 흘러 들어가면 이 속에서는 의거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작년 十월 려수 「十四련대」의 병사 三천여명이 일거에、일어나 리승만 정권에 총뿌리를 돌린 것을 위시하여 광주、대구、이리에서 련하여 이 의거운동이 일어났고 금년 五월 춘천 및 통천에서 二개 대대가 의거 입북한 것을 위시하여 륙군、해병、항공병이 자기들의 소속 군기와 군함、비행기를 가지고 속속 의거 입북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매국노들은 작년 가을 이후 三、四차에 걸쳐 이 의거운동을 방지하려고 수천명의 장교들과 병사들을 총살하고 이 야만적 학살은 아직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까닭으로 「국방군」에서 리승만의 어용물이 되기를 거절하고 조국전선의 선언서를 지지 찬동하는 량심있는 병사들의 의거운동은 날로 장성될 것이다。

× × ×

반동은 극소수의 친일과 민족반역자와 지주 및 미제국주의자의 매판・주구들로 구성되고 해방전이나 해방후나 한결같이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반역하고 특히 해방후에 있어서는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며 인민들을 괴의 바다에 잠그려하는 대 죄악을 감행하고 있으므로 인민들로부터 배격 고립되어있으며 그 내부의 불가피적 모순으로 인하여 파멸되고야 말 조건들이 날로 성숙되어가고 있다。만약 우리 인민들이 더욱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반동의 지반을 소탕하는 투쟁을 일층 강화한다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신속히 쟁취할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반부 인민들에게 북반부 형제들이 실시한 것과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봉건적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지주계급을 소멸시키어 농민이 토지의 주인이 됨으로써 민주주의적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반동의 물질적 계급적 토대는 실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에 있다。현하 남반부 농민들은 로동자들과 무장유격대의 방조를 얻어 도처에서 지주의 토지를 자기들 손으로 몰수하여 자기들 손으로 분배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남반부 인민들은 이 투쟁을 더욱 광범하게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친일과 민족반역자도 그 대부분이 이 지주계급에 소속되어 있으며 모든 락후와 반동의 원천도、모든 전보와 민주발전의 장애물도 이 봉건적 토지관계인 것이다。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농민이 토지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반동의 지반을 소탕하고 매국도당을 고、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절대 다수가 민주진영에 굳게 서서 영용한 구국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그러나 비록 소수라 할찌라도 아직 리승만의 위협과 기만에 의하여 매국도당을 추종하는 자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우리는 이것을 전부 쟁취하여야 한다。남조선인민들이 다 일어나야 하며 「국방군」이 더욱 대량적으로 의거운동에 참가하여야 한다。이러한 때라야 리승만은 그 기반이 상실되고 완전히 고립화할 것이다。또한 이렇게 되어야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의 정책을 완전히 파탄시킬 것이다。우리의 투쟁은 미제국주의자의 무기 위에서만 제 생명을 유지하는 리승만도당을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지반을 없이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국방군」을 포함한 리승만도당의 추종자들의 대다수는 우리가 넉넉히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오직 우리의 투쟁력량에 달린 것이다。

조선의 반동은 세계에서 가장 간악한 미제국주의자에게 조종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의 손에서 조선의 반동세력을 떼어놓는 것은 우리조국에서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의 손을 떼게 하는 것이며、반동의 지반을 없이하여 반동을 완전 고립시키는 데서만 미제국주의자의 손이 반동에서 떨어질 것이다。

리승만의 운명을 장개석의 운명과 같이 만듦으로써 평화적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반동의 지반을 소탕하는 투쟁을 더욱 장엄하게 전개하는데 있는 것이다。

당교양체계에 있어서의 학습년도 설정은 당교양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다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부부장 윤 군 창

당선전과 당교양은 우리당의 생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선전과 당교양의 사명은 당원들과 당지도간부들에게 맑쓰-레닌주의 혁명적 리론을 소유시키며 그들이 사회발전의 법칙을 리해하고 사회생활의 제 현상과 주위의 현실의 내부적 련탁을 인식하며 당이 제기하는 과업들의 전망성을 믿으며 모든 투쟁에서 장래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들의 집행을 사상 정치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국가 및 당사업의 어떤 부문의 일군을 물론하고 그들의 정치수준과 맑쓰-레닌주의적 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자체가 더 높아지고 실효가 많으며 사업의 결과가 성과있는 것이다」(쓰딸린)

우리당이 항상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당선전과 당교양에 큰 주의를 돌리였으며 또 돌리고 있는 것은 부강한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에 있어서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당중앙조직위원회는 「당교양체계에 있어서의 학습년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중앙조직위원회가 채택한 이 결정에 의하여 금후 당교양체계에 있어서 학습년도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매년 十一월 一일부터 익년 十월 三十一일까지를 학습년도로 규정하게 되었고 그중 二개월 즉 四월과 十월을 학습사업의 총화와 새 학습년도 준비기간으로 하게 되었다。

이 결정에 의하여 당단체들과 당부들은 매년 四월중 전 十五일은 학습년도 상반년 학습사업을

총화하며 후 十五일은 하반년 학습의 준비와 세포학습회 및 야간당학교 지도자들의 배치 및 재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며 매년 十월중 전 十五일은 선년도의 학습사업을 총화하며 후 十五일은 새 학습년도의 준비와 세포학습회 야간당학교 지도자들의 선택 배치 재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결정에는 금년에 한하여 당교양체계에 처음으로 학습년도를 설정하게 됨으로부터 출발되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十二월 一일부터 새 학습년도를 개시하며 十월 十一월의 二개월간에 걸쳐 一九四九년도 학습사업총화 및 새 학습년도 준비사업을 진행할 것이 지시되었다。

이와 같이 「당교양체계에 있어서의 학습년도 설정」에 관한 당중앙조직위원회의 결정은 당원들의 학습에 있어서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더욱더 보장하며 당원들의 정치리론 학습에 대한 의욕과 열성을 앙양시키며 당교양망에 있어서의 학습의 사상 정치적 수준과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되며 당선전과 당교양 개선의 획기적인 방침으로 되는 것이다。

× × ×

금년도에 있어서 당중앙위원회와 당단체들이 취한 대책들의 결과에 우리당 교양사업은 적지않은 개선을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二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우리당 선전선동사업에 있은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이 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후에 당중앙상무위원회는 당교양체계의 개선에 대한 결정과 매개 교양체계에 있어서의 새 유일한 학습제강들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우리당 교양체계는 일층 당원들의 욕망과 사상수준에 적합하게 조직되게 되었으며 당교양사업에 있던 부분적 번잡성이 제거되고 당교양사업의 당성이 일층 보장되었으며 매 교양체계의 유일한 학습제강들은 현실 및 실생활과의 더 깊은 련계를 확보하고 당원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적에 대한 불화의 투쟁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게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 당단체들에서 당교양사업의 수준이 제고되었다。지방 당단체들은 간부들을 맑쓰-레닌주의 리론으로 교양하는 문제들에 더 깊은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당위원회들과 당부들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습당원들의 자체교양을 도와주며 그들이 맑쓰-레닌주의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많이 지도하고 있다。

정치 사상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당원들을 위한 세포학습회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당원들과 당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 리론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리론 및 정치 시사강연이 더욱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문 잡지들에는 선전적 론문 기사들이 더욱 자주 게재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당 교양사업에는 허다한 결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의 선택 배치 양성사업에 대한 당단체들의 무관심성에서 표현된다。

사상적 수준이 낮고 맑쓰—레닌주의를 독자적으로 연구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우리당원들을 위하여 조직된 세포학습회 사업의 질과 정치적 수준은 거의 전적으로 그 학습회를 담당한 지도자의 능력과·준비와 열성여하에 의하여 좌우될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교양사업에 있어서 당단체들은 자격있고 능력있는 당간부들과 열성자들로써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을 구성하며 그들의 리론수준을 제고시키어 그들에게 방법상 원조를 주는 사업에 가장 높은 관심과 주의를 항상 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당단체들과 당위원회들이 이 방면에 필요한 주의를 돌리지않고 있으며 결과에 다수 학습회들에서 자습당원들, 정권기관 사회단체 당원간부들, 당원인 교원 문화인들을 비롯한 준비된 당원들과 열성자들이 지도자로 배치될 대신에 리론수준이 낮고 능력이 부족한 당원들, 심지어는 문맹을 벗어난지 오래지않은 당원들이 지도자로 배치되고 있다。

다수 지방들 특히 농촌구역들에 있어서 세포학습회 지도자 쎄미나르가 극히 낮은 수준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쎄미나르사업이 「지시적인」 강연을 하는데 그치고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방법론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않고 있다。

세포학습회사업에 있어서 가장 엄중한 결점은 많은 학습회들이 유해한 필기전달식 독경(讀經)식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이다。

세포학습회에 망라된 청강자들은 그 전부가 자습능력이 없는 정치수준이 낮은 당원들이다。 이러한 당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는 특히 방법상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은 제강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쉽게 현실생활과 련결시키면서 담화식으로 설명하여주며 청강자들의 질의를 해명해주며 그 문제에 대하여 청강자들이 충분히 리해하고 독자적으로 사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습회들에서 지도자들은 청강자들이 리해하든 못하든 불관하고 경이나 읽듯이 학습장에 기록된 글줄을 기계적으로 무내용한 필기만 시켜주고는 하등의 설명도 주지않으며 심지어는 정상적 학습회를 중지하고 학습회 지도자의 학습장을 청강자들에게 회람시켜 필기케 하는 것으로써 학습회 사업을 대치케 하는 현상까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당단체들과 당위원회들은 자습당원들에 대한 지도사업에 있어서 매 자습당원들의 수준별을 충분히 파악하여 매 자습당원들의 요구에 알맞게 방조를 주며 그들이 열성적으로 자습하도록 온갖 편리와 조건을 지어줄 대신에 쓸데없이 자습당원들을 구속하고 그들에 대한 일률적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당단체들에서는 당중앙의 결정을 위반하여 매주 수차씩 빈번한 「보충강연」을 조직하고는 리론수준이 각이하고 자습제목이 상이한 자습당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참가할 것을 강요하며 매 자습당원들이 선택한 제목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할 조건과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 주지않음으로써 사실상 자습당원들을 새 종류의 학습회에 구속시키고 있다。

일부 당단체들은 자습당원들에게 어떠한 방조도 주지않고 다만 매 당회의에서 一명 내지 二명의 당원들에게서 그의 자습사업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써 자습당원들을 「통제」하여 자습당원들의 자습정형을 검열하려고 하고 있다。

자습당원들의 자습에 대한 이러한 검열방법은 관료주의적이며 유해한 방법이다。 부분적 당단체들과 당부들은 자습당원들과의 담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대신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며 당원들에게 조잡한 질문만 발하는 것으로써 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자습당원들과의 이러한 「담화」는 다만 당원들의 열의를 저하시킬 따름이다。

이러한 당단체들과 당부들은 자습당원들에 대한 검열은 그들에 대한 계통적 방조와 련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수 당단체들에서 자습당원 방조조직에 있어서 당도서실의 역활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당단체들에서 당도서실은 자습당원들의 학습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방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습당원들을 위한 리론적 및 방법적, 문제에 대한 강연해설을 충분히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 군당단체들은 야간당학교 청강자들의 선발사업을 엄밀히 진행하지않고 경력과 직위에만 치중하여 선발하여 학습에 대한 열성이 비교적 적은 당원들과 빈번히 지방에 출장나가는 당원들을 다수 입학시킨 결과에 야간당학교 출석률을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야간당학교들에서 지도자들이 고정화되지 못하고 그의 변동이 많으며 따라서 야간당학교 교수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교수내용이

일정치 못하여 청강자들의 학습에 대한 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당선전과 당교양에 있어서 출판물 즉 잡지 신문 소책자들은 주요하고 결정적인 무기로 된다。출판물은 어떠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소유시키는 강력한 선전수단이다。

일부 당단체들과 당위원회들은 당선전에 있어서 출판물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한 역활을 리해하지 못하고 출판물을 당선전과 당교양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않으며 출판물의 질을 제고시키며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일부 당단체들에서는 출판물 선전과 구두선전간의 밀접한 련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시시로 출판물에 게재되는 선전적 내용들로써 세포학습회들과 야간당학교들과 기타 교양망들의 학습내용을 적절히 보충하는 사업에 필요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다수 도당보들은 아직도 고상한 사상적 수준의 선진적 론문들을 불만족하게 게재하며 당선전과 당교양의 방법적 문제들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는 론문 기사들을 불충분하게 게재하고 있다。

우리당 교양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결점은 일부 당단체들과 당위원회들의 당교양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당의 력사가 극히 짧으며 투쟁경험이 선진적 프로레타리아트 정당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풍부한 당사업의 경험을 가진 노숙한 당일군들이 충분히 있지못한 조건하에서 당교양사업과 같이 당단체들과 당원들의 고상한 창발성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당위원회들과 당단체들이 하급 당단체들에게 방법상 문제들에 대한 세심한 방조를 주며 당단체들의 실제 사업경험을 교환하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도당부들과 시 군당부들이 매개 하급당단체들과 매개 당교양망들과 매개 당원들의 구체적 조건들과 정형들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하게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는데 주력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당부들과 시 군당부들은 하급 당단체들의 당교양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로운 관료주의적 형식적 일반적 지도방법을 채용함으로써 당교양사업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당단체들과 당부들의 형식적 일반적 지도방법은 우선 개개의 세포들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세포들에서 같은 날에 학습회를 진행하는 것을 강요하는 현상、경험이 적은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에게 호명절과 「책임추궁」만 하는 것으로써 세포학

습회 사업을 「지도」 하는 현상、하급 당단체들의 실제정형에 대한 연구는 하지않고 다만 통계보고를 독촉하는 것으로써 당교양사업을 「지도」 하는 현상등에서 표현된다。

당중앙으로부터의 루차의 경고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당단체들에서 당교양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지 않으며 이 사업을 당의 전체적 중요사업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당부 위원장들은 당선전과 당교양사업의 제문제들을 불충분하게 연구하며 세포들에서 학습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며 심지어는 현재 실시중에 있는 학습제강 내용조차 모르고 시기적 경제과업 수행의 독촉에만 분수하고 있다。

이러한 당단체들에서 당선전과 당교양사업이 침체된채로 개선을 보지못할 것은 실로 당연한 리치인 것이다。

× × ×

우리당은 당교양사업에 허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당교양의 사상적 내용과 질적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금년十월 十一월의 학습사업총화 및 새 학습년도 준비기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 학습사업의 정확한 총화와 새 학습년도 준비사업의 충실한 진행은 一九五〇년 새 학습년도에 있어서 당교양사업의 질과 사상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성과적인 대책으로 될 것이다。

당단체들과 당교양망들에서 十월의 학습총화사업과 十一월의 새 학습년도 준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당단체들은 각급 당교양망들에서의 금년도 학습총화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그 준비와 진행에 가장 높은 당적 주의를 돌릴 것이다。

세포학습회들에서 학습총화사업은 담화를 기본방법으로 하여 진행할 것이다。

담화는 세포학습회 제강에 근거한 일정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당원들과 학습회 지도자가 담화를 전개하는 방법으로써 당원들의 준비정도를 해명할 것이다。

자습당원들에 대한 지난기간 학습을 총화하기 위하여 당부들은 자습당원들과의 담화를 조직하며 또는 자습당원들의 일상적 실지사업 즉 강연 보고 학습지도사업들을 통하여 그들의 자습을 평가하고 총화할 것이다。

야간당학교 청강자들에 대한 학습총화를 위하여서는 야간당학교 학습제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것이며 시험방법은 구두식 시험방법 즉 담화 문답으로 할 것이다。

세포학습회 청강자들과 자습당원들과 야간당학교 청강자들의 학습총화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화는 그들이 지난 기간에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복습하고 학습한 중심문제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그를 철저히 리해케 하는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당단체들은 매 당원이 담화에 참가하기 전에 금년도에 학습한 내용을 원만하게 복습하도록 백방의 원조와 조건을 지어줄 것이며 담화사업이 담화에 참가하는 당원들에게 위협을 주는 관료주의적 질문람발로 화하지 말도록 특별한 주의를 돌릴 것이다。

당원들의 복습지도에 있어서 당단체들은 불필요하게 학습회의 회수만 증가하는 형식적 지도방법의 결함을 범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담화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당원들이 제기하는 질의를 해명하여 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주며 보충적 해석을 줄 것이다。

세포학습회 청강자들과 자습당원들에 대한 담화의 성과적 진행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급 당부들은 책임적 당지도간부들과 준비된 당간부들을 총화사업에 파견하여 직접 그 사업을 조직 지도케 할 것이다。

각급 당단체들은 총화기간중 즉 十월중에 당교양사업에 대한 검열과 교양망에서의 당원들의 학습총화와 「一九四九년도 당교양사업 총화와 一九五〇년 새 학습년도 준비사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당열성자들의 참가하에서 총화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총화회의에서는 당단체들의 금년도 당교양사업에서 나타난 우점들과 결점들을 총화하고 그 기초 위에서 새학습년도 준비에 대한 제반 구체적 방침들과 당교양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만큼 이 총화회의의 성과여하는 앞으로의 당교양사업의 개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단체들은 이 총화회의의 준비와 진행에 가장 높은 당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총화회의의 준비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는 하급 당단체들과, 당교양망들의 학습사업에 대한 검열을 심중히 진행하여야 하며 교양망들에서의 학습총화를 정확하게 총결하여 당교양사업에서의 경험들과 우결점들을 계통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결점들중에서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가려내며 결점들의 원인을 탐구하고 사업개선의 방향을 옳게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

총화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당열성자들과 당교양망의 지도자들과 청강자들이 광범히 토론에 참가하도록 지도하고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결론을 주며 당단체들과 교양망 지도자들과

청강자들의 교양사업의 경험이 충분히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단체들의 금년도 학습사업의 총화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당단체들의 책임적 지도간부들이 직접 이 회의를 준비하며 지도할 것이다。

금년도 당교양사업의 총화를 필한 후에는 새학습년도 준비사업의 성과적 진행 여하가 一九五〇년도 당교양사업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로 될 것이다。

당단체들은 十一월중의 새학습년도 준비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금년도 교양사업의 결점들을 퇴치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구할 것이다。

이 기간에 당단체들은 우선 당원들을 새학습년도의 새로운 학습계획과 학습제강에 의한 상 하급의 각 학습회와 야간당학교와 상 하급의 자습체계에 적절히 배치할 것이다。

당원들을 각급 교양망에 배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원들의 요구와 정치리론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단체들은 반드시 매 당원들과의 개별적 담화를 조직할 것이며 이 개별적 담화를 통하여 당원들의 회망과 요구를 충분히 참작할 것이다。

당원들을 당교양망에 배치함에 있어서 일부 당단체들이 범한 착오 즉 자습체계와 학습회에 상하급이 있다하여 사실상 상급수준의 자습체계 또는 학습회에 해당될 당원들이 없는 당단체들에서까지도 기계적으로 당원들을 상하二급의 자습체계 또는 세포학습회에 구분하여 배치한 것과 같은 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당단체들이 주의할 것이다。

야간당학교 청강자 의 선발사업을 엄밀히 진행할 것이며 경력과 직위에만 근거하여 선발할 것이 아니라 리론수준과 실기사업 및 학습에 대한 열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정상적으로 야간당학교 학습에 출석할 수 있는 당열성자들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당단체들은 十一월중에 세포학습회와 야간당학교 지도자들의 선택 배치사업을 실시하며 그들을 재교양하는 강습회들을 조직할 것이다。

당선전과 당교양의 실지경험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맑쓰—레닌주의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학습의 사상 정치적 내용과 수준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습의 지도자들에게 달리어 있는 것이다。

학습회 지도자들을 선택 배치함에 있어서는 리론적으로 준비되고 학습의 고상한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준비되고 능력있는 당열성자들을 엄밀히 선발할 것이며 특히 자습당원들과 정권기관 및 사회단체내 당원인 교원들을 학습회 지도

사업에 광범히 참가시킬 것이다。 당단체들은 세포학습회 및 야간당학교 지도자들을 고정화시킴으로써 학의 정상적 진행과 학습내용과 학습의 방법적 문제들의 개선을 보장할 것이다。

당단체들과 당위원회들은 당원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강연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새학습년도의 강연사업 계획들을 면밀히 작성하고 매 제목에 대한 강사들의 선정과 강연준비를 진행할 것이며 출판물 선전의 계획과 준비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당도서실들은 새학습년도에 자습당원들의 학습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방조하며 자습당원들을 위한 리론적 및 방법적 문제에 대한 강연해설을 충분히 조직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원만히 진행할 것이다。

각 시 군당부들은 새학습년도 준비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회 지도자들의 리론수준향상과 학습실시의 방법상 문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위하여 학습회 지도자들의 一개월강습을 진행할 것이다。

이 一개월강습은 금년도 동기간에 수기에 걸쳐 진행할 것이며 세포학습회 지도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 강습에 참가하도록 조직할 것이다。

학습회 지도자 강습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강습회사업을 직접 시 군당부 위원장이 지도 감독할 것이며 강사로는 시 군당부 간부들과 준비된 당원들이 출연할 것이다。

또한 각 도당부는 각 시 군당부에서 조직되는 학습회 지도자 강습의 지도를 위하여 도당간부들과 열성자들을 파견할 것이다。

당단체들은 학습회 지도자 강습기간중 세포학습회사업과 월一회씩 조직되는 세포학습회 지도자 세미나르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 ×

「당교양체계에 있어서의 학습년도 설정」에 관한 당중앙조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금년 十월 十一월의 二개월기간에 당단체들이 전개할 금년도 학습총화와 새학습년도 준비사업은 우리당 교양사업의 장래개선에 있어서 심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二개월기간에 매 교양체계들과 당단체들의 一년간 학습사업을 총화하며 새학습년도 준비사업을 유감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二개월기간에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당단체들의 충분한 조직적 역할과 민활한 사업과 전체 당원들의 고도로 되는 열성이 요구된다。 당단체들과 당원들은 금년도 학습총화와 새학습년도 준비사업을 당중앙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전개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정력을 다할 것이다。

항구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한 설 야

지난 八월 十九일 파리에 있은 평화옹호 세계대회 상설위원회 사무국은 평화옹호 국제투쟁일 설정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 토의하고 十월 二일을 평화옹호 국제투쟁일로 결정하였다。 동회의는 반전투쟁에 결속된 전세계 평화옹호 인민 앞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박차를 가할 것과 나날이 증대하여 가는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전쟁과세(課稅)의 공포적 위험에 대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과 또는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중지를 요구할 것을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평화옹호 세계대회 및 그 상설위원회의 사업은 전세계 七十二개 참가국에서는 물론이고 그외의 모든 지역의 인민들에게서 한결같이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는 가운데서 갈수록 급격히 장성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 각개 국가 및 매개 민족중에서 극소수의 전쟁상인 및 반동 지배자들을 제외한 전세계 인민들이 전쟁을 원치않고 평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다만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하여 치렬히 투쟁하고 있는 사실의 반영인 것이다。

즉 작년 八월 파란 브르클라브시에서 열린 평화대회에는 四十五개국에서 五〇〇명의 대표가 참가했을 뿐인데 금년 四월 파리와 쁘라그에서 열린 평화대회에는 전세계 七十二개국에서 六억의 인민을 대표하여 二천여명의 정식대표와 천여명의 옵자바와 六백여명의 신분기자가 참가하였다。 그 대표들은 모두 그 나라들에서 수다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인 것을 생각할때 이 대회의 비중이 얼마나 크며 또는 세계평화운동이 얼마나 확대 강화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파리대회 이후에 전세계 평화옹호 진영은 훨씬 더 장성되었고 또 그 투쟁은 훨씬 더 앙양되었다。 각국에서는 침략조약과 전쟁과세를 반대하는 시위、파업、대중집회가 뒤를 이어 일어나

고, 평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평화투표가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이태리에서만 평화서명자가 七〇〇만명을 초과하고 지난 六월말까지 평화청원서가 一二九만통이나 제출되었다. 미국 뉴욕에서는 벌써 지난 六월 十六, 七일에 三十五주 로동자대표 一, 三〇〇명이 모여 파시즘과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민주와 평화를 위한 앙양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 八월 二十五일부터 二十七일에 걸쳐 민주진영의 성색이며 평화옹호의 제一선에 선 쏘련의 평화옹호대회가, 세계인민의 수도 모쓰크바에서 열렸다.

그리고 쏘련평화옹호대회는 자기의 호소문에서 전쟁준비와 군사기지 설정과 침략적 동맹체결과 원자탄의 협박과 인간증오와 인간 리지의 말살과 군비경쟁등 인류도살의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곧 미국과 영국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또한번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동 호소문은 쏘련은 평화옹호와 창조적 로력의 나라라는 것과 쏘련은 평화옹호의 초소에서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천명하였다.

그리고 쏘련은 각국 인민들간의 평화와 협조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각국 인민들의 평화투쟁은 전쟁상인들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과 각국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고두하여 주었다.

다음으로 이 호소문은 평화진영을 일층 단결시키며 강력한 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마비시키라는 것을 전세계에 호소하였다.

이 호소문은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호소문은 우리의 평화옹호 사업에 있어서 지침으로 되는 것이며 오늘도 래일도 우리는 이 지표 아래에서 우리들의 평화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국제평화옹호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더욱 긴절히 제기되는 문제는 두말할것 없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문제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사업의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실로 모든 문제가 이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그 강령과 선언서에서 이 길을 명시하였으며 공화국 수상 김일성 장군은 공화국 정부수립 一년에 관한 보고에서 공화국 정부가 쟁취한 一년간의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면서 전체 인민들이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하여 미제 원조 하에서 조국인민을 도살하며 우리강토 남반부를 미제에 팔아 먹으려는 리승만 괴뢰집단을 완전히 인민들과 고립시킴으로써 평화적 조국통일을 시급히 완성할 때 대하여 말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제는 자초부터 우리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조선통일에 관한 민주주의적 원칙을 제시한 모쓰크바 三상회의 결정을 휴지로 만든것도 미국이었고 二차에 걸쳐 쏘미공위 사업을 파탄시킨것도 미국이었다.

미제는 망국노 리승만을 원조하여 남조선에서 五•十단선을 단행하게 하고 리승만 괴뢰정부를 조작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기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리승만의 소위 「국방군」「경찰대」를 사수하여 구국투쟁에 궐기한 애국인민들과 기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또한 리승만도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인민학살을 감행할 뿐만 아니라 三八선 이북에 대한 불법 침입과 살인, 방화, 략탈, 랍치등 만행을 계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놈들이 획책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것이며, 동족을 도살하는 내란을 도발하려는 것이며, 통일독립의 튼튼한 성벽인 북조선의 제반 민주건설과 향상하는 인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민심을 교란하자는 것이다.

오늘 리승만 망국도당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이다. 평화와 통일은 곧 우리 조국에서의 외래침략자의 내정간섭이 완전히 거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불피코 그들 망국도당들은 해방후 四년간에 저질러 놓은 천인공노할 귀축과 같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인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갈망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그를 위한 투쟁은 갈쑤록 치렬해지고 확대되면서 있다.

남조선에 미제의 침략군대가 있고 망국노 리승만도배의 반동세력과 또는 친일파와 악질반동 때로단이 있어 그들의 망국멸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된 위국한 정세 속에서 전체 조선 애국인민들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정부의 정강을 받들고 꾸준히 투쟁하여 거대한 성과들을 쟁취하고 있다.

민주건설이 약진적으로 진행된 조국 북반부에서의 빛나는 민주개혁과 인민경제계획의 제반 성과들은 조선 인민생활의 면모를 일신하였을 뿐만 아니나 아가서 도탄중에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우리도 능히 자주로 부강한 민주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행복한 민주생활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확호한 신념과 전망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하며 자기들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행복을 유린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와 그 원조하에 있는 리승만의 망국괴뢰정一를 반

대하여 실로 촌철(寸鐵)을 가지지못한 적수공권으로 일어났다。

그들은 거듭하는 구국투쟁과 애국열성 가운데서 급속히 자랐고 강대하여져서 오늘은 리승만「군경」들이 제목숨과 함께 가져다 바치는 미국제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한 기고(旗鼓) 당당한 인민유격대로 장성발전하여 도처에서 적들을 무찌르며 한결음 한결음 적의 아성(牙城)에 육박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전취하며 확대하고 있는 해방지구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인민정권기관과 민주단체들을 착착 조직하고 있다。 실로 투쟁은 그들의 희망의 성실한 실현자였다。

창발적 로력으로 평화건설에 종사하는 북반부인민들은 한결같이 해방직후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과 투쟁에 집결되어 왔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부서들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초소로하여 건설과 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투쟁은 곧 조국통일의 열화로 되고 있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와 경비대와 보안대들과 이신동체(異身同體)와 같이 단결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 그들의 력량은 더욱 장성하면서 있다。 즉 이것은 인민들이 공화국 정부 주위에 집결하여 그 정강을 실천하며 국토를 수호하고 외적의 침해를 방위하는 인민군대와 군계 단결된데서 그 력량이 장성하고 강화된 한개 실증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인민들로부터 리탈 고립되면서 있는 리승만도당들은 오늘에 와서는 오직 「국방군」이니 「경찰대」니 기타 특설부대(례컨대 계림공작대, 호림부대, 백골부대 따위)니 하는것 따위로써 그들의 여명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군대와 경찰을 언제까지든지 그들의 맹목적 어용물(御用物)로 만들기 위하여 무지와 암매와 연막(煙幕)속에 사로잡아 두고 그들로 하여금 동족을 도살하는데 아무런 량심의 가책도 없는 살인마가 되게끔 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의 대다수는 근로인민의 자제로 리승만 정부에 의하여 강제로 징모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시 호구지책으로 들어간 자들이니만큼 인민들과 전연 무연한 인민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속에도 인민의 소리는 들어가고 있으며 결정적인 대세의 기운은 감응되고 있다。

그들 군대중에서 리승만 괴뢰집단을 반대하고 빨찌산에 합류한 반란군이 생긴 것이라든지 망국괴뢰도당들을 반대하고 민주기지 북조선으로 의거하여 온 부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가 모두 그들속으로도 인민의 소리가 침투되면서 있다는 실증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제시한 평화적 조

국통일의 강령과 선언서가 침투된다면 그 군대들은 리승만의 매국행위를 도우려 하지않을 것이요, 자기의 동족을 살해하는 극악한 죄악을 범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화국 수상 김일성장군은 공화국 정부수립 一년에 관한 자기보고에서 말씀하기를 「남조선 인민들이 다 일어나고 리승만을 추종하던 「국방군」이 대량적으로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때에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자기 지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하여 오늘 우리의 당면 투쟁방향을 명시하였다。

우리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이미 축성해 놓은 공화국의 민주기지를 일층 공고히하여 조국통일을 보장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요색으로 되게하며 인민경제계획을 근로와 창발력으로써 부단히 발전시켜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약진적 향상을 보장하는 원천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조국과 인민의 초소에 서서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수호하는 공화국 인민군대와 경비대와 보안대들을 일층 강화하며 원호하는데 만반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옹호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기관과 사무소와 공장, 기업소, 광산들의 직맹, 민청, 녀맹 문화제―를 기타 조직들이 평화옹호사업을 자기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다。

리승만 괴뢰정부와 그 군경과 또는 그들의 방조자이며 선동자인 미제 침략자에 대하여 가두에서 직장에서 인민의 분노가 터져나와야 하며, 타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하며, 인민들의 건설투쟁과 일거일동이 모두 이에 대한 저척의 라팔이 되고 기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리승만 망국도당은 단말마의 발악으로 三천만 조선인민이 열망하는 평화적 조국통일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리승만도당은 이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 받고 있는가? 남조선 인민유격대의 구국투쟁의 불길이 그 어느때보다도 드높고 그 투쟁성과가 그 어느때보다도 큰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들의 열망을 달성하고야 말전체 인민들은 자기들의 직장을 초소로하여 자기들이 잡고 있는 낫과 망치와 붓을 무기로 멸적의 의기에 불타고 있다。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며 외래 제국주의의 침해를 방위하는 공화국 인민군대와 경비대와 보안대는 이미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있다。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력량이 리승만 망국도당

들을 완전히 고립시키며 소탕해 버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오늘에 있어서 국제평화투쟁일을 맞는 것은 더 한층 의의가 깊은 일이다。

우리는 미제 침략자를 우리강토에서 시급히 물러가게 하고 리승만 괴뢰집단을 분쇄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서는 인민행진의 날로 오늘을 맞이한다。

평화옹호 투쟁에 궐기한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모두 우리인민의 편이다。 전세계 인민들은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뿐 아니라、우리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자기들의 승리로써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도 물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즉 「평화옹호 국제투쟁일」에 있어서 전세계 인민들이 우리 조선에서 들으려는 것은 미국의 원조하에 국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동족상쟁과 내란도발을 피하고 있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높은 함성이며 우리들의 평화대렬 위에 휘날리는 진군의 기빨인 것이다。

그것은 곧 세계 민주진영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니 우리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길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 국제정세는 세계 민주력량의 강화발전에 따라 민주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우리 조선인민들에게 확고한 승리의 자신심을 더욱 높이어 주고 있다。

세계민주진영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선두에는 위대한 쏘련인민들이 서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지금 급진적으로 강성 발전되며 강화되고 있는 인민의 력량과 함께 민주와 평화를 위한 투쟁 속에서 국제적인 친선과 단결이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

오늘 의의깊은 제一회 평화옹호 국제투쟁일에 제하여 우리들은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며 공화국 정부와 내각수상 김일성장군 주위에 일층、굳게 결속하여 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조국을 또다시 식민지、예속화하며 내란을 도발시키려는 미제국주의와 리승만 괴뢰정부의 온갖 음모를 폭로 분쇄하며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향하여 총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쏘베트문화의 영향

박 길 룡

위대한 쏘베트동맹은 인류의 대적인 파씨즘이 대두한 첫날부터 이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나섰으며 인류와 인류문화의 옹호자로서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이를 괴멸시키고 세계 문명을 파멸과 모욕에서 구원하였다。

쏘베트동맹의 위력한 정의의 무력인 영웅적 쏘베트군대에 의하여서만 우리 조선인민들도 해방될 수 있었고 민족 재생의 광명과 민족문화를 회복 발전시킬 수 있었다。 위대한 쏘베트동맹은 우리 민족 재생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의 구원자였다。

파씨즘은 거꾸러졌다。 제二차대전은 종결되였다。 전세계 인민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길을 내뿜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력사에서 미증유의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고 인류 발전을 정지시킨 악독한 제二차대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오늘 또다시 세계인류를 새로운 전쟁에 끌어 넣으려는 미제국주의 월가상인들의 최후 발악은 날로 로골화하여가고 있다。

미국 독점자본가들과 그의 주구들은 세계문화의 모든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것을 반대하며 쏘베트동맹과 쏘베트문화를 백방으로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월가 상인들의 단말마적 발악이 날로 로골화하면 할쑤록 평화와 민주를 사랑하는 전세계의 소박한 사람들은 이 흉악한 제국주의 무리를 반대하고 인류 행복의 상징이며 세계 평화와 민주의 성벽인 위대한 쏘베트동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과거 력사에서 일찌기 보지 못하던 거대한 평화옹호운동을 치렬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의 성실한 인간들은 쏘베트동맹은 평화적 문명과 발전의 성벽이며 진정한 문화와 진실한 인도주의의 옹호자이며 수호자이라는 것을 명

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 쏘베트동맹은 부르죠아 제도에 대한 쏘베트제도의 위대한 우월성을 시위하면서 자기의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령역에 있어서 여러나라들의 선두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쏘베트문화도 전세계에 위대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떠한 나라 문화도 쏘베트국가에서와 같이 자기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쏘베트사회주의 제도 하에 있어서만이 진정하고도 숭고한 문화의 발전과 근로대중의 온갖 생활의 물질적 정신적 부(富)를 령유할 수 있는 한량없는 가능성이 창조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쏘베트문화는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으로 고무되였고 레닌—쓰딸린당의 령도 하에 여러세기의 흐름 속에서 인류들이 훌륭히 이루어 놓은 우수한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접수 발전시킨 문화이며 쏘베트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된 전인류의 문화발전에 새로운 최고단계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이다.

문화문제에 대한 자기 관계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은 사회발전 법칙에 관한 맑쓰주의 학설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볼쉐위끼당은 혁명투쟁과 프로레타리아에 의한 정권장악만이 그의 문화 장성을 위한 기초이라는 것을 항상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문화발전을 사회의 물질적 경제전의 총과업중의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경제 사회부면에 있어서의 변혁이 문화의 변혁을 가져오는 근본으로 보았다.

쏘베트문화 발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심심한 고려를 돌린 볼쉐위끼당의 정책이 정확하였음을 찬란한 쏘베트문화발전 력사 자체가 확증하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만이 쏘베트인민들의 사회주의문화의 위력한 개화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보장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쏘베트동맹에서는 볼쉐위끼당의 령도 하에 문화혁명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었다.

혁명전 시기에 로동계급의 원수들은 볼쉐위끼당을 반대하면서 로동계급과 볼쉐위끼당은 국가를 관리하며 경제를 조직하며 문화를 발전시킬만한 문화적 인재들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의곡 선전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 비과학적이며 비맑쓰주의적인 리론들은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분쇄되었고 무참히도 조소당하였다.

인류력사상에서 처음으로 근로대중들을 높은 문화수준에 도달케 한 볼쉐위끼당의 문화혁명의 위대한 계획은 도시와 농촌, 쏘베트동맹을 구성하고 있

는 전체 공화국들에 침투되었으며 심지어는 광대한 쏘베트국가의 가장 뒤떨어진 변강까지도 변경시키었다.

문화는 진정한 인민적 문화로 되었다. 쏘베트동맹의 전체 인민들과 자본주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이 된 수천만 근로대중은 쏘베트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로 되었으며 그 문화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되었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문화의 온갖 쟁취는 전인민적인 재산이다. 이에 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후 어느때도 인간의 두뇌와 정신은 억압의 수단과 착취의 수단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레닌선집 二二권 二二五페지).

오늘 쏘베트동맹에 있어서는 전체 인민의 두뇌와 정신은 공산주의에 관한 인류의 위대한 동경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향에로 총집결되어 있다.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쏘베트인민의 투쟁은 또한 쏘베트사회주의 문화의 사상적 기초로 되고 있다.

위대한 쏘베트사회주의 문화는 부르죠아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초 위에서 발전되고 있다. 부르죠아문화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의 신성 불가침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라는 야수적 원칙 위에서 구성되고 발전되면서 착취계급의 리익을 반영하고 있음에 반하여 쏘베트사회주의문화는 근로자들의 리익과 그들의 다방면적인 정신생활과 그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민의 행복에 그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쏘베트사회주의 문화는 진정한 인도주의의 원칙 위에서 발전되고 있다. 사회주의문화가 부르죠아 반인도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문화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문화의 급진적 개화와 무한한 발전의 원천은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三十여년 간의 쏘베트국가의 력사와 위대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간로동을 공동적 복리에 대한 영예의 사업으로 알며 영웅적 용감성으로 사업하는 새 사상으로써 교양받은 새로운 쏘베트사람들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는 데 있다.

쏘베트인민들에게는 인민의 리익과 사회주의 조국의 리익보다 더 높은 리익은 없다. 쏘베트인민들은 자기 인민의 자유와 자기 조국의 자유를 고수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의 인간은 영웅적 로력 속에서 자라났으며 헌신적 투쟁 속에서 키워났다. 이러한 인간이 나타났다는 것은 쏘베트근로자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근본적 변혁의 결과이며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거대한 교양사업의 결과이며 쏘

베트사회주의 문화의 건설적인 개혁력의 영향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쏘베트사회주의 문화는 맑쓰—레닌주의사상、인민들의 친선에 대한 고귀한 사상과 어떠한 계급적 억압의 표현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와 대소 인민의 평등권을 존중하는 사상의 기초 위에서 개화 발전된 것이다。

쏘베트문화는 쏘베트사회의 새롭고 자유스러운 인간들에 의하여 창조되며 이와 더부러 새로운 인간——즉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행복한 인간사회 건설을 위한 의식적인 공민들과 새로운 쏘베트도덕과 륜리의 구현자이며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견고한 투사들을 창조하고 있으며 편성하고 있다。

쏘베트사회주의 문화가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고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그것은 쏘베트사회주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면노 중의 하나이며 부르죠아문화에 대한 그의 기본적 우월성의 하나이다。

문화령역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의 정책은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거부하지 않을뿐더러 그와 반대로 매개 인민들의 과거 력사와 실생활、전통、언어의 특성에 적용한 민족적 형식에 있어서만이 사회주의문화는 진정코 발전될 수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내용은 프로레타리아적이며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문화——이러한 문화가 사회주의에로 가는 전인류적인 문화이다」(쓰딸린—맑쓰주의와 민족문제 二〇二—二〇三페지)

이와 같은 사회주의문화 발전법칙으로부터 리탈된다면 그는 기필코 민족적으로 제한되며 과소평가를 받게 되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니 이는 바로 민족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부르죠아적 견해의 본질이다。

실로 쏘베트사회주의 문화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들을 표현하면서 심오한 애국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정신으로써 일관된 문화이다。 이 문화의 발전은 인간들의 의식적 활동의 기초와 레닌—쓰딸린당에 의하여 실현된 조직적 지도와 통일적 지도의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전세계의 성실한 인간들은 현대 쏘베트사회주의 문화의 원칙의 위대한 의의가 그의 사상의 진보적인 성격、인류의 공동적 문화에 대한 위대한 공헌、다시 말하면 사회주의문화가 전 인류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새롭고 높은 단계를 이루고 있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류들은 쏘베트사회의 문화가 가장 선진적인 사상인 맑쓰—레닌주의사상에 의하여 고무되여 있기때

분에 부르죠아문화가 온갖 자본주의제도의 붕괴와 부패의 시기를 채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문화는 생활을 확고히 하는 문화이며、전체 인면의 빛나는、미래의 문화이며、선진적 세계인류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확상하던 위대한 목적의 실현인 공산주의에로 이끄는 문화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문화를 고무하고 있는 맑쓰—레닌주의사상은 사회주의문화에게 그의 장성과 개화를 위한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세계는 문화발전과 연류의 재능과 능력의 발휘를 위한 넓고도 무한한 전망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참으로 오늘날의 쏘베트적 현실과 쏘베트과학과 기술의 빛나는 성과들과 쏘베트예술과 문화의 찬란한 개화는 그의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부르죠아문화는 무엇에 의하여 「고무되는가?」 부르죠아문화는 쇠퇴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누구에게 복무하고 있는가?

부르죠아문화가 지배계급의 리익을 반영하면서 다만 한개의 숭배(崇拜)——즉 돈수머니의 숭배를 찬양하며、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의 신성과 부르죠아 질서—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민 적 억압、인간두뇌 속에 부르죠아도덕의 악독한 투쟁들을 주입하는 원칙에 립각하고 있는 한 이 썩어가는 문화의 어떠한 발전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부르죠아문화의 쇠퇴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 자기 발전의 최후단계인 제국주의단계에 있어서의 기생충적인 자본주의를 「온갖 항로(航路)에 대한 반동」이라고 브、이・레닌은 말하였다。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는 모든 가장 암흑한 점과 수많은 세기와 흐름 속에서 인류력사 중 가장 악독하고 반동적인 것을 포함한 과씨즘과 같은 그러한 기형(畸形)을 낳게 하였다。

부르죠아제도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야말로 썩어빠졌다。 부르죠아문화의 부패상은 그의 내용이 더욱 더 빈약해지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다。 이 착취제도는 력사의 진정한 창조적인 근로자들을 문화달성으로부터 뒤떨어지게 하며 인민대중에의 문화주입을 갖은 수단을 다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문화가 전반적인、본질에 있어서 국제주의적임에 반하여 부르죠아문화는 민족주의 정신으로써 관통되어 있다。 배타주의와 쓸모없는 소동、인종론적 차별대우、부르죠아 세계수의 및 민족적 허무주의의 설교——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적 략탈자들의 개인적 리해관계에 봉사하는 것이며 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전

트.의식을 해태시키며 인민을 노예화하는 침략적 패창계획을 실현하려는 사상적 준비로도 되는 것이다。따라서 제국주의는 식민지 및 예속인민들의 문화를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두 세계의 두 문화를 대비하여 보면서 우리들은 문명이라는 탈을 쓴 야만의 문화보다、또한 쓰러져 가고 있는 부르죠아세계의 문화보다、인류에게 삶(生)의 즐거움과 행복을、실어다 주는 사회주의적 문화가 그 얼마나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위대한 쏘베트인민의 의로운 해방적 역활로써 해방되었고 자기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정권기관인、인민위원회를 창설한 우리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쏘련의 우의적 방조밑에서 지나간 四개년간 조국의 부강한 민주발전과 인민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함에 모든 애국적 창조적 로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울이고、있다。

해방 四년이 지난 오늘 전체 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피로써 쟁취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완전 자주독립의 확고부동한 경제토대를 구축하고 이 빛나는 성과위에서 우리 민족문화는 유사이래 가장 찬란한 개화를 이루고 있다。이는 오로지 위대한 쏘베트인민들과 쏘베트의 문화 예술인들의 아낌없는 원조에 힘입은 바에서 온 것이다。

해방과함께 우리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쏘베트사회주의문화 섭취에 목마른듯이 전력을 다하여 왔다。그것은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사회주의적 문화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일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형성된 제 인민간의 형제적 친선과 동지적 협력을 반영하고 있으며、제 민족간의 호상존경과 호상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위대한 문화이며、세계평화와 민주의 등대인 숭고한 문화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민의 이와 같은 쏘베트사회주의문화에 대한 절절한 동경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일제의 악독한 야수적 란압하에서도 조선인민은 위대한 쏘베트동맹만이 약소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원조하며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독립과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유일한 성새임을 확신하여 왔다。

지나간 四년간 위대한 쏘베트동맹은 조선인민의 력사적 숙망인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시종여일하게 옹호하고 나섰으며 우리 조국 남반부를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 략탈자들을 반대하여 국제무대에서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전투에서 흘린 고귀한 선

혈로써 또한 우리나라의 완전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굳게 맺어진 쏘련인민과 조선인민간의 뜨거운 친선 위에서 이루어진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 개화는 그 본질에 있어 위대한 쏘베트사회주의문화에 본받아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진보적 민족문화발전의 원칙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유린되었던 우리 민족문화가 해방후 四년이란 단기간내에 인민들속에 광범히 침투되었으며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찬란히 발전 개화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방조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조선인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쏘련문화를 적극적으로 연구 섭취하는 것이 조선 민족문화의 민주주의적 발전 개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다。

오늘 숭고한 쏘베트사회주의문화의 영향밑에 우리 민족문화는 철두철미 조국과 인민에 복무하는 문화로 되었으며 부강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비등된 애국심을 반영하며 이를 고무 격려하는 진정한 인민적인 문화로 발전 개화되면서 있다。

원쑤와 동지를 판단할 줄 알며 원쑤와 싸우며 끝 끝내 이를 소탕하고야말 영웅심과、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서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모든 것을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선진적 민주사상과 전통적인 고상한 애국식으로써 무장된 새로운 조선의 아들 딸들의 씩씩한 모습과 힘을 보여주며 그와 같은 새 사람의 전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 청년을 교양하는 진정한 인민적인 민족문화가 싹트고 있는 것이다。이는 오로지 위대한 쏘베트문화의 지극한 민주주의적 영향밑에서、우리 조선인민이 쟁취한 가장 영예롭고 빛나는 성과의 하나이다。이점에 있어서 우리 조선인민들은 더한층 쏘베트동맹에 배울 것이며 그 위대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계속 섭취함으로써 진정코 조국과 인민에 복무하는 철두철미한 애국사상으로 무장된 민주주의 민족문화 확립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더우기 오늘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민족문화는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고 퇴폐적 반동적 미국식 문화만이 성행하고 있다。우리 민족의 고귀한 수많은 문화 유물들이 리승만도당의 협조하에 미제국주의 군대와 미국인에 의하여 략탈 반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남북 전체 학술단체、사회단체、문화예술인들은 격분에 찬 항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있어서 전체 조선

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속에 十월 十四일부터 동 二十三일까지를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으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문화 발전사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일대 민족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은 지나간 四년간에 맺은 조선인민과 쏘베트인민과의 견고한 친선과 단결을 과시하며 조쏘문화교류의 빛나는 성과들을 총 시위하는 영예로운 민족적 사업으로 된다。

이 순간에 실시될 각종 행사들은 호화다채롭고 성대히 진행될 것이며 쏘베트의 저명한 작가, 배우, 음악가, 무용가등 예술대표단들이 초청되어 그들의 고상한 예술공연을 통하여 조선인민들에게 선진 쏘베트예술의 숭고한 예술성과 사상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 「순간」 사업을 통하여 우리 전체 인민들은 조쏘친선의 강화발전만이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의 승리적 담보로 됨을 철저히 자각할 것이며 아울러 조쏘문화 교류사업의 가일층 활발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이 사업을 계기로 쏘베트의 선진적 과학、문화예술의 우수한 성과들을 일층 광범히 연구 섭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에、백방 노력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적 보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 문화의 자유롭고 무한한 발전은 오직 주권이 인민의 손에 장악되어 있음으로써만 약속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민들은 진정한 인민의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정부수상 김일성장군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야 할 것이며 통일독립과 민족문화 개화의 물질적 기초로되는 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를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조선인민의 의식속에 뿌리박고 있던 봉건적 일제적 악독한 사상 잔재는 아직 깨끗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국의 부강 발전과 문화향상에 거대한 방해로 된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의 기치밑에 우리의 의식속에서 봉건적 및 제국주의적 사상 잔재요소를 철저히 숙청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 예술일군들은 우선 근로자들의 선진적 우주관인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정통한 기초위에서 과거의 민족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 섭취하여 고상한 기술과 고상한 사상적 예술적 내용을 가진 창작을 만들어 내여 조선인민들의 의식을 민주주의 정신으로 개변시키는 가장 활동적인 조직자로 되여야 할 것이다。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순간」 사업은 비단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만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세계평화를 옹호하며、세계인류의 즐거운 미래를 노래하는 행복의 상징이며、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민주의 성색인 위대한 쏘베트동맹을 반대하여 인류와 인류문화를 새로운 전쟁으로써 잿데미로 화하려는 극악한 미제국주의 전쟁방화자들과 그 졸도、일체 부르죠아반동과 그 동반자들을 반대하여 놈들의 몰락의 촉진을 구가(謳歌)하는 국제적인 평화옹호문화전선의 커다란 기꺼운 사업으로 되는 것이다。

참으로 오늘날 위대한 쏘베트동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계인류와 인류문화의 행복이다!

오늘 우리조국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졸도 리승만도당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놈들이 력사의 진로를 반대하고 인민을 반대하고 전세계의 평화를 반대함은 기필코 멸망의 길이며 놈들의 최후발악은 몰락하여가는 자들의 가련한 단말마적 신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놈들의 운명은 인민들의 힘으로써 머지않아 처단될 것이다!

부르죠아정치가들과 문학자들이 쏘베트제도와 쏘베트문화의 성과들에 대한 사실을 제 아무리 자기 인민들의 눈앞에서 감추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또한 그들이 쏘베트동맹에 관한 사실이 자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 아무리 철벽(鐵壁)을 쌓아놓는다 할찌라도、그리고 또한 그들이 제 아무리 쏘베트문화의 실지적 성장과 규모를 과소 평가하려고 할찌라도 이 모든 기도는 수포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다。

바야흐로 쏘베트나라로부터 혁신과 재생의 빛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빛나고 있으며 부르죠아리론가들이 제 아무리 그놈의 철막으로써 부르죠아 사회의 근로자들을 둘러 쌓으려고 할찌라도 쏘베트문화와 쏘베트사상은 더욱더 깊이 인민대중 속에 침투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쏘베트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전세계 근로자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간다운 가름파 생활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문화는 전인류의 미래의 문화 즉 공산주의 문화로서 전세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서에는 무엇이 은폐되어 있는가?

홍 남 표

조선의 해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시스트 침탈자를 타도한 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세계사적 승리의 결과로써 달성되였다。위대한 쏘베트동맹의 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은 장구한 기간의 일본 강도배의 식민지적 통치를 분쇄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던 조선인민을 한없이 고무하고 추동시키었다。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독립국가도 자기 조국을 부흥시키려는 정치적 자각은 급속도로 제고되었다。

조선인민들은 해방후 四년간의 판이한 남북조선의 정치정세에 비추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민족독립과 민주발전을 쟁취하며 자기운명을 자기손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며 이 숭고한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북조선 인민들의 모든 민주개혁의 성과들을 공고파하는 투쟁과 아울러 남조선 인민들의 영용한 十월인민항쟁을 비롯한 거대한 애국적 무장투쟁들은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정책에 적극적이요、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반동과 매국노의 괴수 리승만을 친일파의 머리위에 앉히어 민족분렬과 반동진영 강화에 제아무리 광분하였으나 미제국주의자의 모든 시도는 모조리 질패에 돌아갔으며、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류혈적 경찰테로 제도를 강화하기에 날뛰었으나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미 독점자본가들의 광포한 침략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 이것이 로골화될수록 인민들의 반대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졌다。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량군이 즉시 동시 철퇴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자기정부 수립의 권리를 위임하자는 제의를、미제국주의자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데서 그들의 정체가 당나귀 귀처럼 인민들앞에 더욱 명료하게 폭로되였다。

타민족을 략탈 침략함으로써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고질화된 미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의 이 제의에서 조선인민들의 머리를 돌리고 자기의 침략정책의 지주를 이루고 있는 군사적 강점을 계속하기 위하여 백방의 음모를 꾸미기에 노력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독립의 유일한 원조자인 쏘련을 조선문제 해결에서 제외하고 독점적 처리권을 틀어쥐기를 음모하였었다。왜 그런고 하니 쏘련이 조선문제 해결에 있어 주동권을 가지고 있는한 자기들의 식민지화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된 까닭이다。

미제국주의자에게는 이와 동시에 조선문제를 세계여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독점적 처리아래에 두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왜 그런고 하니 지능적 범죄자는 자기의 범죄증거를 폭로시키지 않으려고 그 범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교묘히 넘겨 씌우기에 능숙한 까닭이다.

여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一九四七년 十一월에 자기의 딸라와 무력에 굴복되고 자기의 지시에 좌우되는 거수기들로 그「다수」를 구성한 유•엔총회에 조선문제를 끌고 갔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한 것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며 쏘련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한•반대제안을 무시한 일방적인 비렬한 행위인 것이다。또한 조선인민들이 쏘련의 제안인 쏘미량군의 즉시 동시철퇴와 자기 문제를 자기손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일치하게 투쟁에 궐기하였으니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더욱 광범하게 더욱 심각하게 하려는 이 행위에 어찌 반대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소위「유•엔조선위원단」은 미제국주의자의 이와 같은 불법적이요、일방적인 행위의 소산이기 때문에 조선인민의•폭풍우같은 반대를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 × ×

그러면 미제국주의자가 자기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그 설치를 강제통과하였으며 이 거수기들 중에서 선발하여 조직한 소위「유•엔조선위원단」은 무엇을 하였는가? 두말할 것 없이 미제국주의자의 지시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의 리익에 충실하게 복무하였으며、복무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의 조선에 대한 목적은 조선인민을 자기의 식민지적 노예로 만드는 것이며 조선을 세

전쟁의 군사기지로 만드는데 있는 것이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조선을 분활통치함으로써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방해하고 남조선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예속화하는데 있다。

이 음모의 구체적 책동이 곧 자기의 주구들로 남조선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자기의 군사적 점령을 하루라도 더 장기화시키는 것이다。물론 남조선 괴뢰정권의 조작과 미군의 장기 주둔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다만 미군의 총검만이 인민들의 반대를 억압하고 괴뢰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괴뢰정권을 만들어내야만 미군의 주둔을 계속시킬 구실이 생기는 까닭이다。

더우기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조선인민들의、반대와 반항이 十월인민항쟁후 나날이 더욱 치렬하여가는 정세에 비추어 괴뢰정권의 조작과 군사점령의 장기화 문제는、미제국주의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소위「유•엔조선위원단」의 사명은 인민을 유•엔의 이름으로써 기만하여 미제국주의자의 이 음모를 방조하고 세계의 공정한 여론을 혼란시키어 그 실현을 용이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즉 미국인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화 정책을 은폐하여 괴뢰정권 조작과 미군장기주둔을 합리화함에 그 사명이 있는 것이다。과연「유•엔위원단」은 미제국주의자의 이 음모를 위하여 갖은 파렴치한 행위를 다하였다。

「유•엔위원단」은 괴뢰정권의 조작을 위하여 소위 선거를 위조하는데 있어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 학살정책을 은폐하고 소위「자유분위기」가 있다고 날조하였었다。

미중유의 강압과 포행으로 실시된 망국적 五•十단독선거를 가르쳐「자유선거」라고 떠들어대고 선거의 진행과 결과가 만족하다고 날조한자는 이 유•엔의 이름을 뒤집어 쓴 허수아비들이요、이 포행과 위조에 의하여 매국노 리승만을 수괴로 구성된 괴뢰정권을「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광고한 자들도 이 딸라의 종복들인 것이다。실로「유•엔위원단」은 미제국주의자의 조선 침략 기구의 충실한 일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실한 방조자를 가졌다 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이 과연 성공되었는가? 절대로 성공되지 못하였다。왜 그런고 하니 소위「유•엔위원단」의 기만과 날조는 조선인민에게도 세계여론에도 아무러한 영향을 주지 못한 까닭이다。

오히려 그들의 상전의 음흉한 책동에 의하여 진행된 이 기만은 가일층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를 격증시키었으며 공정한 세계인사들의 웃음거리를 만들어낼 따름이었었다。

「유•엔위원단」이 그 첫 발자욱을 우리강토내에 들여놓을 때 벌써 녀동포와 경성전기회사의 로동자들의 반대파업이 일어났었다。二백만이 참가한 二•七구국투쟁이 미국군대와 아울러 딸라의 종복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어났다。五•十망국단선에 전조선인민들이 일치하게 거족적 보이코트투쟁에 궐기하였다。력사적 제一차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는 전조선의 애국세력의 단결에 새로운 단계를 지었다。전체 인민들은 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자기의 통일선서로 우리 중앙정부를 수립하였다。

소위「유•엔위원단」이 조선인민을 기만하기에 광분하였지만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조금도 약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미군철퇴를 위한 투쟁은 더욱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었었다。이러한 사실들은 이 딸라의 종복들의 미제국주의 침략정책을 은폐하려는 병풍의 역할이 완전히 실패된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에 빠진자는 짚 한오래기에도 의지하려한다는 말과 같이 인민들의 반대와 반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제국주의자에게는 이러한 도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엄폐물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여기에서 쓰라린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위「유•엔위원단」을 두번째 조작하여 다시 一년간 더 존속시킬 조건하에서 조선에 파견하였다。물론 이 둘째번에 들여보낸「유•엔위원단」이 그 구성에 있어서나 그 목적에 있어서나 제一차의 그것과 동일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다른것이 있다면 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중앙정부 주위에 더욱 광범하게 더욱 공고하게 단결되고 북반부의 민주주의적 통일독립의 토대가 더욱 튼튼하게 장성되고 남반부인민들의 구국투쟁이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이 딸라의 종복들이 저들의 상전을 위하여 복무할 조건이、더욱 곤난한 환경속에 처하게 된 그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군사기지로 리용하는 음모는 자기의 군사적 점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그런데 조선인민의 미군철퇴를 요구하는 투쟁이 날로 강화하고 위대한 쏘베트 정부가 一九四八년말 자기 군대를 북조선에서 완전 철퇴한 사실은 미제국주의 군대의 계속 주둔에 대한 구실을 근저로부터 박멸시키었다。

이러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군대 철퇴를 계속 거부할 아무런 구실도 없는 조건하에서 아무리 철면피라 할찌라도 그들은 곤난을 느끼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여기에서 미제국주의자에게는 자기의 군사

책 결렬을 계속하면서 자기군대의 철퇴를 날조광고하여 주는 연극을 놀아줄 배우가 필요한 것이다。 즉 자기의 군사적 점령을 일층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하는데 방조할 자가 필요한 것이다。 소위「유・엔위원단」이 이 연극을 맡은 것이다。 물론 이 딸라의 종복들은 이 역할을 충실히 집행하였다。 여기서 미제국주의자는 금년 六월 二十九일로써 자기군대의 철퇴를 이 종복들의 입을 빌어 광고케 하는 동시에 방대한 인원으로 소위 군사고문단을 꾸미어 반동무장도배인 소위 국방군을 통할 지휘케 한 것이다。 소위 군사고문단의 설치가 변형적인 군사적 점령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는 자기의 군사적 점령을 계속하면서 인민을 기만하며 세계 여론 앞에 군대철퇴를 증명할 목적으로 파견한 이 딸라의 종복은 자기 상전의 지시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극히 어리석은 연극에 불과한 까닭에 그 기만적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물론 이 배우들이 맡은 역활의 한가지는 미국자신이 조선의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이 배우들을 통하여 가장함으로써 자기의 분활정책을 은폐시키려는데 있다。 그리하여 이 종복들은 입만 열면 통일을 떠들어대고 자기들이 통일에 성의가 끓어 넘치는 것처럼 광고하기에 분주하였었다。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사기이며 협잡이다。

우리조국의 분활을 고정화시키기 위하여 총검으로써 인민들을 강제 위협하여 리승만 매국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망국적 五・十단선을 감행한자 그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소위「유・엔위원단」과 그 상전 미제국주의자인 것이다。 조선인민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남북통일선거로써 조직한 조선민족의 진정한 중앙정부를 부인하고 우리조국의 통일을 방해한자 그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이 딸라의 종복들과 그 상전들인 것이다。 전조선의 애국적 력량을 총집중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제의한 평화적 통일방책을 반대하는 리승만 매국도당을 방조하여 전인민이 갈망하고 투쟁하는 이 위대한 통일방책을 방해하는자 그 누구인가? 역시 딸라의 종복인「유・엔위원단」인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도살 학살하는 살인광 리승만을 방조하기에 미쳐 날뛰는자 그 누구인가? 바로 이 유・엔의 이름을 뒤집어 쓴 허수아비 그자들인 것이다。

만약 이자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털끝만치라도 원한다면 왜 우리조국의 분활을 영구화할 목적하에서 동족상잔의 내란을 조작 도발하는 리승만도당의 무장과 무기원조를 위하여 미친개처럼 날뛰고 있겠는가? 그러면 이자들이 떠드는 통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상전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의 악랄한 분활정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러 지어낸 말공부의 통일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소위「유・엔위원단」이 떠들어 대는 통일은 자기상전의 분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말공부의 통일로써 조선인민에게는 증오의 불길을 일으킬 뿐이요, 세계여론에는 한개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 × ×

소위「유・엔위원단」은 리승만 매국정권을 유・엔총회에서「다수」로써 승인한 것을 리용하여 마치「위신」있는 정권처럼 인민들에게 선전하는 책임을 자기의 상전으로부터 맡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실례로 이 허수아비들은 금년 一년동안에 수다한 담화, 성명등을 통하여 이것을 선전 선동하기에 최대의 정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 선동은 인민의 도살자요, 학살자인 인민의 불공대천의 원쑤 리승만을 아무리 추켜올린들 인민에게서 고립됨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인민들을 피의 바다속에 잠그면서 조국을 미제국주의자에게 팔아먹고 조국의 분활을 고정화하여 통일을 파괴할 목적하에서 평화적 통일안을 반대하고 동족상잔의 내란을 도발조작하는 리승만 매국도당은 실로 전인민들의 반항과 반대 위에서 고립되어 있다。 딸라의 종복들이 리승만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시도도 완전히 실패되고 있다。

소위「유・엔위원단」은 이러한 자기의 실패를 저들로도 자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유・엔 제四차총회에 제출한 저들의「보고서」에서 명백하다。 물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딸라에 팔리어 다니는 무리라 할찌라도 조선속담에「쪽제비도 낯짝이 있다」는 말과 같이 남북조선인민들의 열화같은 애국심에 의한 무자비한 폭로와 반대를 받아 저의 상전이 준 지시를 한가지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천하에 드러났거늘 어떻게 그 정체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딸라의 종복들이 인민과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의 야만적 침략정책을 은폐하고 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진실한 사태를 은닉하고 조선인민의 불공대천의 원쑤인 매국노 리승만도당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전으로부터 엄중하게 책임진 허구와 날조에 대한「임무」를 잊을 리치는 결코 없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소위 보고서는 자초지종 허구와 날조로써 충만되어 있으며 자기상전의 침략정

책의 추악한 정체를 은폐하는 목적을 추구한 것
이다。
 소위 보고서는 자칭 가장 중요하다는 제四장
첫머리에 통일문제를 들추어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문제에 관하여는
전조선인민이 일치하게 일일천추같이 갈망하고 있
다。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들이 수없이 자기의
귀중한 피를 흘리고 있다。딸라의 종복들은 여기
에 관하여는 일언도 언급치 아니하였다。그러면
이자들이 왜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말도
아니하였는가? 그 리유는 아주 명백하다。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수많은 인민들이 죽었다면 이
인민들을 죽인자가 누구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아
니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면 통일을 위하여 투
쟁하는 인민들을 죽인자가 누구인가? 미제국주의
자와 그의 주구 리승만인 것이다。딸라의 종복들
이 미제국주의자와 리승만 매국도당의 이 흉악한
범죄를 내놓지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이다。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인민들과 세계여론 앞
에 내놓지 아니하는데 바로 이 딸라의 종복들의
임무가 있는 것이다。
 조선통일문제에 대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지망과
의사와 일치되고 가장 적절하고 정당한 대책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제기한 평화적 방법에 의
한 구체적 방책인 것은 의심할바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딸라의 종복들은 이 제
의에 대하여는「본 위원단이 그러한 제의에 관련
한 광범한 행동을 취할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사실에 있어 이 위대한 통일방책
의 실현은 이자들로는「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방책은 파렴치한 내정간섭
자인 딸라의 종복들을 구축하고 미제국주의자의 침
략적 군사점령을 종결하며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확
보하는 원칙위에서,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화 정책
의 토대를 이루는 모든 반동질서와는 아무 관련
도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원칙위에서 조국통일
을 실현할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제의의 내용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이 위대한「제의에 관련한 행동」을
취할 문제를「생각」치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자
들이 우리조국의 분활을 고정화시키려는 것이 자
기의 가장 큰목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한 것
이며 통일을 떠들어대는 것은 분활음모를 은폐하
려는 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폭로한 것이다。
 이자들은 三八연선에 대한 리승만도당의 흉악한
도발적 침공을 전면적으로 은닉하기에 급급하였
다。리승만도당의 내란도발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딸라의 종복들은「미 군사당국의 정보」를 인용하였
다。범죄자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꾸미어놓
은 바로 그 위조문서를 리용하여 범죄자와 그 공
범자의 죄를 변명하려고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
은가? 여기에서 소위 보고서의 위조성은 더욱 폭
로되었다。
 물론 딸라의 종복들은 남반부에서 미군이 철
퇴한 것을 제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고「보고
서」에는 썼었다。그러나 군사고문단에 대하여는
역시 일언도 언급치 아니하였다。이것은 미제국
주의자의 군사적 점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은폐하려
는데서 나온 흉책인 것이다。
 그리고 이자들은 리승만 매국정권이 인민으로부
터 더욱 고립되어가며 인민의 증오와 적대의 표
적이 되어 있으며 전인민이 이것을 타도하기 위하여
장엄한 구국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사실은 전면적
으로 은폐하기에 열중한 자기의 시도를 표현하였
다。이자들은 심지어 저들의「보고서」중에「해정부
(리승만 매국정권을 지칭함——필자)는 그 독
립주권의 지위를 충분히 리해하여 활발히 그 령토
를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까지 파렴치적 문구
를 벌려놓았다。
 남반부의 전경제가 미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
이 소위「독립주권의 지위를 충분히 리해」하는 것
인가? 리승만 매국정권을 타도하기에 무장적 대중
투쟁이 남반부 방방곡곡에서 궐기하고 있으며 심
지어 자기내부에서 까지 살륙 상쟁이 계속하며 반
동적 무장도배인 소위「국군」에서까지 의거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소위「활발히 그 령토를
통치하고」있는 것인가?
 이것은 위조중에도 가장 흉악한 위조이다。터럭
끌만한 량심도 렴치도 없는 이자들의 위조성이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겠는가? 이러한 자들
이 만들어낸 소위 보고서중에 어찌 털끝만한 진
실인들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있다 하면 저들의
모든 계획이 전면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그것뿐인
것이다。
 딸라의 종복들은 그「보고서」결론중에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한국정부는 본위원단에게 一년간 더
주재해 달라는 요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위원
단이 현지에 있으므로 현하 일종의 안전세력이 된
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합동통신)
 이것은 소위「유・엔위원단」이 一년간 우리강토
내에 더 계속 주재시킬 것을 요청한 것이다。이
것은 물론 그의 상전 미제가 사수한 것이다。이
것은 다음의 사실로써 명백하다。레이크싹세쓰 九
월 十九일발 유・피통신에 의하면 유・엔총회 미
전권위원 필립・계섭 박사는 十八일 미국 유・엔

협회에서 회합 및 조선위원단의 연장을 미국의 공시 립장으로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실패를 거듭하는 이 허수아비들의 조선에 대한 주재를 더 연장시키려는 리유는 어데 있는가? 이것은 미제국주의자의 주구 리승만도당이 인민들의 투쟁과 저들의 내부모순에 의하여 그 붕괴될 날이 더욱더욱 가까와 옴을 미제국주의자가 알고 있는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자기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기에 열중한 미 독점자본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주구들의 멸망이 가까와오면 올수록 이 주구들을 살리기 위하여 더욱 날뛰고 있는 것이다. 실패는 결코 미제국주의자에게는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히틀러의 패망한 길을 걷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한 까닭으로 과거의 두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허수아비를 리용하려는 것이다. 리승만과 자기의 식민지화정책의 「안전세력」으로 리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허수아비가 저들의 「안전세력」이 될 수 없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쥔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의 침략도구요, 악랄한 내정간섭자를 자기들의 강토에서 용감히 구축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 간섭자들이 인민의 증오와 분노를 약화시킬 수는 없으며 반대로 자기상전의 침략정책만을 더욱 폭로시킬뿐인 것이다.

× × ×

우리인민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적 통일안이 실현되기를 일일천추같이 고대하고 있다. 이 평화적 통일안을 실현하려면 미제국주의자의 어떤 형태의 군사적 점령이든지 완전하게 없애 버리어야 하며 미제국주의자의 리익을 위하여 우리의 내정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유·엔위원단」을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조건인 것이다. 또한 도살과 학살로 평화적 통일방책을 반대하는 리승만도당을 단호히 소탕하여야 한다.

「만일 남조선인민들이 다 일어나고 리승만을 추종하던 「국방군」이 대량적으로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때에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자기지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전체인민들은 확고부동의 자신심을 가지고 원쑤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며 김일성수상의 이 말씀을 받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자!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중국인민들의 투쟁

하 앙 천

一、신구중국의 대립투쟁

고(故) 중국 민주문인 추도분(鄒韜奮)씨가 一九三七년에 쓴 「평종억어(萍踪憶語)」라는 유저(遺著) 속에 다음과 같은 일화(逸話)가 있다.

그가 미국에 려행하여 어느날 로동자의 딸인 十四、五세쯤 되는 나어린 처녀를 만났을 때 그 처녀는 그가 중국에서 온 신문기자라는 말을 듣고 의외로 반가와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중국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처녀는 웃으면서 「나는 당신이 쏘베트중국에서 왔는가 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갑자기 흥분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였노라고 자백(自白)하였다.

회연 중국은 오래전부터 신구(新舊) 두 중국으로 나뉘어져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하나는 중국지주와 관료자본(官僚資本)의 혼합채인 장개석 국민당이 통치하는 반인민적 반민주적 파시스트독재의 구중국(舊中國)이요, 하나는 중국무산계급의 선봉대인 중국공산당의 주동적 역할에 의하여 해방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 수립된 신중국(新中國)이다. 이러한 새 중국이야말로 미국 소녀(少女)뿐만 아니라 전세계 로동계급과 진보적 인사들이 모두 그 성장(成長)을 축하하고 그 전진(前進)을 격려(激勵)하는 인민민주주의 중국이다.

신 구중국의 대립투쟁은 멀리 一九二七년 중국대혁명이 국민당 장개석 반혁명집단(反革命集團)에 의하여 파괴되고 중국공산당이 단독으로 중국혁명을 령도하는 十년간 토지혁명시기(土地革命時期)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정책로선을 지지하고 그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어 인민의 무력인 중국공농홍군(中國工農紅軍) 즉 인민

해방군의 전신)을 조직하고 제국주의자의 주구인 국민당 반혁명 통치를 향하여 과감한 무장투쟁(武裝鬪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민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一九三一년 十一월 강서성 서금(江西省瑞金)에 중화쏘베트중앙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강서(江西)、복건(福建)、호남(湖南)、호북(湖北)、광동(廣東) 등 十九개 구역 三〇〇여현 九、〇〇〇여만 인구를 옹유(擁有)한 해방구(解放區)가 전설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중국멸망정책에 의한 민족적 위기(民族的危機)가 림박하였을 때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과 중국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단연히 국민당과 합작(合作)을 요구하고 항일민족통일전선(抗日民族統一戰線)을 결성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자위적(自衛的)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였다。 八년간 항일전쟁기간(抗日戰爭期間) 중국공산당과 그의 령도하에 있는 팔로군(八路軍)과 신사군(新四軍)은 일제와 국내 반동세력의 협공(夾攻) 밑에서도 영용하게 싸웠다。 그들은 적(敵)의 후방(後方)과 측면(側面)에 우회심입(迂廻深入)하여 당의 정치로선을 군중 속에 침투시키며 전인민들과 함께 광범한 항일 유격전쟁을 전개하여 일제와 한간(漢奸)의 세력을 소탕(掃蕩)하고 항일민주정권(抗日民主政權)을 도처에 수립함으로써 중국해방구는 더욱 확대 강화되였다。 一九四五년 四월 중국공산당 제七차대회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해방구는 북은 장성(長城) 밖 내몽(內蒙)으로부터 남은 해남도(海南島)에까지 료녕(遼寧)、열하(熱河)、차하루(察哈爾)、수원(綏遠)、섬서(陝西)、감숙(甘肅)、녕하(寧夏)、산서(山西)、하북(河北)、하남(河南)、산동(山東)、강소(江蘇)、절강(浙江)、안휘(安徽)、강서(江西)、호남(湖南)、호북(湖北)、광동(廣東)、복건(福建) 등 十九개 구역 九、五五〇만의 인구를 옹유한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항일민주정권은 항일민족통일전선에 적응(適應)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권형태는 三三제를 채취하여 공산당 이외의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이 모두 발언권과 공작할 기회가 있으며 토지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의 지주의 토지와 가산을 몰수분배(沒收分配)하던 정책으로부터 감조감식(減租減息)과 교조교식(交租交息)을 실시함으로써 지주와 농민이 모두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공업정책에 있어서는 실업(實業)을 발전시키고 로동자의 생활을 향상시켜 로자량리(勞資兩利)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각계각층을 단결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하게 하며 더우기 로동자 농민등 기본군중의 생활을 개선(改善)하고, 민주정

신을 제고(提高)함으로써 항일전쟁중 적극성과 주동성(主動性)을 발휘(發揮)하게 하였다。 때문에 중국해방구는 강적(强敵)과 국민당 반동군대의 봉쇄(封鎖)와 진공 가운데서 아무 외원(外援)아 없이도 흘연(屹然)히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발전하여 민주중국의 모형(模型)이 되었으며 쏘베트군대의 대일작전과 배합하여 일제를 구축(驅逐)하고 중국인민을 해방하는 혁명기지(革命基地)로 되었던 것이다。

국민당 장개석 반혁명 집단은 「八·一五」일제 투항후 중국인민의 일치한 지향을 대표하여 체결되었던 정치협상회의결정(政治協商會議決定)과 정전명령(停戰命令)을 파기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전 중국인민의 의사를 배반하여 미제국주의의 군사경제적「원조」밑에 과거十년내전(內戰)보다도 우심한 대규모적 내전을 발동하여 해방구를 포위 진공하며 전중국인민을 또다시 피비린내나는 내전의 참화(慘禍)속에 몰아넣었다。 중국공산당과 그 령도하에 있는 인민해방군은 전 중국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견결(堅決)한 인민해방전쟁을 진행하였으며 전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정책로선을 절대 지지하고 그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어 인민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용감히 분투하였다。 三년여의 인민해방전쟁 기간(人民解放戰爭期間) 중국공산당의 정치군사적 승리와 아울러 중국해방구는 비약적으로 확대 강화되였다。 금년 六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 중국 三十六성중 완전히 해방된 성(省)이 흑룡강(黑龍江)、눈강(嫩江)、합강(合江)、송강(松江)、흥안(興安)、길림(吉林)、료북(遼北)、료녕(遼寧)、안동(安東)、열하(熱河)、차하루(察哈爾)、하북(河北)、하남(河南)、산동(山東)、산서(山西)、안휘(安徽)、강소(江蘇) 등 十七성이요、대부분 해방된 성이 섬서(陝西)、호북(湖北)、절강(浙江)이요、일부분 해방된 성이 수원(綏遠)、녕하(寧夏)、감숙(甘肅)、강서(江西)、복건(福建)、광동(廣東)、운남(雲南)이요、남경(南京)、상해(上海)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一、〇六一개의 도시를 해방하고 二억七、九二七만四천여명의 인구를 옹유한 二、九六二、八〇〇여 평방키로의 면적을 가지게 되었다。

각 해방구에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무기명 투표에 의한 민주선거를 통하여 비교적 통일적인 인민정권이 수립되게 되었다。 一九四六년에 조직되었던 동북행정위원회는 금년 八월 二十六일 동북인민대표자대회를 통하여 고강(高崗)씨를 주석으로 한 동북인민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였었고 一九四八년 八월 화북림시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동필무(董必

武）계를 주석으로 한 화북인민정부가 수립되었었고 금년 三월에 개최되었던 중원（中原）림시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등자회（鄧子恢）씨를 주석으로한 중원인민정부가 수립되었었다。각급 인민정부에서는 토지개혁（土地改革）을 실시하여 농민들은 봉건착취제도 밑에서 해방하였고, 민족자본가들을 단결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군중을 발동하여 전선지원（前線支援）과 건설투쟁（建設鬪爭）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一九四八년 五월 一일 중국인민의 의사를 대변（代辯）하는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하여 인민민주적 련합정부（聯合政府）수립을 제기하였던 것이다。이 제의가 국내 각 민주정당、인민단체、진보인사들의 열렬한 환영 지지를 받아 작년 八월부터 개별적 상담（商談）이 시작되었으며 고도（故都）북평의 평화적 접수（接收）와 남경 상해의 해방등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는 전쟁형세의 발전에 따라 국민당 장개석 반혁명 통치가 급속히 궤멸（潰滅）되고 있으며 새로, 운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할 시기는 성숙（成熟）하여졌다。十개월의 상담을 거쳐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국민당 반동파의 통치를 타도하고 새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강령（綱領）과 실시방법등 근본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이러한 각계 각층 단결의 기초 위에서 지난 六월 十五일 二十三개 단위、一三四명 대표로써 북경에서 새 정치협상회 준비회（準備會）를 결성하고 중국공산당의 지도자이며 중국인민의 령수인 모택동 주석과 국민당 혁명위원회 리제심（李濟深）씨와 무소속 민주인사 곽말약（郭沫若）을 비롯한 二十一명의 상무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주임（主任）으로는 모주석이 피선（被選）되었다。준비회는 상무위원회의 지도 밑에 六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강령의 기초（起草）、중화인민민주공화국정부 조직초안의 작성、국기、국가、국장의 고안등 三개월간의 준비공작을 행하였다。

지난 九월 十七일、준비회는 제二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신 정치협상회의의 명칭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로 고치고 전 중국인민이 갈망하던 인민정치협상회의 제一차 전체회의는 지난 九월 二十一일 六六一명의 대표로써 장엄한 막을 열었다。전국 인민대표자대회의 직권（職權）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모택동씨를 주석으로 받들고 인민민주독재를 실시하는 통일적 중앙정부가 탄생하고 홍지（紅地）에 五성（星）이 찬연한 새 국기를 아세아 대륙에 휘날리었다。이는 중국 력사발전에 있어서 신기원（新紀

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二、급격히 향상되는 중국 해방구의 민주건설

중국 해방구에는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봉건세력과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근본적으로 소탕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관계（生産關係）의 형성（形成）과 아울러 인민정권의 계획적 지도 밑에 생산력（生産力）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기본조건（基本條件）이 구비되었다。그러나 해방구 민주건설에서의 곤난한 점은 적지않다。경제적으로 락후한 농업국가인 것과 장기간 제국주의 국민당 반동통치의 략탈착취（掠奪搾取）와 전쟁중 파손（破損）된 경제적 창상（瘡傷）과 전쟁 환경속에서 건설하는 것등이다。중국공산당은 이러한 주관적 객관적 현실조건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방침에 의하여 건설투쟁（建設鬪爭）을 지도하고 있다。

중국 전 인구의 八〇%를 차지한 농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방구 민주건설의 선결문제이다。

「八・一五」해방 직전 중국공산당 제七차 대회는 벌써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을 봉건적 예속과 착취에서 해방할 것을 제시하였다。一九四六년 「五四」지시에 의하여 토지개혁에 착수하였으며 一九四七년 九월 섬북（陝北）에서 열린 전국토지회의（全國土地會議）에서 제정된 중국토지법대강（中國土地法大綱）에 의하여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토지개혁운동중 빈고농단（貧雇農團）과 농회（農會）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며 빈농과 고농（雇農）에 의거하여 중농과의 동맹을 공고히、하고 지주 봉건세력을 소멸하는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였다。

먼저 농민들은 봉건적 착취로부터 해방되어 농촌경리가 급진적으로 향상되면서 도시공업에 필요한 원료와 로동자들의 식량을 보장함으로써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一九四九년 三월 중국 공산당 제二차 중앙위원회는 공작중심을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전하며 도시가 농촌을 령도할 방침을 세웠다。여기에서 모주석이 제시한 四면八방정책이 나왔다。즉 공사겸고（公私兼顧）、로자량리（勞資兩利）、성향호조（城鄕互助）、내외교류（內外交流）이것이 목전 경제건설의 중방침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에 있어서는 각 해방구의 발전공고（發展鞏固）정도가 상이（相異）한 력사적 지방적 특성（特性）에 비추어 그 지방 실정에 적합하도록 상이한 방법을

채취하고 있다。동북해방구와 화북해방구와 섬감녕(陝甘寧)해방구와 같은 기본적、해방구에서는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공히 하고 농촌의 생산력을 제고하면서 농촌중심으로부터 도시공업생산으로 전환(轉換)하고 있다。화중 해방구와 같은 력사가 짧은 지구에서는 먼저 농촌에 중심을 두고 토지개혁을 철저히 하여 도시공업으로 전환할 전제조건을 준비하는 데 있다。상해(上海)와 같은 새로 해방된 상항(商港)에서는 국영기업을 간소화(簡素化)하고 생산복구에 노력하며 비생산(非生産)적인 인구를 소산(疏散)혹은、생산방면으로 이전시키며、부근의 농촌공작을 전개하고 내지와의 교통련락을 가강하며、절약(節約)운동을 추진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해방구 중에서도 력사가 오래고 민주건설이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된 곳은 항일전쟁시부터 연안변구정부(延安邊區政府)가 지도하던 섬감녕(陝甘寧)해방구이다。

기아(饑餓)와 실업(失業)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적점령구(敵占領區)와 국민당통치구(國民黨統治區)에 대비하여 오직 연안인민정부가 지도한 섬감녕해방구만이 풍의족식(豊衣足食)의 세외도원(世外桃源)이 된 것은 一九四四년에 래방(來訪)하였던 국제기자단(國際記者團)을 통하여 널리 세계에 알려진 것이다。

력사가 비교적 짧고도 전면적 해방이 빨리 된 동북해방구와 화북해방구의 민주건설(建設)의 실적(實績)과 그들의 건설투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민정권의 공고강화

동북해방구의 실정을 보면 중국공산당 동북국(東北局)과 동북 행정위원회의 지도 밑에 二차에 걸친 토지개혁운동을 통하여 기본군중이 발동되고 하부말단(下部末端)인 촌정권(村政權)선거를 실시하여 정권이 인민대중속에 뿌리박게 되었다。흑룡강성(黑龍江省)과 송강성(松江省) 두성의 실례를 들면 三八현시(縣市) 一一八、七〇六명의 촌대표(村代表)중에서 고농(雇農)이 四一·八六%를 점하고 빈농(貧農)이 四一·四五%、중농(中農)이 一四·五七%、기타 혁명계급(革命階級)이 二·二九%이고 四、九〇三명 촌정부위원(村政府委員)중 고농이 三九·七%、빈농이 四一·三五%、중농이 一三·七四%、기타 혁명계급이 五·一%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아 빈농과 고농을 주체로 하고 중농과 단결하는 정책이 정확히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동북 행정위원회는 三년간에 一六〇여만 인민을 인민해방군에 참가하게 하고 군대가족 우대사업(軍隊家族優待事業)을 광범히 전개하며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 인민해방전쟁을 지원(支援)하였고 산업부흥(産業復興)과 인민생활 안정(安定)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지난 八월 二十一일부터 一주일간 심양(瀋陽)에서 三〇三명 대표로 열린 동북인민대표자대회(東北人民代表者大會)에서 정식으로 동북인민정부가 탄생(誕生)되었었다。화북해방구에 있어서는 진기찰 행정위원회(晋察冀行政委員會)와 진기로예(晋冀魯豫) 변구 정부는 과거 항일전쟁시대부터 유격전쟁 환경 속에서도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인민정권의 공고 강화에 노력하여 왔던 것이다。최근 북평 천진을、비롯하여 三만명 이상이 있는 도시에서는 민주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토지개혁의 성과

토지개혁은、수천년래의 지주 부건세력을 뿌리채 소탕하는만큼 일거(一擧)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요、개혁과정중의 과좌(過左)、과우(過右)、편향(偏向)을 시정하며 협생반(夾生飯) — 설 익은 밥 — (주 토지개혁이 잘 못되어 지주세력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을 말함)을 다시 삶는것 등 가장 번잡하고 장기적인 운동이다。각 해방구마다 이 운동의 심입(深入)정도의 차는 있을찌라도 이미 一억五천만 인구를 포함한 해방구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一九四七년 八월분 통계에 의하면 동북해방구에서는 六二九만八二四농호에 五〇、七〇七、五三〇묘(畝)의 토지를 분여하여 매인당 八묘를 가지게 되었고 동년말(同年末)통계에 의하면 화북해방구에서는 빈농 고농의 약 九〇%가 천인구에 비하여 평균수량의 토지를 분여받게 되었으며 六묘로부터 최고 二〇묘까지 가지게 되었다。

동북 행정위원회는 개간(開墾)、수리(水利)、종자개량(種子改良)、농구개선(農具改善)、비료급부(肥料給付)、자금조달(資金調達)등 각방면으로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주고 토지의 주인공이 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고도로 앙양되어 농업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三년간에 확장된 경지면적은 二、一三六、〇〇〇향(一향은 六묘—一〇묘)개간한 수전(水田)이 二〇만향、뜨락또르를 사용하는 농장(農場)이 十七개소이다。一九四八년 一년만 하여도 농업자금을 대부한 것이 一五一억원에 달하고、합강성(合江省)의 곡물수확(穀物收穫)은 년간계획을 十一%나 초과달성하여 八〇만톤(噸)에 도달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로 또 한가지 특기(特記)할 현상은 농민들의 호조방법(互助方法)을 채취하여 로력을 절약하고 그 나머지의 농민들이 점점 공업(工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금년 三월 二十八일 동북일보에 근거하면 료양(遼陽)一현의 농민이 공업에 이전한 것만도 二만五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셋째、약진하는 산업건설

중국 전국의 공업은 그리 발전되지 못하였다。 공업생산의 전 국민경제 (國民經濟) 중의 비중 (比重) 은 다만 一〇〇분의 一〇%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농업과 수공업이 九〇%를 차지하는 만큼 반봉건 반식민지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새 중국의 민주건설에서 농업국을 선진적 공업국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엄중하게 제기되며 여기에서 중국 로동계급이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이다。 모주석은 일찌기 중국 로동계급의 임무를 지시하면서 「중국의 독립、자유、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업화와 농촌 근대화 (農村近代化) 를 위하여서도 투쟁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一九四八년 八월 할빈에서 열린 제六차 전국로동대회 (全國勞動大會) 에는 직업동맹대표 五一八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회는 장개석 반동 통치를 반대하며 해방구의 인민정권 강화와 경제건설 투쟁에서 로동계급이 주동적 역할을 놀 것을 결정하였다。 각 해방지구의 인민정권은 인민해방전쟁의 전면적 승리를 따라서 농촌으로부터 석시공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다。 작년 十二월 二十七일 동북 행정위원회는 「동북 공업기업 전시 림시 로동보험조례 (東北工業企業戰時臨時勞動保險條例)」를 발표하고 八시간 로동제를 실시하였고 각 공장에서는 공장관리위원회와 직공대표회의 (職工代表會議) 가 조직되어 공장관리의 일원화 (一元化) 와 직업동맹 (職業同盟) 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一九四八년 八월 화북공상회의 (華北工商會議) 는 일반적으로 공업세 (工業稅) 는 상업세 (商業稅) 보다 적게 또는 인민수요 (需要) 에 대한 기여 (寄與) 에 따라 징수 (徵收) 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개인기업 (個人企業) 의 발전을 보장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각 해방구의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동북의 공업과 광산실적은 一九四八년에 있어서 一九四七년보다 수배나 초과하였다。 철도는 전 동북에 一一、三〇〇키로나 개통되어 교통운수가 편리하게 되고 제지、고무、세멘트、요업 (窯業) 등 국영 四대공사 소속 六九개 공장중 금년 상반기에 벌써 四十三개소가 복구 개업하였으며 동북 九개 탄광에서는 로력조직의 합리화에 의하여 四、〇〇〇여명이 직접 생산부문에 전입 (轉入) 함으로써 매월 七〇만원을 절약하게 되였다。 무순 (撫順) 탄광은 국민당 통치시대에 매일 四만七천톤을 생산하던 것이 현재에는 一〇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동 (安東) 六개 공업기관은 一九四八년 하반기에 一〇〇만벌의 의복과 四五〇만족의 신발을 생산하여 인민해방군에 제공하였다。 금년 봄 새로 해방

된 산서 (山西)、태원 (太原) 은 五월중순에 벌써 五十三개 공장이 회복되어 로동자 수가 해방전의 一四、七〇〇명으로부터 二一、〇〇〇명까지 증가되었고 발전소는 七〇〇키로왓트로부터 一三、〇〇〇키로왓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각 광산 공장에서의 생산경쟁의 열화 (熱火) 는 더욱 치열하여지고 각종 창의 고안과 로동영웅들이 배출 (輩出) 하여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밖에 작년 十二월 一일부터 각 해방구에 화폐제도 (貨幣制度) 가 확립되었다。 화북 (華北)、북해 (北海) 농민 (農民) 은행이 통일되어 중국인민은행 (中國人民銀行) 이 되고 새 지폐를 발행하여 一대 一〇〇、一대 一、〇〇〇—二、〇〇〇으로 교역 (交易) 함으로 새 낡은 지폐의 정리와 아울러 물가조절、인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동북은 동북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통일되었다。 농촌과 도시의 물자교류 (物資交流) 를 위하여 도처에 성향합작사 (城鄉合作社) 가 조직되었다。 동북 지역만 하여도 五、〇〇〇개의 합작사가 있고 六二七개의 국영상점 (國營商店) 이 개설되어 생활필수품을 공급함으로써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있다。

넷째、교육문화의 향상

경제복구와 산업건설이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서 민주주의 교육문화도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장춘 (長春)、심양 (瀋陽)、해방전 동북 十성에는 중학교수가 一二五、소학교가 一七、七二六、대학이 一〇개로써 一九四七년보다 중학이 二〇개、소학이 九八〇〇개나 증가되고 동북공인정치대학 (東北工人政治大學) 이 신설되어 로동자 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一九四八년말 통계에 의하면 화북에는 중학교가 一〇〇개、소학교가 五七、六七四개나 되며 북방대학、화북련합대학、각 전과대학이 신설되고 반년 동안에 교과서가 一、一七〇만부나 발간되고 출판물이 一〇〇종 이상 간행되고 있다。 그중 산서성 (山西省) 에서는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二년간에 二만명의 고급학교 출신의 간부들을 정권、군대、공장 각 방면에 보냈고 문맹퇴치를 위하여 二、二四〇개의 학급을 신설하고 十三만명을 공부시키고 있다。

문학예술방면에 있어서는 항일전쟁 기간부터 각 해방구 문예협회 (文藝協會) 들이 모주석의 지시한 로동자、농민、병사、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방침을 군중속에 침투시키고 있었으며 동북 문예공작단 (文藝工作團) 이 신인양성 (新人養成) 과 문예의 대중화 (大衆化) 에 많은 공헌이 있다。 농민작가 조수리 (趙樹理) 의 작품을 비롯하여 토지개혁중 「폭풍취우 (暴風驟雨)」 「태양조재상전하상 (太陽照在桑乾河上)」 등 거작들이 발표되었다。

一九四八년 통계에 의하면 화북 기전 (冀晉) 한구역

말하여도 혼극단(□劇團)이 一、三八一개나 된다。

금년 七월 상순 북평에서 열린 전국문학예술인 공작자 대표대회(全國文學藝術人工作者代表大會)는 三十년간의 문예운동의 경험을 총결짓고 인민문예의 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국적 통일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조직한 때 거대한 력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독립자주의 외교정책

중국인민해방전쟁의 전면적 승리를 따라 주요한 연해상항(沿海商港)들이 해방되면서 외국과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각 인민정권은 자수독립적 립장(立場)에서 상해(上海)해관(海關)을 결수하며 천진(天津)에서는 림시 무역조례(臨時貿易條例)를 발표하여 각 상항에서 외국교민(外國僑民)을 보호하는등 공명정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년 四월 三十일 인민해방군 총사령부 리도(李濤)장군의 성명에 의하면「중국인민혁명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와 인민정부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어떠한 위협성(威脅性)을 띈 행동이라도 결코 하기를 원하지 않는바。외국 정부가 만일 우리와 외교관계의 건립을 고려(考慮)한다면 그는 반드시 국민당 잔여세력과 관계를 단절할 것이며、아울러 중국에 있는 그의 무장력량을 철거하여야 할 것이라」라고 하였다。영국군함(英國軍艦)애미시스트호 포행사건(暴行事件)에 대하여 인민정부가 취한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은 외교방침을 중외(中外)에 선시(宣示)한 것이다。

중국인민정부는 언제든지 쏘베트동맹을 비롯한 세계 반제국주의 진영에 립각(立脚)하여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국가들과 친선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작년 七월 三十일 동북인민정부와 쏘베트동맹간에 물자교류에 관한 협정(協定)이 一년을 기한으로 체결된 것은 쏘베트동맹이 중국인민에 대하여 진정한 우의(友誼)를 표시한 것이며 금후 동북의 경제건설상 거대한 방조가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탄생하자 쏘베트동맹을 비롯하여 제 인민민주주의국가 정부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승인하고 외교관계의 결정을 통지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중량국 인민의 더욱 굳은 친선과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조중량국간에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대사를 교환할 것을 결정 통고하였다。

三、민주중국창건의 력사적 의의

중국은 자기 발전에 있어서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면모(面貌)를 내어놓는 위대한 력사적 전변(轉變)기에 놓여있다。오늘날 민주중국의 승리는 二十세기(世紀)중엽(中葉)에 있어서 전세계를 진동(震動)하는 대사건(大事件)이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된 것은 중국인민이 자기발전의 력사상 처음으로 전국적(全國的) 정권(政權)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掌握)하는 것이다。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민주집중적 령도밑에 각계 각층이 더욱 굳게 단결되며 각지구(地區)의 보조가 더욱 일치되며 중국해방전쟁의 최후 승리가 더욱 빨리 실현될 것이며 전국범위내에 민주건설이 더욱 계획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중국인민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더욱 튼튼한 담보가 되는 것이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중국에 있어서 수천년래의 봉건제도의 소탕과 一〇〇여년래의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파탄과 二十二년래의 국민당 지주관료자본통치의 멸망을 전세계에 선고(宣告)하는 것이다。이는 또한 민주중국의 새로운 사회 경제제도가 장기간의 투쟁 과정에서 반봉건 반식민지적 착취관계를 일소하고 락후한 농업중국이 선진공업중국을 향하여 전진(前進)하는 웅자(雄姿)를 전세계 인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민주중국의 승리는 동방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고무추진(鼓舞推進)시키는 것이다。一九四七년 十二월 二十五일 모주석은 자기 보고에서 일찌기 중국에서 일어난 사변의 위대성(偉大性)을 설명하되「이 사변이 四억五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이 사변이 세계의 동방에서 十억이나 되는 인구(인류의 절반을 가진)가 제국주의적 압박을 받고 있는때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이 방어에서 진공으로 전환됨을 따라 여러 피압박민족의 희열(喜悅)과 고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때문이다」라고 확언한 것은 가장 정확한 결론이다。

넷째 쏘베트동맹을 비롯한 세계민주진영의 력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모주석은 그의 저서「인민민주독재에 대하여」속에서「쏘베트동맹과 련합하며、제 인민민주주의국가와 련합하며、기타 각국의、프로레타리아트 및 광대한 인민과 련합하며、국제적 통일전선을 결성할것」을 지적하고 쏘베트동맹을 비롯한 반제국주의 진영에 속하여있는 것을 확언하였다。이러한 민주중국의 승리는 즉 세계인민의 승리이다。

력사상 지리상 중국 해방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민주진영의 튼튼한 일환을 형성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탄생을 충심으로 경축한다。

조중 량국인민들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위대한 쏘련을 위수한 국제 민주력량과 일층 견고히 단결하면서 조중 량국인민간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제국주의 략탈자들과 국내의 반역자들을 반대하는 삼엄한 투쟁을 전개하자!

참고자료

인간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잔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관하여

므·아조브제브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과 위대한 목적은 자본주의의 근절이며,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이 전체계사적 과업을 수행하면서 쏘베트 로동계급은 볼쉐위끼당의 지도밑에서 부르죠아지와 지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자기의·독재를 확립하였으며 모든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재건을 실시하였고 착취계급을 청산하였다.

사회주의적 혁명과 공민전쟁의 불길속에서 지주계급과 제국주의적 대 부르죠아지가 근절되었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촌경리 집단화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에 또한 전면적인 사회주의의 공세가 진행된 결과에 모든 착취적 요소들—자본가들 상인들 및 간상 모리배들이 청산되었으며 동시에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착취계급인 부농들이 청산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의 건설을 흉악하게도 반대하여 나서며 자본주의를 온갖 방법을 다하여 고수하려던 계급들이 청산되었다. 공산당의 령도밑에서 로동계급이 자기의 원수인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전개한 가혹한 계급투쟁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완성케 하였다. 이것은 적대적 계급들에 의한 사회의 분렬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결과에 로동자 및 농민계급과 인테리겐챠의 심각한·변동이 있었었다.

공산주의 제一단계에 있어서의 쏘베트사회의 계급들의 특징을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보고「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동맹 헌법초안에 관하여」에서 주었다。 쓰딸린동지는 지적하기를 이 완전히 새로운 계급들은 일찌기 인류력사가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쏘베트동맹의 로동계급—이는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근절한 계급이며, 생산수단과 도구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한 계급이며, 그리고 공산주의의 길로 쏘베트사회를 지향시키는 계급이다。 쏘베트농민—이는 압도적 다수가 꼴호즈 농민이며 집단적 로동과 현대의 기술에 자기의 사업과 자기 재산의 기초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경리의 기초에는 집단적 로동의 기초위에서 장성한 집단적 소유가 놓여 있다。 끝으로 쏘베트의 인테리겐챠—이는 완전히 새로운 근로 인테리겐챠이며, 로동계급과 농민들과 긴밀히 련결되어 있으며, 인민으로부터 나와 인민에게 복무하며, 쏘베트사회의 동등한 일원이며, 로동자와 농민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계에 기초하여 대중들 가운데는 새롭고 사회주의적인 의식이 장성되었다。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정부가 수행한 거대한 교양사업의 결과로 사람들—쏘베트 애국자들의 새로운 도덕적 면모가 형성되었다。 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부문에 있어 볼쉐위끼당의 정책이 달성한 거대한 성공들을 지적하면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 대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쏘베트동맹 근로자들은 압도적 다수가 계급없는 사회주의사회, 공산주의의 적극적이며 의식적인 건설자이다」

계급구성이 사회주의적으로 되기전에 있어서는 적대적 계급들과 계급투쟁이 계속되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가—계속된다。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계급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상실한 계급들을 착취하며 이 계급들간의 관계는 불상용적인 가혹한 투쟁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이며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착취가 근절되었으며, 착취가 재생할 원천이 근절되었다。 따라서 쏘베트사회에 있어서는 계급적 적개심이 장성될 기초 자체가 청산되었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생산관계의 기초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소유가 놓여 있으니만큼 이 관계는 적개심으로부터 해방된 관계이다。 이것은 쓰딸린동자의 규정에 의하면「착취로부터 해방된 로동자들의 동지적 협동관계이며 사회주의적 상호협조의 관계이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二二페지)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두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즉 하나는 국가적 소유(전 인민적 소유)이며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적—꼴호즈적 소유(개별적 꼴호즈들의 소유, 협동조합 단체들의 소유)이다。 사회적 소유의 이 두개의 형태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쏘베트사회의 계급들간의 다시 말하면 로동계급과 농민들간의 차이

로써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를 지적함에 있어서 이 두 계급의 경제적 기초가 사회주의적 소유이라는 것과 소유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이 계급들의 립장, 성격 및 이데올로기로써 규정지어진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장성과 강화는 로동계급 농민 및 인테리겐챠 간의 관계의 발전도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로동계급과 꼴호즈 농민이 사회적 소유, 사회주의적 소유에 경제적으로 의거하고 있으니만큼 사회주의적 소유의 가일층의 장성과 강화를 보장하는 당과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지향되는 이 계급들의 발전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간격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또는 이 계급들과 인테리겐챠 사이의 간격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쏘베트 사회발전의 특수성과 법칙을 분석하면서 쓰딸린동지는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 대회에서의 결산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자본주의적 사회를 물론하고 그 사회보다 다른 현시, 쏘베트사회의 특점은 쏘베트사회에는 반목 질시하며 적대시하는 계급들이 더는 없으며, 착취계급이 청산되었으며, 쏘베트사회를 구성하는 로동자 농민 및 인테리겐챠가 친목적 합작의 기초 위에서 살며, 일하는 거기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로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농민들과 지주들 사이에 조화할 수 없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파렬되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내부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이때 착취의 기반에서 해방된 쏘베트사회는 이와 같은 모순들을 알지 못하며, 계급적 충돌들이 없으며,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의 친목한 합작의 진상을 보이고 있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一판 五八九페지)

적대적 사회기구보다 쏘베트사회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발전의 동력(動力)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해결하고 있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계급구성이 사회주의적으로 되기 이전에 있어 매사 발전의 동력은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의 적대적 계급 사이의 계급적 투쟁인 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발전의 동력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썩어져가는 자본주의와 탄생되며 있는 공산주의 간의 투쟁이다。(「레닌전집」 二十四권 五〇七페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쓰딸린동지는 제十八차 당대회에서의 결산보고에서 쏘베트사회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의 친목한 합작의 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이와 같은 공통

정의 정초 위에서 쏘베트사회의 도덕적—정치적 통일, 쎄·쎄·쎄·로의 모든 인민들의 친목, 쏘베트 애국주의와 같은 그런 동력도 전개된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五八九페지) 이것은 새로운 동력이며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 특유한 동력인 것이다。

적대적 계급들로의 사회분렬의 근절, 도덕적 및 정치적 통일로써 강화된 사회주의 사회, 다시 말하면 계급들이 친목한 합작의 관계에 있는 사회는 로동계급의 독재의 거대한 쟁취이며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로의 도정에 있어 중요한 단계로 되는 것이다。

로동계급 독재의 과업은 사회주의의 건설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의 건설을 완성하며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더욱 튼튼히 장악하고 있다。 로동계급은 볼쉐위끼당의 령도밑에서 꼴호즈 농민들과 견고하게 동맹하여 쏘베트 인테리겐챠의 적극적 참가밑에서 공산주의로의 쏘베트사회의 운동을 방해하는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을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이는 사회주의적 생산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에 있어서 기초를 가지지 못하는 인간 의식과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특징이며 또한 쏘베트에 있어서는 근절된 낡은 자본주의 제도에서 남은 인간 의식과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어 잔재들은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와 쏘베트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인간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의 존재와 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은 그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낡은 의식의 잔재들을 반대하는 철저하며 견결한 투쟁을 반드시 하여야 할 조건으로써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저서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나?」에서 미래의 사회는 「원만히 발전된 생산력과 인간의 사회주의적 인식과 그들의 사회주의적 교화를 가지게 된다」(「쓰딸린전집」 제一권 三三八페지) 쓰딸린동지는 강조하기를 공산주의의 최고 단계의 원칙 즉 「각자는 그의 능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그의 수요에 의하여」 하는 원칙은 「자본주의의 잔재가 뿌리채 근절될때」(「쓰딸린전집」 제一권 三三七페지) 에라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사회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의 결재는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력사 간략독본」에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사람의 의식은

그의 발전상에 있어서 사람의 경제적 지위보다 떨어지는 것이다。그러므로 비록 경제상에서 자본주의가 벌써 격멸되었을찌라도 사람의 머리속에 있는 부르조아적 견해의 여습은 남아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또한 남아 있을 것이다。이렇게 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포위세력은 열중하여 이 여습을 부활시키며 응원하여 마지않는다는 것을 헤아려야 할 것이니 그 포위 세력을 대치하여 만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三〇七페지)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교양된 쏘베트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잔재를 공산주의로의 쏘베트국가의 점차적 운동의 도정에 있어서 장애물로 보고 있으며 볼쉐위끼당의 령도밑에서 이 잔재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쏘베트사회에는 이 잔재를 지지하는 착취계급들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계급간의 투쟁은 아니다。그러나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아서는 아니될 것이다。즉 이 투쟁은 자본주의 제도의 조건에 의하여 발생된 의식의 잔재를 반대하는 것인바 이 잔재는 사회주의 국가의 위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를 리용할 목적으로 자본주의 제계를 지지하며 소생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은 만일 그들과 일상적이며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당과 로동계급의 사업에 직접적인 해독을 끼치며 이 자본주의의 잔재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즉 이와 같은 실례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인 것이다。사회주의적 소유―이는 쏘베트사회의 경제적 기초이다。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동맹 헌법 제一三一조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의 매개 공민은 쏘베트제도의 신성불가침의 기초와 조국의 부(富)와 위력의 원천이며 모든 근로자들의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원천인 공동적 사회주의적 소유를 보호하고 강화할 의무를 가진다。

공동적 사회주의적 재산을 침해하는 자는 인민의 적이다」

볼쉐위끼당은 사회적 소유를 강화함에 있어서、근로자들에게 사회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계를 교양함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쏘베트 사람들은 사회적 소유의 강화와 발전이 쏘베트 국가의 공산주의로의 앞으로의 운동의 결정적 조건이며、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수준 제고의 결정적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애호하고 있

는 것이며、그의 증가를 위한 로동을 아까와 하지 않는 것이다。그러나 사회적 소유에 대한 소홀한 태도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을 주는 제 사실、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현상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은 쏘베트 사람들의 첫 의무이다。이 투쟁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보호―이것은 쏘베트국가의 기본적 기능의 하나인 것이다。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가 사회주의적 소유의 보호에 부여하고 있는 그 의의에 관하여서는 一九四七년 七월 四일부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 즉「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탈취한데 대한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라는 정령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자본주의의 잔재들은 각종 형태에서 표현되고 있다。기업소들、에 있어서는 설비와 기계에 대한 태공적 관계가 그것이며、원료―자재―전력의 랑비가 그것이며、불성실한 계산이 그것이며、략탈에 도움을 주는 물자 보관 및 기타가 그것이다。기관들에 있어서는 기관들의 정원을 함부로 증원시키며、비법적으로 채용하며、국가 기금을 랑비하는등 기타가 그것이다。

농촌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의 잔재들은 락후한 농민층에 있어 개인 소유적 경향 또는 사회적 로지와 꼴호즈의 재산을 탈취하는 제 사실의 형태에서 표현되고 있다。당과 쏘베트 정부는 이 경향의 본질과 그가 꼴호즈 제도의 발전에 있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분석하였다。一九三九년 五월 二十七일부「꼴호즈들의 사회적 토지를 탈취로부터 보호할 방책들에 관하여」라는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와 쏘베트동맹 인민위원회 회의의 결정과 一九四六년 九월 十九일부「꼴호즈에 있어서 농촌경리 알쩰리 규약의 위반을 근절할데 대한 방책들에 관하여」라는 쏘베트동맹 내각과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결정은 꼴호즈원들을 꼴호즈의 안녕을 파괴하는 자들과의、꼴호즈에 있어서의 간상모리배들과 탐욕분자들과의 결정적 투쟁에로 동원하였다。

이 투쟁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지도적 역활이 표시되었다。로동계급은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실시하면서 락후한 꼴호즈원들의 개인 소유적 경향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며、그를 국가적 제 방책의 체계에 의하여 조직하고 있으며、꼴호즈들의 발전을 사회주의적 형태의 기업소들로써 그를 강화시키는 방면으로 지향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의 승리의 결과로 달성된 이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락후한 꼴호즈원들의 개인 소유

적 경향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적 제도에 충실하며 꼴호즈들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량심적으로 일하는 대다수의 꼴호즈원들의 지지에 의거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전면적인 협동조합화의 시기로부터 二十여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는 꼴호즈들을 강화하여 꼴호즈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부문에 있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꼴호즈농민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이 부단히 장성되였다。 이것은 특히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서와 전후 시기에 있어 명백히 표현되였었다。 꼴호즈농민의 전후의 제 성과、꼴호즈들에서의 사회주의 경쟁의 광범한 전개、꼴호즈원들의 영웅적 로력은 꼴호즈원들의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과의 투쟁에 있어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본주의의 잔재를 반대하는、락후한 꼴호즈원들의 개인 소유적 경향들을 반대하는 투쟁과업이 당면된 과업으로 되고 있다。

쏘베트사람들은 로력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요소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레닌은 「위대한 모범」이란 소책자에서 강조하기를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유산으로서 남긴 불활발、방탕、소부르죠아적 리기주의와 같은 증오할 습성에 대한」(「레닌전집」二十四권 三二九페지) 승리를 의미한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관하여」라는 론문 초안에서 새 규률의 교양을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하나로써 규정지었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들에게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을 교양하는 방면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견결하며 계통적인 사업은 우수한 성과로써 특기되었다。 쏘베트국가에 있어서 로력은 명예로운 일로、영예로운 일로、용감한 일로 되었다。 사회주의적 경쟁의 거대한 범위와 심도(深度)、쏘베트인민의 로력 공훈은 쏘베트주권의 여러해 동안에 로력에 대한 인간의 관점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인 것이다。

쏘베트 인간들의 로력은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과 부(富)의 장성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리익에 끼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직접적인 손실은 아직도 쏘베트인간들의 일부분이 가지는 로력에 대한 낡은 관계의 잔재인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업소、기관、꼴호즈들에서 로력에 대하여 태만적으로 대하는 사람、로동규률의 준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사회에 조그마한 일을 하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긁어 내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레닌은 쓰기를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적인 것을 받

대하는 선진적 기술 로동자들을 리용하는 자발적이며、의식적이며、단합적인 최고의 로동생산성이다」(「레닌전집」제二十四권 三四二페지) 라고 하였다。 로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과의 부단한 견결한 투쟁이 없이는、이 잔재들을 근절함이 없이는、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관계를 교양함이 없이는、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의 풍족을 설정하는 조건인 자본주의와 대비하여 훨씬 높은 로동생산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로동에 대한 낡은 관계의 잔재와의 또는 구체적인 그의 구현자들과의 투쟁을 당의 령도밑에서 도시와 농촌의 의식적인 수백만의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이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조국의 복리에 대한 배려로써 고무된 쏘베트 애국자들이 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쏘베트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의 의식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문학、예술、과학、철학과 같은 이데올로기 분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와의 투쟁인 것이다。

쏘베트동맹에 있어 지배적인 맑쓰―레닌주의의 세계관에 자기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쏘베트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로의 쏘베트사회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는 비상히 유해한 것이다。 이데올로기 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의 존재、부르죠아 영향의 표현은 쏘베트 사람들의 의식을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대적 견해로써 중독케 하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의 의식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과업들의 수행을 방해하며 공산주의로의 쏘베트사회의 점차적 운동을 조애하고 있다。 당은 이데올로기 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을 반대하는、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반대하는 투쟁이 가지는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루차 강조하였다。 전후에 채택된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의 결정들에서도 역시 자본주의의 잔재들이 정치적 무관심과 무사상성으로서、서방 부르죠아 문화앞에서의 아유로서、예술에 있어서의 반인민적 형식주의로서、선진적인 민족적 전통 및 기타에 대한 멸시로서 실증되고 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결정들에서는 이데올로기 부문에 있어서의 일꾼들은 자기의 활동에서 쏘베트 제도의 생활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무사상성과 정치적 무관심은 쏘베트 이데올로기에 적대되는 것이며、쏘베트인민과 쏘베트국가의 리해관계에 유해한

것이다. 쏘베트 문화 활동가들은 쏘베트사람들을 교양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장성되는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며, 쏘베트청년들을 용감성으로, 락천적으로, 조국에 대한 헌신성으로 교양하여야 하며, 쏘베트인민들의 사업의 승리를 확신케 하며,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과의 투쟁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활을 수행한 것은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그·흐·알렉싼드로브의 저서 『서방 철학사』에 대한 토론이며 생물학 제문제에 관한 토론이였다. 철학토론에서 그·흐·알렉싼드로브 저서의 근본적 결함은 객관주의—불가피적으로 부르죠아 철학앞에서의 비굴을 가져 오는—가 폭로되였고 이에 대하여 예리한 비판이 전개되였었다. 철학토론은 리론에 있어서의 당성의 의의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간부들의 주의를 고도로 제고시켰다. 볼쉐위끼적 당성은 부르죠아적 객관주의에 대하여 불상용적으로 적대된다. 아·아·스다노브는 철학토론에서의 자기의 연설에서 철학에 있어서의 당성의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이 당성이 유물론의 기본원칙이라고 하였다. 당성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은 리론적 활동을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성의 원칙은 이데올로기 전선의 일꾼들을 이데올로기 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을 반대하여 부르죠아외국의 적대적 영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위하여 무장시키고 있다.

생물학의 토론에 있어서는 자연에 관한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의 하나인 생물학에 있어서의 반동적 영향이 폭로되였다. 토론은 워이스마니스트—모르가니스트적 반과학적 리론과 같은 과학지식의 장성을 장애하는 과학사업에 있어서의 반동적—이데올로기적 잔재들과의 유물론의 원칙들에 기초한 진정한 과학의 투쟁에 관한 중요한 원칙적 문제가 제기되였다. 쏘베트 학자들—선진적 미추린과학의 대표자들—은 부르죠아적인 반동적 워이스마니즘—모르가니즘을 분쇄하였다. 생물학에 있어서 워이스마니스트—모르가니스트적 경향에 대한 미추린적 경향의 승리는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의 의식적 적용에 립각한 또한 실지와 긴밀히 련결되어 있는 진정한 과학의 승리이였다. 미추린 생물학의 승리는 미추린과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서와 농촌경리의 실험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토론들의 결과는 쏘베트국가에 있어서의 모든 과학적 리론적 사업의 앞으로의 급속

한 운동을 위한 물질적 원칙들의 창조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데올로기 부문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적 영향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역활을 노는 것은 부르죠아적 꼬쓰모포리타니즘을 반대하는 또는 부르죠아 서방문화 앞에서의 아첨을 반대하는 투쟁인 것이다. 꼬쓰모포리타니즘—이는 세계제패를 기도하며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추악한 증오를 배양하는 미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들의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적 무기의 하나인 것이다. 부르죠아적 꼬쓰모포리타니즘은 조국에 대한 무관심, 민족적 허무주의를 전도하면서 인간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있다. 그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도구로 되고 있다. 바로, 이때문에 쏘베트사회는 이데올로기 전선의 몇몇 부문에서 활약한 배반자들—꼬쓰모포리스트들의 극소수의 그루빠에 대하여 증오와 분격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쏘베트애국주의는 절대적으로 부르죠아적 꼬쓰모포리타니즘에 적대된다.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결정된 쏘베트사회의 중요한 동력중의 하나인 쏘베트 애국주의를 배양하는 과업의 수행은 부르죠아적 꼬쓰모포리타니즘을 반대하는 또는 모든 외국적인 것 앞에서의 굴종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는 민족주의의 표현, 모든 인종 및 민족의 동등 사상과의 불합치, 제 인민들과의 친선사상과의 불합치, 대중의 창조적 발기를 구속하며 국가기관들의 사업을 조애하는 관료주의의 표현, 종교적 미신의 잔여, 과학과 과학적 지식에 적대되는 관념론적 견해, 생활양식에 있어서 특히 가정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낡은 의식의 잔재들과도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와의 투쟁은 전체 쏘베트사람들의 공동적 사업인 것이다.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는 설복의 방법으로써 그를 실시하면서 이 투쟁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잔재들이 쏘베트 법률을 위반한데서 표현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적 방법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볼쉐위끼적 비판과 자아비판의 전개인 것이다. 비판과 자아비판의 원조로써 쏘베트사람들은 이런 또는 저런 사업들에서의 결점들을 적발하고 있으며 이 결점들의 시정을 도와주고 있다. 비판과 자아비판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쏘베트 사람들은 쏘베트인민의 전반적 리익에 관한, 쏘베트 조국의 복리에 관한

애국적 고려로써 고무되고 있다. 쓰딸린동지는 지적하기를 볼쉐위끼적 자아비판은 『당성의 배양, 쏘베트주권의 공고, 우리들의 건설의 개선, 우리들의 경제간부들의 강화, 로동계급의 무장』(『당 건설에 관한 레닌과 쓰딸린』 제二권 五一二페지)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쏘베트사회에 있어서 비판과 자아비판은 볼쉐위끼당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고 있다.

쏘베트국가 사람들의 비사회적 행위의 뒤에는 항상 이 사람의 의식속에 낡은 잔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르죠아제도에 의하여 탄생된 의식의 잔재들이 숨어 있는 것이다. 비판과 자아비판은 쏘베트사회에 적대되는 낡은 의식과의 련결을 적발하여야 하며 낡은 잔재들을 폭로하고 그들과 투쟁하여야 한다.

비판과 자아비판—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 특유한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위하는 투쟁형태이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五차 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 정치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낡은 것과 새것과의 투쟁, 죽어가는 것과 살아나는 것과의 투쟁—바로 이것이 우리 발전의 기초이다. 볼쉐위끼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인 우리 사업에서의 손실 및 파오들을 로골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지적하며 적발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은 앞으로 전진할, 자기의 길을 막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바로 이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전진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들은 자기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써 공정하며 혁명적인 자기비판을 반드시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앞으로의 전진이 없다. 이것 없이는 발전이 없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쏘베트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되었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결점들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수단이며, 인간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의 낡은 잔재들을 해부하는 수단이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도덕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수단이다.

인간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은 부르죠아국가들에 의하여 쏘베트동맹이 포위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 간의 대립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쏘베트국가는, 근로자들의—로동자들과 농민들의—국가이며, 동시에 부르죠아국가는 착취자들의 국가이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는 착취계급들이 청산되었고 사회주의가 건설되었고 쏘베트사회의 도덕적—정치적 통일이 달성되었으니만큼 쏘베트동맹을 위한 계급투쟁의 모든 예리한 점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개의 체계의 경쟁이 진행

되고 있는 국제 무대에로 지금 이동하였다.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착취계급들이 청산된후 국제 부르죠아지들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 자기의 투쟁을 위한 지주(支柱)를 쏘베트동맹에서 상실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 미제국주의자들은 쏘베트사람들의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 특히 부르죠아적 꼬쓰모포리타니슴의 잔재와 짜리로씨야의 유산인 서방 부르죠아 문명앞에서의 굴종을 자기의 목적들에 리용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외국간첩들의 앞잡이들은 쏘베트 인테리겐챠들 가운데서 모든 외국적인것 앞에서의 병적인 굴종 및 아부로써 감염된 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쉽게 외국간첩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직 끝까지 뿌리채 근절되지 않은 부르죠아적 잔재들, 습관들, 전통들을 반대하는 투쟁,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선전되었고 어느 정도 쏘베트동맹에 들어온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투쟁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로의 쏘베트인민들의 전진을 장애하고 있는 부르죠아 견해들의 잔재들을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것은 외국의 계급적 원쑤들이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에 리용하려고 하고 있는 쏘베트에 있어서는 근절된 자본주의 제도의 유산을 반대하는 투쟁이다.

볼쉐위끼적 경각심을 준수하며 인간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들을 반대하여 싸우며 공산당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결정적이며 견결하게 싸우는것—이것이 쏘베트사람들의 첫자리의 과업이다.— 쏘베트국가가, 사회주의의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의, 과업을 해결하고 있는 이때에 공산주의의 의식의 교양과 의식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잔재의 극복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잔재들의 극복은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적 교양의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서의 쏘베트 사람들의 매개 걸음, 이 분야에서의 매개 성공은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쏘베트 국가의 력량을 가일층 강화시키며 앞으로 공산주의로의 쏘베트인민들의 전진템포를 촉진시킬 것이다.

(『볼쉐위끄』지 一九四九년 제十二호에서)

자금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것은 인민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쁘·흐로모브

사회주의적 경제를 더 한층 발전시키며 쏘베트국가의, 국력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과업은 국가의 모든 자원(資源) 특히 국가의 고정자금(固定資金)과 류통자금(流通資金)을 가장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쓰크바와 모쓰크바주(州)의 一〇三개소의 기업소 집단들은 五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발기인(發起人)으로 나섰다. 一九四九년 一월 二十六일에 발표된 쓰딸린동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집단들은 一九四九년에 자금 회전률을 빠르게 함으로써 四억루블을 절약할 서약(誓約)을 하였다. 이 애국적 기획은 수도(首都)와 모쓰크바주의 모든 기업체들로부터 광범한 호응(呼應)을 받았다. 얼마 안되어 一九四九년 三월 四—五일에 모쓰크바와 모쓰크바주의 공업일꾼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기업체에 있는 가능성과 예비(豫備)를 타산한 다음 회의 참가자들은 三월 九일에 발표된 쓰딸린동지에 대한 서한에서 국가를 위하여 一九四九년에 모쓰크바의 공업 전체에 걸쳐서 十三억루블을 절약할 서약을 하였다. 모쓰크바 사람들의 발기(發起)는 쏘베트동맹 전체의 공업 및 운수(運輸)일꾼들에 의하여 재빨리 호응되었다. 모쓰크바의 공업일꾼들의 호소에 대한 대답으로 끼예브에 있는 二十六개소의 기업체들은 一九四九년에 二、三〇〇만루블을 자금에서 절약하며 자뽀로지예의 기업체 집단들은 二、九〇〇만루블 이상을, 첼랴빈쓰끄와 첼랴빈쓰끄주의 二十四개소의 기업체 집단들은 一억二、五〇〇만루블을 절약할 것을 서약하였다. 오르쓰끼·곰비나뜨(綜合企業體)는 금년에 二、〇〇〇만누블을, 레닌그라드의 끼로브공장은 一、二〇〇만루블을, 그룩호브 섬유(纖維) 곰비나

뜨는 四〇〇만루블을 절약할 것을 과업으로 내세웠다.

자금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것은 자금건설(資金建設)을 위한 사회—문화정책의 재정(財政)을 위한 축적(蓄積)을 증가시킴에 있어서의 예비로 되며 또한 쏘베트 루블의 장래의 공고화와 세입(歲入)의 적시수입(適時收入)의 보충적인 전제조건을 만들어낸다. 공업기업체들은 자체자금(自體資金)과 차입자금(借入資金)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면서 일생산품, 단위(一生産品單位)에 대한 전체 공장적 및 직장적(職場的) 지출(支出)을 감소시킴으로써 또한 크레지뜨에 대한 리자(利子)의 지출 예비물자의 보관에 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품 원가(生産品.原價)를 저하시킨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은 계획 이상의 축적을 위한 애국적 운동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고 있다. 一九四九년도의 국가예산에서는 쏘베트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一九四八년도의 표준에 대하여 三% 빠르게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장래의 생산 확대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풀려나올 것이다.

× × ×

생산수단은 생산의 사회적 형태와는 관계없이 항상 로동의 대상(對象)과 로동의 요구(要具)로써 구성되고 있다. 로동의 요구—건물, 기대(機台), 기계(機械)—는 그 기능(機能)이 계속되는 전 기간에 걸쳐서 사용형태(使用形態)를 보지(保持)한다. 이에 반하여 원료, 연료(燃料), 는 생산과정에서 사용형태를 상실한다. 어떤 물질적 요소(物質的要素)는 생산품을 만들때 완전히 소모되고 다른 물질적 요소는 부분적으로 소모된다. 생산품을 형성(形成)할때에 있어서의 물질적 요소의 이러한 각이한 역할은 온갖 생산방법에 고유(固有)하다. 그러나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방법 하에 있어서만 로동요구이나 로동대상이나 할것 없이 자본으로 된다」(칼·맑쓰「자본론」제二권 一三八페지 一九三八년판)

생산수단을 고정자본과 류통자본으로 나누는 것은 로동요구와 로동대상의 류통의 차이에서 기인(起因)되는 것이며, 고정자본과 류통자본이 자기의 가치를 제조되는 생산품에 옮겨놓는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고정자본과 류통자본의 형태의 차이는 오직 생산 과정에서 작용하는 자본의 가치 또는 생산자본의 류통의 차이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이 류통의 차이는 이번에는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자기의 가치를 생산품에 옮겨놓는 고 방법의 차

이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생산품의 가치를 ·생산할 때 이 구성부분들이 참가함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것도 아니요, 또는 가치증식(增殖)과정에 있어서 이 구성부분들이 노는 역할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것도 아니다」(동서 一四二페지)

자본주의의 제 조건 하에서는 고정자본과 류통자본은 자본으로써, 로동계급의 착취도구로써 행동한다。 자본의 회전을 빠르게 하도록 자본가를 충동시키는 기본적인 동기로 되는 것은 리윤(利潤)과 경쟁(競爭)에 대한 추궁(追窮)인 것이다。 자본의 회전을 빠르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적인 결과는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强化)이다。

자본주의의 제 조건 하에서는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 투쟁의 조건 하에서는 거대한 량(量)의 상품이 함부로 랑비되는 반면에 기업소들에서는 원료, 연료, 재료등등의 필요 이상의 저장품이 연기에 고슬려 쌓여 있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원료지대의 지역적 분렬(원료의 가공지와 그 소비지 간의 분렬)도 바로 이 방향에 작용을 한다。 자본의 회전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기구의 가장 날카로운 모순의 조건 하에서 경과한다。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의 영향은 특히 위기시기에 날카롭게 나타난다。 위기시기에는 수백만 근로자 대중들이 직업을 잃고 굶주리고 있는 반면에 거대한 량의 상품이 창고 속에 사장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제 조건 하에서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에 의하여, 야기된 물화(物化)되고·산(生)로동의 랑비를 특징지으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질서와 혼란으로 말미암아 현재 그 얼마나 막대한 량의 로력이 쓸데없이 소비되는 것인가! 시장의 요구도 모르게 수백명의 매점인(買占人)과 전매인(轉賣人)을 거쳐서 원료가 공장주에게로 넘어감에 있어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없어지는 것인가! 시간뿐만이 아니다。 또한 생산품 자체도 분실되고 손상된다。 그리고 물건 사는 사람의 수요(需要)도 역시 알 수 없으며 대중에게 쓸데 없이 왔다 갔다하게 하고, 쓸데 없는 물건을 사게하고, 쓸데 없는 려행을 하게 하는등의 무수한 소중개인(小仲介人)을 거쳐서 생산품을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로력이 상실되는 것일까! 자본은 로동자에 대한 더 한층의 압박을 위하여, 자기의 리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 내에서 로력을 조직하고 정리한다。 그런데 모든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는 축적된 부(富)는 구매인(購

買人)을 발견치 못하고 수백만 로동자들은 일을 찾지 못하여 곤난에 빠지고 굶주리게 되는 공황에 이끄는 혼란이 남으며 장성한다」(전집 제二○간 一三五페지 四판)

사회주의 공업의 고정자금과 류통자금의 사회적—경제적 성질은 근본적,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의 조건 하에서의 고정자본 및 류통자본과 다르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고정자금과 류통자금은 자본이 아니다。 왜냐 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쏘베트동맹에서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 계획적 경제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와 공황과 경쟁을 제외하며,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擴大再生産)의 끊임 없는 진행을 보장하며,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물질적 수단의 순환을 빠르게 한다。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 자금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적인 동기로 되는 것은 쏘베트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에로 향하여 가는 쏘베트인민의 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자원을 가장 완전히 리용하고자 하는 대중의 지향인 것이다。 쏘베트동맹에서 자금의 회전을 빠르게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는 축적을 위한 자원의 증대이며, 생산고(生産高)의 증대이며, 근로자들의 복리상태(福利狀態)의 개선인 것이다。 쏘베트동맹에서는 생산수단은 자본이 아니고 사회적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은 이 생산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혈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자원의 리용을 개선하며 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모쓰크바 사람들의 발기에 의하여 쏘베트동맹 전체에 전개되고 있는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애국적 운동이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쏘베트사회주의의 공업에 있어서의 자금은 고정자금과 류통자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왜냐 하면 생산에 있어서 즉 생산품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그 역할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례를 들면 원료와 연료는 매개의 생산순환이 끝나면 부활하게 되는데 이에 반하여 고정자금은 많은 작업주기(作業周期)를 거쳐서 비로소 기능을 다하며 부활한다。

독립채산의 기업체들은 생산계획에 적응시켜 류통자금의 일정한 액(額)이 부여된다。 기업체들은 이 기업체들에게 부여된 류통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완전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 류통자금의 액수는 우선 생산의 규모, 생산행위의 기간, 원료, 연료, 보조재료등등의 수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업류통자금은 예산액과 공업자체에 있어서의 축적을 고려하여 부여된다.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 계획에 있어서의 국가 경제단체의 추가 류동자금은 백억七천만루블이였고 이에 대한 리윤은 六四억루블이 계상(計上)되였다.

류통자금을 지변(支辨)하는 원천은 여러가지가 있다. 쏘베트동맹의 공업에 있어서의 자체 류통자금은 一九三九년 一월 一일 현재로 공업 전체 류통자금이 四二·六%, 은행 차입자금이 三六·八%, 크레지뜨에 의한 자금이 二○·六%이였다. 파업은 공업 류통자금—자체 류통자금이나, 차입 류통자금이나 할 것 없이—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데 있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인민경제적 의의는 이 자금의 규모의 개념을 준다. 위대한 조국전쟁전의 국가 경제단체의 류통자금은 一천억루블을 초과하였다. 이 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한 결과는 전체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잉여생산품의 생산고에 비등하다. 물질적 수단의 회전기간이 빠르면 빠를쑤록 보다 많은 자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류통자금 一루블에 대한 생산품을 보다 많이 기업체들이 생산할 것이다. 례를 들면 만일 매개의 공업기업소가 하루만 자금의 회전을 빠르게 한다면 모쓰크바의 공업은 二억루블을 절약할 수 있으며 쏘베트동맹 전체 공업에 있어서는 十억루블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인민경제가 장성하면 할쑤록 생산고가, 따라서 류통자금의 규모가 증대되며 이에 의하여 류통자금의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절실하게 된다.

공업 및 운수사업의 발전과 개량정도에 따라서, 그 기술적 근거의 완성과 생산조직의 개선 정도에 따라서 류통자금의 회전률도 장성하였다. 례를 들면 一九二七—一九二八년 一년간에 동맹의 공업기업소들에 있어서의 회전률은 一·二五회, 一九二八—一九二九년에는 一·三五회, 一九三○년에는 二·八회이였다. 전(前)중공업 인민위원부의 류통자금은 一九三三년에는 一○八일만에, 一九三四년에는 一○一·四일만에 회전하였다. 六·六일간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함으로써 三억四천二백만루블이나 절약하였다. 조국전쟁 전야의 류통자금의 회전률은 더 한층 빨라졌다. 전쟁시기에 많은 공업부문의 기업체들은 흐름(流)작업의 방법을 광범히 채택하고 한 생산 순환의 기간을 단축하여 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전후시기에 있어서 공업기업소들의 로동자 사무원 집단들은 전후 五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을 하면서 볼쉐위끼당 지도 밑에서 생산에 있어서의 국내의 자원을 동원하며, 계획 이상의 축적을 증식시키며,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

게 하고 있다.

一九四八년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자기의 자금의 회전률을 평장히 빠르게 하였다. 까가노위취 제一국영 베아링공장은 자금의 회전률을 一七七일에서 一四二일로 단축함으로써 류통자금 一루블에 대하여 계획에 의한 二루블七끄뻬크생산 대신에 二루블五十八끄뻬크의 생산을 하였다. 이리하여 류통자금중 一,九九○만루블을 절약하였다. 一九四九년에 이 공장은 一회전을 一二八일간에 할것을 예정하고 있다. 「깔리브르」공장에 있어서는 자금 회전률은 一九四八년에 계획에 의한 一四八일에 대하여 一二二일로 되었다. 쓰딸린동지에게 보내는 공장 종업원들의 서한에는 자금 회전률을 九九일간으로, 즉 二十三일간을 단축한다는 서약을 하였다. 쓰딸린자동차공장에서의 자금 회전률은 一九四七년에 一四一·五일이던 것이 一九四八년에는 一一五일로 되었다. 끌로헨쯔끄의 꾸이비쉐브 기관차제작공장에 있어서의 자금 회전률은 전쟁전인 一九四○년의 一六四일로부터 一九四八년에 있어서는 一五三일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모쓰크바에 있는 일련의 기업체들의 자금 회전률은 一九四八년에 와서 계획보다 떨어졌다. 즉 三十개소의 육류(肉類), 유제품(乳製品)공업의 기업소들에서는 자금 회전률이 二十三일간 떨어졌으며 十四개소의 화학(化學)공업의 기업소들에서는 十일간 떨어졌다.

쏘베트 인민경제의 장래 성과를 위한 투쟁은 경제전설의 각부문에 있어서 작업의 질(質)의 계통적인 개선 특히 류통자금의 운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 ×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류통자금은 기업소의 창고나 로천(露天)에 놓여 있는 직접 생산 과정에 있는(미완성 생산)물자, 원료, 연료, 재료등의 생산예비의 형태로 또는 완성품 그리고 이 산품이라던가 재료품의 회전 과정에 필요한 일정한 액수의 금전의 형태로 구성된다.

례를 들면 一九三八년도의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류통자금은 다음과 같이 활당되었다. 즉 창고나 로천에 있는 생산예비에 三三·四%, 미완성 생산과 반제품(半製品)에 一六%, 차기(次期)지출에 一% 활당되었으며 창고나 로천에 있는 상품과 완성품에 三五·五%, 짐풀은 상품에 一三·八%, 기타에 ○·三% 활당되었다.

생산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류통자금의 구성과 그의 각 요소의 역할은 여러가지이다. 대부분의 공업부문들에 있어서의 원료, 연료, 기본재료, 보조재료등의 생산예비는 막대하다. 일련의 부문들에

있어서의 미완성 생산의 비률은 높다。 특히 一생산순환의 기간이 유달리 긴 부문과 기업체들에 있어서의 미완성 생산의 범위가 크다。 류통자금의 구성에 적응시켜 그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방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즉 직접 미완성 생산을 적게 하는 一생산순환의 단축、 그리고 원료、 연료、 재료 등의 생산예비의 형태로 있는 류통자금의 회전률의 촉진 및 그 지출의 절약 또한 창고나 로천에 있는 완성품의 저장을 적게 하는 완성품 판매의 촉진 등에 의해서 규정된다。

모쓰크바와 모쓰크바주의 一〇三개소의 공장 제조소의 지도자들은 一九四九년 一월 二十六일에 발표된 쓰딸린동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류통자금의 매(每) 루블에 대한 생산고의 증대의 방법과 수단은 우리에게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一생산순환을 단축시키는 것이니——이것은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생산순환을 현저히 단축시키기 위한 실제적 방책을 작성하였으며 이미 그것을 실현하면서 있습니다。 이 방책들은 생산성이 높은 공정(工程)을 정착(定着)시키며 흐름장치(裝置)와 콘베야장치(傳送裝置)를 광범히 적용하며 로력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쏘베트동맹 기업소들에서는 또한 조직에 있어서의 엄격한 질서와 물자보급의 계획화를 가져오게 하며 창고경리의 정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자지출에 있어서 새로운 보다 가혹한 표준이 작성되었습니다。 비생산적인 손실을 적게 하여 또한 모든 점에 있어서 즉 제 원료、 금속재료、 전력(電力)、 연료、 보조재료 등의 엄중한 절약정책을 준수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제품(製品)의 적시 판매(適時販賣)와 모든 제품을 기업소로부터 소비자들에게 급속히 발송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생산에 원료 및 재료를 인입한 때부터 제품이 나올 때 까지의 시간을 포괄하는 一생산순환을 단축한다는 것은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생산시간을 단축하는 주요한 수단은 보통 공업의 진보라고 불리우는 로동생산성의 제고이다」(칼·맑쓰 「자본론」 제三권 六四페지 一九三八년판) 사회주의 공업은 로동생산성이 장성하는 속도가 높다는 것으로써 특징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공업은 생산시간을 단축하는 면에 있어서도 거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의 기계화、 기계구조와 공정의 개선에 의하여 쏘베트공업의 기술적 수준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생산순환을 단축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술과 생산공정의 변화는 미완성 생산에 차지되어 있는 류통자금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생산 및 운수 과정에 있어서의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빠르게 하는 방법과 보다 확실한 자료와 공구(工具)의 적용은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용광로 직장、 마르친용광로 직장、 압연(壓延)직장의 광범한 기계화와 그리고 광석의 채굴 및 제련、 석탄채굴의 기계화 특히 석탄을 쌓아 올리는 과정의 기계화가 필요하며 니탄(泥炭)을 채굴하여 건조(乾燥)시키고 그것을 걷어 들이는 작업、 짐 싣고 짐 부리는 작업 및 건축재 생산의 기계화、 제재(製材) 부문、 건축부문 및 공업의 기타 부문의 기계화가 필요하다。 특히 모든 생산 과정과 보조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계화가 필요하다。 기계화와 아울러 새로운 공정과 그리고 생산을 강화하고 빠르게 하며 값싸게 들게 하는 생산방법들도 중요한 역할을 논다。 모쓰크바 제一호 자동차조립공장에 있어서는 一九四八년 하반기에 있어서 주로 로력작업의 새로운 공정과 기계화의 덕택으로、 二七五건의 조직적 기술적 방책을 생산에 정착시키는 등등의 덕택으로 자금 회전률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끄라쓰늬이·프로레타리」 공장에서는 진보적 기술을 정착한 결과로 류통자금의 회전률이 현저하게 장성하였다。 뽈로멘쓰끄의 꾸이븨쎄브의 이름을 가진 기관차공장에 있어서의 조직적—기술적 방책의 실현은 기관차의 一생산순환을 二九%、 관류(管類) 생산순환을 二〇%、 기계 생산순환을 二七% 단축시키게 하였다。

뜨락또르의 세부(細部)의 거의 반수(半數)를 고주파전류(高周波電流)에 의한 경화(硬化)에로의 이행、 까스용접의 광범한 적용、 압력에 의한 주조(鑄造) 등은 레닌그라드의 끼로브공장으로 하여금 一九四八년과 비교하여 一생산순환을 뜨락또르에 있어서 二五%、 기타 기계에 있어서 一〇—一五% 단축시키게 하였다。 「끄라쓰노예·쏘르모보」 공장에서 광범한 기계화를 실현한 결과 선박건조(船舶建造)의 一생산순환을 현저히 단축시키게 하였다。 알라빠예프 야금공장에서 실시된 기계화된 광석용제(溶劑) 혼합、 압연 공장에서의 제二고랑 기중기의 설치、 경사전도(傾斜顚倒)의 기계화 및 기타의 방책은 一생산순환을 六일간 단축시키게 하였으며 자금회전 중에서 二五〇만루블을 절약케 하였다。

쓰따하노브운동은 설비의 최대한의 운용과 새로

운 기술 및 공정의 정착, 생산조직의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기업에 있어서의 생산순환을 단축케 하고 있다. 다수의 쓰따하노브운동자는 류통자금의 최선의 운용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원료, 연료의 절약과 이 절약에 의한 잉여생산고를 내기에 여러가지 방책을 취하고 있다. 마그니뜨고르쓰끄·꼼비나뜨의 마르친용광로직장의 직장장 끄르차긴동지는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경쟁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르친용광로 일군들의 수중에는 류통자금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한 많은 예비가 있다. 이 예비중에서 용광기간의 단축을 례로 들면 충분하다. 우리가 강철을 보다 속히 끓이면 끓일수록 류통자금의 회전률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 과업을 해결함으로써 또한 강철 한톤에 드는 용제 탈산제(脫酸劑), 내화련와(耐火煉瓦)의 지출을 감축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흐름작업의 정착은 생산순환을 단축시키며 자금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방책인 것이다. 쏘베트공업 그리고 특히 기계제작은 흐름작업 방법을 적용하며 제품생산 시간을 단축시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모쓰크바에 있는 「깔리브르」 공장에서는 흐름작업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고 진보적 공정을 정착시킨 결과 미크로메토르 제작 직장과 장각(長脚) 콤파스 제작 공장에 있어서의 一생산순환의 기간을 몇배나 단축시키게 하였다. 진보적인 기업소들은 보다 개선된 흐름작업 방법을 정착시키고 있다. 쓰딸린 자동차공장에서는 여러 직장에서 주(主)콘베야로 향하는 직통 흐름장치가 창설되어 많은 제품을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놓고 운반해 가는 것을 단축하여 생산순환을 단축케 하였다. 생산순환의 단축은 직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이 없게끔 하는 그리고 비전원(非全員) 작업이 없게끔 하는 완강한 투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생산순환이 단축되고 있는 기업소들은 필연적으로 미완성 생산의 잔여(殘餘)도 저하시키고 있다. 쓰딸린자동차공장에서는 一九四七년도의 자금회전률은 一四一·五일로 되었었는데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一五일로 되었다. 미완성 생산의 잔여는 一九四七년에 三四·八일분에 해당하는 예비를 이루었으며, 一九四八년에는 三〇·二일분에 해당하는 예비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완성 생산의 규모는 또한 개개의 요소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표준에 이 규모가 적응하고 있느냐 없느냐에도 의존한다. 아주 흔히 미완성 생산은 기술적—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표준적인 규모에까지 미완성 생산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류통자금의 회전을 빠르게 하는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업체들의 기술적—경제적 제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표준적인 규모에까지 미완성 생산을 적게 할 목적을 가지고 진보적인 공장 제조소들은 미완성 생산의 표준을 재검토하였으며, 생산에 있어서의 물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그라프를 작성하였으며, 매개 직장과 작업장에 걸쳐서 미완성 생산의 잔여의 표준을 작성하고 있다. 미완성 생산이 전체 류통자금의 四〇%까지 달하고 있는 기계제작공장들에서 볼 수 있는 산품의 미완성 생산의 규모를 저하시킬 것이 특히 중요하다. 례를 들면 「깔리브르」 공장에서는 一九四九년 一월 一일 현재로 미완성 생산이 공장의 전체 류통자금의 四二%나 되었으며, 재료저장이 二〇%, 완성품이 一〇·九八%나 되는 등등이었다.

생산 권내(圈內)에 있는 류통자금의 구성중에서 막대한 역할을 노는 것은 원료, 재료 및 연료이다. 자금의 회전 시간은 비단 생산순환의 기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류통자금이 생산 예비품의 형태로 있는 시간에도 달려있다.

생산의 련속성은 원료, 재료 등등의 적당한 수량과 루락없는 저장을 요구한다. 각 공업 기업체들에 있어서의 원료, 연료, 재료, 반제품 및 (완성품의 저장의 표준은 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저장의 절대적 및 상대적 수량은 류동물(流通物)(금속, 석탄, 솜 등등)의 개개의 요소로 볼때 여러가지로 다르다. 그리고 개개의 공업부문으로 볼때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다르다. 례를 들면 제二차 五개년계획 당시에 있어서는 생산예비품은 류통자금에 대하여 야금이 三六·六%, 석탄공업이 三四%, 기계제작이 二八%, 제지공업이 六四%, 석냥공업이 五五·二%를 이루고 있었다.

개개의 기업소들에서 기술적—경제적 필요성에 전혀 타당치않고 대량의 재료의 사장(死藏), 류통자금의 회전률의 정체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정도의 원료 재료의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다수의 기업소들에 있어서는 재료의 저장이 계획에 의한 재료의 수十퍼센트를 초과하고 있다. 레닌그라드의 끼로브 『엘렉뜨로씰라』 공장에서는 二년간이나 베니야판이 저장되고 있다. 모쓰크바의 내부 연마기(硏磨機) 공장에서는 상품과 재료가 계획표준의 五〇—七〇%를 초과하였다. 터무니없는 저장이 형성되는 원인의 하나는 약간의 경우에 있어서 공업기업소들의 보급기관의 똑똑한 활동이 부족한 그것이다.

一九四九년 三월에 개최된 류통자금의 회전을 빠르게 하자는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일꾼들의 회의에서 뜨록고르나야·마누확뚜라·꼼비나뜨의 지배인 째웨리야노와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

쟁시기에 공장들의 보급부는 공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재료가 생산에 어느때 리용되는가 하는 것은 고려하지않고 무엇이든지 잡아 사들였다. 공장들의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수요에 대한 고려도 없이 덮어놓고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개별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로 우리한테는 一년 또는 二년간이나 재료를 저장하고 있다. 례를 들면 현재 우리는 二九만四천루블의 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솜의 섬유가 길어서 우리에게는 적당치않다. 이 솜은 一九四五년부터 우리 창고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다른 공장에서 틀림없이 필요할 것이다!」

표준 이상의 저장이 있다는 것은 류통자금의 회전기간을 연장시킨다. 저장량을 높이는 사실과 결정적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다수의 공장에서는 생산예비품 저장을 약간 감소시키는데 도달하였다. 이 결과로 류통자금의 회전률은 빠르게 되었다. 례를 들면 꾸이비쩨브 기관차제조공장에서의 류통자금의 회전률은 기본적 자료에 의하면, 一九四〇년에 一〇〇일, 一九四八년에는 七十五일이였다. 상품과 재료를 실지적 필요에 따라서 저장하기 위하여 이 공장에서는 매개 창고에 있어서의 극한(極限)을 결정하였으며 보급조직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히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함에 있어서 보급과 판매 일꾼들의 물질적 리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이 작성되었다.

생산불합격품의 근절, 생산품의 류별(類別)과 품절에 관한 계획의 엄격한 실천, 원료, 연료, 재료, 금전사용의 절약도 또한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 재료와 기술 보급의 개선은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경쟁에 참가한 진보적 기업소들은 물자를 그 종류와 질에 따라 최소 최대의 표준을 작성함으로써 재로보급과 계획화에 있어서 엄중한 질서를 실시하여 재료를 창고에서 생산에 내어주는 극한을 설정하며 재료를 창고에 넣어 두는데 또한 창고에 있어서의 계량(計量) 경리를 질서있게 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소들에서 원방으로부터 원료, 재료, 연료등을 받기 때문에 상품의 류통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종류의 실천을 없애야 한다. 례를 들면 자뽀로지예에 있는 「꼼무나르」 공장은 마그니뜨고르쓰끄로부터 구형철(溝形鐵)을 접수하고 있는데 (비록 이 구형철을 돈바쓰에 있는 표룬제의 이름을 가진 끄조만칠공장이 내주고 있다 할찌라도) 이것은 十八일 내지 二十일간이나 송달을 지연시키며 생산품의 가격을 현저히 올리고 있다.

창고나 로천 등에 있는 제품은 류통자금의 구성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 과정에 창고에 들어 있는 완성품의 계획 이상의 잔여를 없이하는 데에, 차금(借金)을 없이하는 데에, 그리고 서류를 제시대로 적시에 작성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은 기업소들의 채권 채무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것과 금전에 관한 증서들을 제때에 작성할 것과 현행계산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각종의 계산사무 과정에 파묻히고 있는 자금의 액수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은 비록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도 그것을 표시하나니, 즉 옴쓰끄에 있는 一〇〇개소의 기업소에 있어서의 채무가 七,〇〇〇만루블이며 채권(債權)이 개산(概算)에만 의해서도 一억루블로 계산되는데 이 기업소들은 대부금 상환의 기한경과로 인한 연체료를 국립은행에 三〇〇만루블 이상을 지불하였다. 대외적인 서류 순환을 정리함으로써 회전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례를 들면 모쓰크바지구와 쓰딸린주에 있는 기업소들이 一일간만 서류순환을 빠르게 하면 약六〇〇만루블을 절약한 것으로 계산된다.

자금회전률을 빠르게 함에 있어서 운수(運輸)가 중요한 역할을 놀지않으면 안된다. 약간 경우에 있어서의 운수의 불충분한 공작(제대 제때에 화차를 공급치 않는것, 상품송달 기한을 위반하는 것)은 운수에 있어서의 자금회전률을 지연시킬뿐 아니라 공업에 있어서의 자금회전률도 지연시킨다. 례를 들면 「체렘호부꼴리」 뜨레스뜨와 「끼로부꼴리」 뜨레스뜨의 탄광의 석탄테미에는 다량의 석탄이 쌓여있어 이 뜨레스뜨들의 자금의 회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진보적인 기업소들은 현재 쓰고 남은, 그리고 아직 팔리지않는 물건들을 골라내서 그것들을 판매할 방책을 취하고 있으며, 산품들을 계획적인 류별(類別)과 계약에 적응시켜 구매자들에게 적시에 짐을 풀어 놓아 주도록 보장하며, 우수한 질의 산품생산을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일련의 기업소들에서는 판매부와 보급부를 독립채산제로 이행시키고 있다. 어떤 기업소들에서는 판매부의 일꾼들에게 산품판매의 계획 이상의 완수에 대하여 제품잔고를 저하시킨 데 대하여 프레미암을 지불하고 있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과업은 쏘베트 공업뿐 아니라 운수, 상업, 농촌경리, 금융기관 앞에도서 있다. 쏘베트 동맹 인민경제의 전체 부문은 대중적 사회주의적 경쟁의 기초 위에서 류통자금의 보다 훌륭한 운용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쏘베트의 금융기관 특히 국립은행의 제 시설은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할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기업체들에게 국립은행이 단기융자를 하는 것은 은행이 류통자금의 운용을 통제하며 계획에 적응한 충분히、확정된 요구에 대하여 기업체들에게 크레지뜨를 제공할 것과 기업체들이 받은 크레지뜨를 결정된 기한 내에 틀림없이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한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할 목적에서 국립은행의 기관들은 자금회전률의 촉진과 공업에 있어서의 독립채산의 공고화에 도움을 주는 가장 개선된 계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소들과의 계산관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는 것은 생산의 모든 고리에 있어서의 절약정책과 산품의 판매를 더 한층 공고히 하는 것、그리고 독립채산을 공고하게 하는 것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어 있다。 독립채산을 정착하는 것、독립채산을 직장 돌격작업반 및 개개의 쓰따하노브운동자에게까지 실시하는 것은 절약 계획 이상의 축적、(류통자금회전의 촉진을 낳게 하는 결정적 조건의 하나이다。 각 직장 돌격작업반의 사업에의 독립채산의 정착、자금회전과 그 절약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는 다수의 공업기업소의 실천공작에로 들어 갔다。 일련의 공장들에서의 작업장 돌격작업반 직장들은 자금회전을 빠르게 함에 있어서、독립채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자금회전률에 관한 지표(指標)는 직장 작업장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간주되며 또한 그것은 공장들에서의 모든 현행(現行)의 프레미암—상금제도의 적용에 있어서의 총 생산고에 관한 지표와 마찬가지로 고려되는 것이다。 자금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모든 공간(槓杆)을 리용하는 적극적인 공장의 경험은 다른 기업체들에도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금회전률을 계산하는 단일한 방법론이 없었으며 이리하여 이것은 일련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는 회전률의 지표가 류통자금 운용의 실제적 정경을 반영하지 않는 그러한 혼란에로 이끌고 있다。 류통자금은 계산할 때 산품이 판매된 가격을 취할 것이냐 혹은 공장에서 나갈 때의 가격을 취할것이냐、그렇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짐을 풀어놀 때의 가격을 취할 것이냐、그 어느 편에 의하느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생산품의 평가(실제적 원가、계획、공장에서 나가는 가격)도 이와 꼭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표를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자금 회전률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결정하여야 하나니 이 방법론은 쏘베트동맹의 기업체들에서의 류통자금 운용의 효과성을 비교할 가능성을 줄 것이다。

× × ×

모쓰크바와 모쓰크바주의 기업소 집단들이 류통자금의 회전률을 빠르게 하자는 제의를 하고 나선 이후 三개월이 경과하였다。 모쓰크바 사람들의 발기에 의하여 시작된 이 운동은 이미 현저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수의 기업소들은 자금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수천만루블을 자금에서 면제하였다。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제 물자를 더 한층 훌륭히 리용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을、더 한층 광범히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공업 기업소들의 일군들을 류통자금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대중적、경쟁에 더 한층 궐기시켜야 한다。

류통자금 회전률을 빠르게 하기 위한 운동은 쏘베트공업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자금 회전률의 촉진의 지표에 사회주의적 기업체들의 사업의 모든 면、즉 기술、공학(工學)、생산관리의 수준、기업체 활동에 있어서의 계획적 재정—경제적 면의 상태 등등이 명확히 반영된다。

류통자금 회전률의 촉진은 공업기업체들의 경리일군들과 당 조직지도자들에게 막대한 요구를 제출한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생산의 재정—경제적 면을 파악하며 기업체들에 있어서의 경제 생산조직의 제 문제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포섭한 류통자금 회전률의 촉진을 위한 운동은 생산문화를 더 한층 제고하며、쏘베트 기업체들에서의 기술과 생산조직을 부단히 개선하며、작업의 질을 높이며、사회주의 경제기구의 모든 우월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그들의 지향을 표현한다。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는 대중들의 로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절약을 위한、류통자금 회전률의 촉진을 위한 투쟁은 생산의 부단한 장성、쏘베트국가의 경제적 능력의 공고화、인민복리 상태의 제고의 강력한 원천이다。

(「볼쉐위끼」지 一九四九년 제七호에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력사」 연구자료 (二十六)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전야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

드·자이쩨브

위대한 조국전쟁 전야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의 활동은 쏘베트 조국에 대한 군사적 침공의 위협이 증대되어 가는 정세하에서 진행되었다。벌써 一九三七년말에 구라파는 히틀러독일에 의하여 도발된 전쟁의 여울(淺灘)속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히틀러독일은 자기의 모든 군사기구를 전투준비에로 동원 유지하였다。그 당시에 침략적 파시스트 국가들인 독일、일본 및 이태리의 군사정치적 뿔럭이 형성되었다。이 국가들은 자기 나라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 자유의 최후의 잔재까지 없애버렸으며、잔악한 테로제도를 수립하였으며、약소 국가의 독립과 자유로운 발전의 원칙을 말살하였으며、남의 강토를 강점하는 정책을 자기의 정책으로 광포하였으며、그들이 세계 통치를 달성하고 전세계에 파시스트제도를 전파시키겠다는 것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성명하였다。

세계 각국을 침략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독일과 이태리는 一九三八년 一월에 이스빠니야 도시를 폭격하였다。一九三八년초에 독일은 오지리를 강점하였으며、그해 十월에 독일은 체코슬로바끼야를 분할하였으며、一九三九년 三월에 체코슬로바끼야는 독일에 의하여 완전히 강점되었다。一九三九년 三월에 독일은 리트바로부터 강제로 메멜쓰끄주를 떼어내서 파란에 대한 자기의 강청(强請)을 강화하였다。독일은 영국과 불란서로부터 그의 다수의 식민지를 분여받을 것을 요구하였다。一九三九년 四월에 이태리는 알바니야를 점령하였다。一九三八년 七월에 일본은 하싼호부근에서 쏘베트 령토를 침범하였다。그리고 동년 말에는 광동을 강점하였다。一九三九년초에 일본은 해남도를 강점하였으며、동년 五월에 칠할힌골 지역에서 몽고인민공화국을 침범하였다。침략국가들은 영、불、미 및 기타 국가의 리익을 위

협하면서 구라파의 지도를 강제로 다시 만들려고 하였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불란서 및 미국은 강점자들에게 아무러한 저항도 표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를 내버려두었으며 오히려 장려하였다。一九三九년 一월 미리 작성된 「백색안(白色案)」에 의하여 독일 제국주의의 군대는 불시에 파란으로 돌입하였다。제二차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一九三九년 九월에 자본주의 렬강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제二차세계대전에는 전체로 六十一개 국가가 관계되었다。

제二차세계대전 발생은 제 민족과 제 국가의 생활에 있어서 우연한 현상이 아니였다。전쟁은 현대 독점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세계의 경제적 및 정치적 력량 발전의 불가피적 결과로써 발생하였다。현대에 있어서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은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전진형태로써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공황과 군사적 파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장기간에 걸친 독점 자본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체계의 공황으로 인도하는 것이다。이에 있어서 자본주의 세계는 두개의 적대적 진영으로의 분렬이 생기며 그 사이에는 전쟁이 생기는 것이다。제二차세계대전은 자본주의 체계의 두번째 공황의 결과이었다。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 파시스트 침략자를 반대하는 민주력량의 투쟁은 시초부터 반파시스트적 해방적 전쟁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파란을 처리하고 나서 히틀러 도배들은 一九三九년 겨울부터 一九四〇년에 이르는 기간에 새로운 령역에 대한 강점을 준비하였다。一九四〇년 봄에 히틀러독일은 배신적으로 정말과 노르웨이로 침범하였다。

一九四〇년 五월에 파시스트 무리들은 백이의、화란、룩크센부르그로 침입하였으며 그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였다。그해 여름에 불란서는 그 정부의 반역의 결과로 패망당하였다。불란서 인민은 독일의 기반하에 떨어지게 되었다。

一九四一년 전반기에 히틀러 독일은 파시스트 이태리와 함께 희랍과 유고슬라비야를 강점하였다。불란서의 패배와 무조건 항복과 독일의 그후의 강점적 행위에 의하여 구라파와 전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전세계에는 가장 거대한 위협이 닥쳐왔다。그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비단 독일、이태리 및 일본의 파시스트들만이 질 것이 아니라 미、영、불 제국주의자들에게도 있는 것이다。평화를 반대하는 음모는 전체 국제반동파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평화정책은 당시에 있어서도 현재에 있어서와 같이 진보적 민주주의적인 사회적 국제적 관계의 발전을 방

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투쟁에 있어서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도상에 있는 방해물이었던 것이다。국제 반동파는 파시스트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장갑화(裝甲化)한 철권(鐵拳)의 도움을 입어 쏘베트 동맹을 격파하는 데 성공할 것에 대해서 특별한 희망을 두었던 것이다。사실 독일 침략자를 부흥시키는 영、미、불의 정책은 이 점에 있었던 것이다。독일 제국주의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一차세계대전 이후에 영、미、불 제국주의자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하였다。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국딸라의 돈비(金雨)는 중공업 특히 히틀러 독일의 군사공업을 길러내었다。히틀러 독일의 군사경제에 투자된 수백만의 미국딸라는 독일 군사력을 건설하였으며、히틀러 정체의 수중에 침략을 실현하는 데 필요되는 무기를 주었다。히틀러 침략의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전제로 된 것은 독일 중공업과 군사공업의 부흥과 재생이었으며 그것은 미국 지배자들의 직접적이고 광범한 재정적 원조에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라고 「력사의 위조자」에 대한 쏘베트 정보국의 력사적 조서는 말하고 있다。

제二차세계대전 발단을 추진시킨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히틀러독일의 「조절」 정책이었으며 전쟁 전야에 영국 및 불란서 지배자들에 의하여 전행된 협동적 반전 정책을 거부하는 정책이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十八차 대회에서 진술한 사업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히틀러 침략 강화의 원인을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주되는 원인은 다수의 비침략국들 우선 영국과 불란서가、협동적 안전 정책과 침략자들에 대한 협동적 대항 정책을 거부하고 불간섭 립장에로、「중립적」 립장에로 넘어가는 데 있다。」

쏘베트동맹에 대해서 적의와 증오를 품고 있던 영、미、불 지배자들은 침략을 반대하는 협동적 투쟁을 위하여 평화애호 제 국가의 력량을 통일하는 데 대해서 배려한 것이 아니라 쏘베트동맹을 고립시키고、파시스트 침략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쏘베트국가를 침략자와 충돌시키고、쏘베트동맹과 독일이 쇠약하기를 기다리며 그때에 비로소 전세계의 주인으로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서구라파 외교대표의 제 조약은 이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즉 一九三三년에 체결된 四대강국 독·이·영·불의 조약、一九四四년의 독·파 불가침조약 체결에 있어서 영국 및 불란서의 협조、一九二五년의 영·독 해상협정、아비시니야를 침공한 이태리에 대해서 국제련맹에서 채택된 뿌로호롬을 위한 비준에 대한 영국 및 불란서의 위반、이스파

니야에 대한 이·독의 침략 협조정책、미국에서 채택되고 사실에 있어서 침략자들에 대한 불간섭과 무저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립에 관한 제 법령—一九三七년에 중국을 침범한 일본을 북방에서 쏘련을 반대해서 나갈 것을 희망하여 협조한 것、독일의 오지리 강점에 대한 영국 및 불란서의 찬동협정、히틀러 독일에 의한 체코슬로바끼야 분할문제에 대한 영 미의 협조、뮨헨협정、一九三九년에 있어서 영·불·쏘 조약의 결렬、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으로 파란지야를 추동한 것과 끝으로 一九三九—一九四〇년에 있어서 독일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불란서와 영국이 취한 수동적인 저항동이다。그들은 비조직적이고、분산적이고、준비되지 않은 상태로써 전쟁관계에 들어섰던 것이다。

쏘베트동맹은 제二차대전을 성숙시키고 후에 발전시킨 준엄한 사전들을 묵과할 수 없었다。볼쉐위끼당은 이에 있어서 원격한 구석에서 침략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심지어 조그마한 전쟁까지도 어느 것이나 다 평화애호 국가에 대해서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라고한 쓰딸린동지의 지시로부터 출발하였다。세계의 진보적 력량과 그의 선봉대인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데로 지향된 새 전쟁은 더욱 중대한 위험을 제시하였다。

서부 제 국가를 제압하고 있던 그 정치로선과 관련해서 전쟁 전야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에게는 두개의 위험이 나타났다。첫째 위험은 자본주의렬강이 쏘련을 반대하여 련합되어 히틀러 도배와 쳄벌렌의 도배와의 통일전선이 조성될찌도 모르는 것이다。둘째 위험은 쏘베트동맹이 남의 손에 있는 작란감이 될 수도 있으며、자기 정책에 있어서 독립성을 상실하고 하는 수 없이 다른 강국들을 위해서 불속에서 밤(栗)알을 끌고 다니게 될듯한 것이었다。이러한 조건하에서 쏘베트동맹은 지적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침략자에게 대한 협동적 저항을 조직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투쟁을 수행하였다。평화정책과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실제적인 련결을 강화하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쏘베트동맹은 새로운 세계전쟁 시작을 제지시키려고 진력하였다。쏘베트국가는 침략자들의 강점적 기도를 견결히 폭로하였으며 침략의 희생으로 된 인민들을 지원(支援)하였다。독일에 의한 오지리 강점과 관련해서 쏘베트 정부는 영국과 불란서에게 그가 협동 동작에 참가할 준비가 의연히 되었다는 것을 성명하였다。쏘련의 이 호소에 대해서 영국과 불란서는 못들은체 하였다。

一九三八년 여름에 붉은 군대는 하싼호 지역에서 무모한 일본놈들을 격파하였으며、쏘베트동맹은 약

하다는 적들의 비방을 매장해 버리었으며, 적들에 의해서 조작된 전체 진보적 인류에 대한 도발적 부류를 박멸시키었다。

一九三八년) 가을에 만일 불란서가 자기 책임을 완수한다면 쏘련 정부는 불침범에 관한 쏘베트—체코슬로바끼야의 조약으로 예견된 대로 체코슬로바끼야를 방위하는 데 대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명하였다。一九三九년에 쏘베트동맹은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을 수행하여 일본제국주의자 측으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있던 몽고인민공화국을 방조하며 나아가 일본군대를 격퇴할 수 있었다。쏘베트동맹이 서명한 조약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할힌골에서 시위되었다。

파란과 루마니야에 대한 독일의 위협과 관련하여 쏘베트동맹은 一九三九년 三월에 파시스트 독일의 새로운 침략적 조약에 대항하기 위한 방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쏘련, 영국, 불란서, 파란, 루마니야 및 토이기를 성원으로한 대표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의를 발표하였다。쏘련의 이 제의는 영국과 불란서 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一九三九년) 봄에 쏘베트 정부는 불란서와 영국 정부에게 구라파에 있어서의 침략을 반대하는 상호 방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그러한 조약을 체결하는 데 관한 교섭은 몇 달동안 계속되었다。그러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상호 방조할 것을 쏘련과 협약하는 것을 영국 및 불란서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 파탄되고 말았다。그것은 영국과 불란서는 파시스트 독일이 쏘련을 침범한 경우에 영국과 불란서가 전쟁의 제三자로 서게 되거나 심지어는 독일을 방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쏘련과 동맹할 것을 교섭하는 한편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독일과 영향범위의 구분에 관해서, 또 불침범조약에 관해서 교섭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은 더욱 현실적이었다。

一九三九년 가을에 영국과 불란서는 히틀러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비밀적 협약과 협정으로써 히틀러 독일을 쏘베트동맹에게 추겨대는 무법한 방법으로 갖은 짓을 하였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시기에 독일은 쏘베트동맹에게 불침범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쏘련 앞에는 한개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당면하였다。즉 자체 방어의 목적으로 독일의 제의를 채택함으로써 쏘베트동맹이 일정한 시기에 평화를 지속해서 그 기간을 침략자들에게 있음직한 침범을 저항하기 위한 자기 력량을 우수히 준비하기 위해서

리용할 수 있게 할것인가? 불침범 조약에 관한 독일의 제의를 거절함으로써 쏘베트동맹을 위해서는 완전히 불리한, 그의 완전 고립의 조건하에서 서부 렬강의 진영으로 되고 있는 전쟁 도발자들이 즉시에 그들이 쏘련을 독일과의 군사적 분규에로 유인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조건하에서 쏘베트정부는 一九三九년 八월 二十三일 독일과 불침범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 조약의 체결은 당시의 조성된 정세하에서 쏘베트 외교정책의 통찰력있고 현명한 한걸음이였다。

一九四一년 七월 三일 연설에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가 독일과 불침범 조약을 체결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는 한해반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평화를 보장하였으며 또 팟쇼독일이 조약을 위반하고 우리나라에 달려 들려고 모험할 때에 반격에 필요한 자기 력량을 준비할 가능성을 보장하였다。이것은 곧 우리의 확정한 리득이며 팟쇼독일의 손실이다。」

쏘련과 독일의 불침범 조약을 체결한 후 불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는 파시스트 침략자들의 모든 간책을 주의깊게 주시하였으며 쏘베트 국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책을 썼다。

파란에 대한 독일의 침공과 관련해서 쏘베트 국가는 一九三九년 九월에 쏘베트 국가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서부 우크라이나와 서부 백로씨야 지역에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과 백로씨야 사람들을 자기의 보호하에 두었다。서부 우크라이나와 서부 백로씨야는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一九三九년 十一월에 우크라이나 및 백로씨야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가맹되었다。우크라이나와 백로씨야의 새로운 서부국경에 쏘베트 군대는 방어건설을 확장하였다。

一九三九년 가을에 쏘베트동맹은 발찌크 연안 제국과 상호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그것에 의하면 에쓰또니야, 라트비야 및 리트바의 령토에 쏘베트군대의 위수 부대를 배치하고 비행장과 군사기지를 설치할 것이 예견되었다。

서부 우크라이나, 서부 백로씨야 및 발찌크 연안에서 쏘베트 정부에 의하여 진행된 군사적 시책은 「동부」전선 즉 예전 쏘베트 국경으로부터 二백 내지 三백키로메터 떨어져 있는 강화된 선의 토대를 이루었다。

一九三九년 十월에 쏘련은 핀란지야에게 서부국경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상호협조 조약을 제의하였다。그러나 핀란지야 정부는 이 제의를 거절하였으며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을 시작하였다。얼마하지 않아 핀란지야는 붉은 군대에 의하여

격파되었으며 하는 수 없이 쏘베트동맹과의 강화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조약에 의하여 핀란지야는 위보르그시(市)를 포함한 까렐지협(地峽)、라도가호(湖)의 서부 및 북부 호안지대、무르만쓰끄 철도에 근접해 있는 일부 령토、리바치、및 중앙 반도의 일부를 쏘베트동맹에게 이양하였으며 또한 한꼬반도를 三十년간 대차(貸借)하였다。 상기한 령토의 대부분은 까렐쓰끄 아제르바이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일부로 들어 갔으며 그것은 一九四○년 三월에 쏘련 최고쏘베트회의의 결정으로 자치공화국으로부터 까렐로핀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동맹으로 개편되었다。

一九四○년 六월에 벳사라비야로 인한 二十二년이나 끌어 오던 쏘련과 루마니야간의 분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벳사라비야에 관한 문제는 제二차세계대전 초기조건하에서 극히 중대한 것이었다。 그 리유는 루마니야가 당시 급속히 히틀러 독일에 복종하는 국가로 변하였으며 쏘련에 대한 침공을 기다리었던 나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루마니야 정부는 벳사라비야와 우크라이나 사람어 거주하고 있는 북부 부고비나를 쏘베트동맹에게 할부할 데 대한 제의를 접수하였다。 一九四○년 八월 쏘련 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七차회의 결정으로 몰다비야 아제르바이잔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은 몰다비야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동맹으로 개편되었다。

一九四○년 七월에 리토바 및 라트비야 국회와 에쓰또니야 국가회의는 자기나라에 쏘베트 정권을 설립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쏘베트동맹의 일원으로 가입시켜 줄 것을 쏘련 최고쏘베트에게 청원하였다。 쏘련 최고쏘베트 七차회의는 리트바、라트비야 및 에쓰또니야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의 일원으로 가맹공화국의 권리로써 접수할데 대한 결정을 하였다。 쏘베트 국가는 一억九천三백만의 인구를 가진 十六개 공화국의 동맹으로 되었다。 새로운 쏘베트 국가의 전체 국경으로 붉은 군대는 방어공작을 전개하였다。

쏘베트정부에 의하여 핀란지야와 루마니야로부터 쏘련으로 들어온 령토에 대해서 수행된 군사적 제시책과、쏘베트 군대가 리트바、라트비야 및 에쓰또니야로 진출한 것으로써 빨찌크해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전체 서부 국경에 히틀러의 침략을 반대하는 「동부」전선 형성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는 一九三八년——一九四一년 六월까지의 기간에 극히 복잡한 국제적 조건하에서、새로운 전쟁이 우르렁거리는 정세하에서 몇년 동안 평화적 휴식을 얻

장할 수 있었다。 쏘베트동맹은 제국주의 제국가의 반쏘베트적 전선을 파탄시키었으며、一九三九년에 있어서 독일의 침공을、一九四○년에 있어서 불란서와 영국의 쏘련에 대한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쏘베트 국가는 그가 군사적으로 약하던 그 시기에 쏘베트 국가로부터 무리로 분리되었던 다수의 령토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쏘련에 대한 파시스트 독일의 침공을 위한 중요한 진지를 우리 생활중심지로부터 현저히 격리시킴으로써 쏘련의 서부 국경을 크게 강화하였다。

쏘베트동맹은 제一급의 국제적 요인으로 화하였다。 철저한 평화정책、타민족의 권리 존중、파시스트 침략자들에 대한 결정적 폭로와 침략자들의 침공을 받는 국가에 대한 원조、자기가 지고 있는 책임의 정확한 완수 등의 쏘베트동맹의 행동은 쏘련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신망을 강화하였으며、쏘련을 세계의 모든 력량을 집결하는 중심으로 변하게 하였으며、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 평화애호 제 민족의 위대한 반히틀러 련합의 조성을 준비하였다。

쏘베트 국가의 외교—정치적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하면서 볼쉐위끼당은 전쟁 전야에 국가의 인민경제 발전과 그의 국방력 강화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이 방향에서 가장 중대한 도표(道標)로 된 것은 十八차당대회이었다。

十八차당대회는 一九三九년 三월에 소집되었다。 이 대회는 사회주의 승리의 대회로써 력사에 기록되었다。 쓰딸린동지는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대회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동대회에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사업에 관한 총결 보고를 진술하였다。 쓰딸린동지의 이 보고는 공산주의의 정강보고이다。 자기 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국제정세의 심오한 분석을 하였으며、十七차대회로부터 十八차대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쏘련의 달성과 성과를 특정지었으며、가장 중요한 제 문제에 대한 맑쓰—레닌의 리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사회주의 국가의 장래 발전의 길을 지적하였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대회는 十七차대회로부터 五년의 사이가 있다。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경제부면에 있어서나 정치 부면에 있어서 중대한 동요의 시기였다。

제二차세계대전 전야에 있어서 자본주의국가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오는 경제적 공황을 자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 특정이다。 이 공황의 장성은 극히 불균형적이였다。 자본주의 국가에게는 시장과 식민지의 문제가 더욱 더욱 예민하게 되었다。 파시스트 국가들은 갖은 방법을 다 해서 전략적 원

로를 저장하였으며 자기의 경제를 강제로 군사적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파시스트 국가에 있어서 군사생산의 무리한 진행은 전체 산업에 활기를 주고 다소간 그것을 제고하는 데 충동을 주었다。 부르죠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생산수준의 변화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 이 나라들의 공업은 자본주의의 특징인 공업생산의 순환 — 공황으로부터 공황으로의 순환을 경과하였다。 군사생산은 극히 저급한 수준에 있었으며 공업생산의 일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원천으로 될 수 없었다。

자본주의 세계의 정치적 상태를 특징지으면서 쓰딸린동지는 당시에 조성된 국제정세의 모든 복잡성과 위험성을 특별히 심오하게 당과 쏘베트인민 앞에 폭로하였으며, 쏘베트 대외정책 원칙을 유루(遺漏) 없고 명백하게 규정하였으며, 전쟁방화자들과 쏘련을 반대하는 간섭의 계획을 폭로하였으며, 쏘베트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할 것을 쏘베트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최근의 五개년계획 동안에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쓰딸린동지는 「쏘베트동맹에 있어서는 이 기간이 그의 장성 및 륭성기였으며, 그의 앞으로의 경제적 및 문화적 향상기였으며, 그의 정치적 또 군사적 세력이 앞으로 장성되어 가는 시기였으며, 그가 전세계에서 평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쟁한 시기였다。」 라고 지적하였다。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이 경과된 행로의 기본적인 총화는 쏘련에서 공산주의의 첫 단계인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제二차 五개년계획 말에는 벌써 사회주의적 경제제도가 쏘련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의 유일한 제도로 되었다。

쏘련의 인민경제 발전부면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과는 공업과 농업을 새롭고 현대적인 기술을 토대로 하여 재건 완성한 것이었다。 생산기술과 공업장성속도로 말한다면 쏘베트동맹은 제二차 五개년계획 말에 중요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릉가하였다。 인민의 수요(需要)는 제二차 五개년계획 기간에 두배 이상 장성되었다。

쏘련에서는 문화혁명이 수행되었다。 十八차당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쏘베트제도의 미증유의 견고성과 불쉐위즘의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된 불쉐위끼당 대렬의 일찌기 보지못하던 단결성을 지적하였다。

쏘베트제도의 미증유의 견고성은 쏘련에 있어서 사회주의 승리를 토대로 하고 이루어졌다。 쏘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인구의 사회적 성분의 변화, 쏘베트사람들의 물결적 복리와 문화의 장성에로 인도하였다。 一九二八년에 사회주의 경제에 전적으로 관계된 로동자 사무원 및 꼴호즈원들이 도

합 쏘련인구의 二二%를 구성하였고, 인구의 四분지三은 사유재산에 결속되었으며, 그중 五%는 착취적 요소 — 즉 네프만(네프에 의해서 졸부가 된 사람)과 부농들로써 구성되었었다면 제二차 五개년계획 말에는 쏘련인구의 九四%가 사회주의 경제에 종사하는 로동자[illegible] 사무원 및 농민들로 구성되었으며, 개인 농업가는 약 六%이었으며 착취계급은 숙청되었던 것이다。 쏘련에는 그 면모가 새로우며 호상 친밀한 계급 즉 쏘베트인테리와 함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공동적 사업에로 상호간 통일된 로동계급과 농민계급이 있게 되었다。 쏘련에 있어서 로동계급 농민 및 인테리의 리익의 공통성을 토대로 하고 쏘베트사회의 사상적 — 정치적 통일, 쏘련 제 민족간의 친선, 쏘베트적 애국정신등의 추진력이 발전되었다。 그와 동일한 토대 위에서 쓰딸린적 헌법이 이루어졌으며 완전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가 실시되었다。

사회주의의 달성과 성과, 사회주의의 경제의 장성, 인민의 물질 문화수준의 앙양, 쏘베트제도의 앞으로의 공고를[illegible]특징짓고 나서 쓰딸린동지는 당과 전체 쏘베트인민 앞에 새롭고 위대한 력사적 과업을 내세웠다。 그 과업은 가까운 十년내지 十五년간에 경제관계에 있어서 즉 인구별 공업생산범위에 있어서 주요 자본주의국가를 따라가며 앞서 가는 것이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대회에서 진술한 쓰딸린동지의 보고는 레닌적 사회주의 혁명리론, 국가에 관한 맑쓰—레닌적 학설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인 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일개 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을 구체화하였으며 자본주의 포위가 존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쏘베트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승리에 관한 학설은 맑쓰와 엥겔쓰에 의하여 대략 주어졌다。 레닌은 그 학설을 발선시켜 자기의 수다한 저작을 통하여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승리한 토대위에서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레닌은 항상 우리는 이 길의 일반적인 방향은 알면서도 구체적인 길은 알고 왔지 않으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당면한 전환의 모든 구체적인 상세한 점은 알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레닌 생존시에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환하는 데 대한 경험도 없었고 자로도 없었기 때문에 레닌이 그에 대한 실천적인 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레닌 생존시에는 쏘베트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문제가 겨우 전개되었을

문이었다。쏘베트 국가 앞에는 국가를 사회주의적으로 개건하는 데 대한 사업에 더욱 거대한, 곤난이 서 있었다。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환하는 실천적 제 문제는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성과적인 건설과 구성을 토대로 하고 이로써 발생하였다。쏘베트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환하는데 대한 실천적 제 문제는 쓰딸린이 빛나게 규정하였다。제十八차당대회전에, 벌써 쓰딸린동지는 수많은 자기의 연설과 저작에서 자본주의의 포위조건하에서 쏘련에서 공산주의 승리가 가능하다는데 관한 문제에 언급하였다。一九二六년에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五차 전동맹대표자회의에서 진술한「우리당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적 편향에 관하여 다시한번 론함」이라는 보고에 대한 결론에서 쓰딸린동지는 우리가 자본주의 포위하에 있는 일개 국가에서 공산주의 승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一九三五년 쓰따하노비츠들의 협의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에서 쓰딸린동지는 이 시기에 맞는 훌륭한 운동의 역할과 의의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 공산주의의 맹아(萌芽)를 보았으며 우리는 쓰따하노브 운동에서 장차 있을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전환의 맹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쓰딸린 동지는 쏘베트국가에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전환에 관해서 방식(方式)을 주었다。제十八차당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환하는 데 관한 이전의 명제를 자본주의적 포위하에 있는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 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결론으로써 론리적으로 완성하였다。쏘베트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 승리의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쏘련의 로동계급의 독재와 쏘베트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규정된다。로동계급의 독재없이는, 그리고 사회주의국가를 백방으로 강화함이 없이는 공산주의의 승리는 없으며,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환하는 행정에 있어서 쏘련의 앞으로의 성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쏘베트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 승리의 가능성은 쏘베트인민이 공산주의사회 발전의 첫 단계인 사회주의의 승리를 달성하였다는 것으로써 규정되는 것이다。쏘베트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앞으로의 발전과 공고화를 토대로 해서 발전될 것이다。

쏘베트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 승리의 가능성은 쏘베트사회의 사상적 정치적 통일로써 규정된다。이 통일에 쏘베트국가의 인민들의 무진장한 력량의 원천이 있으며 공산주의 승리의 담보가 있는

것이다。

쏘련에 있어서 공산주의 승리의 가능성은 새로운 쏘베트 사회제도로써 인민의 것으로된 쏘베트국가의 무진장한 물질적 자원과 자연적 부(富)위에 토대를 두었다。

쏘베트국가에서 공산주의 승리의 가능성의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볼쉐위끼당의 지도적 령도적 역할이다。볼쉐위끼당의 지도가 없이는 위대한 十월사회주의혁명의 승리가 없었을 것이다。볼쉐위끼당의 령도가 없이는 사회주의가 없었을 것이다。볼쉐위끼당과 그의 수령 쓰딸린동지는 히틀러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였다。쏘베트인민에 대한 볼쉐위끼당의 앞으로의 령도는 쏘베트국가에 있어서의、공산주의의 승리의 과업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제十八차대회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국가 앞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 적응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와 직능의 변화에 대한 가장 심오한 변증법적 정경(情景)을 주었다。사회주의국가는 자기 발전에서 두개 단계를 경과하였다。

첫째단계는 十월혁명으로부터 쏘베트국가에 있는 착취계급의 숙청까지이고、둘째단계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숙청으로부터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완전한 승리와 새로운 헌법채택까지이다。첫째단계에서 쏘베트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의 전복된 계급을 진압하고、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직능을 완수하였다。둘째단계에 있어서는、첫째계획으로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직능——즉 공업과 농촌경제의、생산품을 증대하기 위한 투쟁、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계의 교양、로동생산성의 제고 등등의 직능이 나섰다。둘째단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최후잔재의 숙청과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건설과 관련해서 국내의 군사적 진압의 직무가 없어지게 되었다。국내의 군사적 진압의 직능 대신에 둘째단계는 사회주의적 재산을 도적과 인민재산의 략탈자들에게서 보호하는 직능이 나타났다。쏘베트 조국을 외국의 래습으로부터 방위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적 국가의 직능이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쏘베트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래습이 더욱 장성되어 가는 위협에 직면하여 붉은군대와 해군을 강화하고、정벌기관과 쏘베트 정탐을 강화하고、전체 쏘련인민을 제국주의자들의 래습을 격퇴하는데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국가에 관한、자기의 학설에서 붉은군대와 정벌기관과 정탐의 칼날은 지금 국내로 향해진 것이 아니라 국외로 외부의 적을 반대하여 향해지

[illegible] 특히 주장하였다.
사회주의 국가 발전의 [illegible] 단계에 관한 쓰딸린의 명제는 쏘베트 국가의 [illegible] 및 [illegible] 단계에 [illegible] 하였으며 사실에 있어 [illegible] 였으며 [illegible] 편한 [illegible] 조건과 [illegible] 원(위원)) 일하여 [illegible] 실현하였는 것을 수설명함으로써 [illegible] 사회주의 [illegible] 으로 중의 발전의 [illegible] 불가피성, 그의 [illegible] 의 새로운 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illegible]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이다. 쓰딸린동지는 국가 조락(凋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llegible] 사회주의 [illegible] 쓰딸린동지는 자본주의의 포위의 [illegible] 에서 공가 조락을 필요하다 [illegible] 하였다.
그러한 [illegible] 사업상 중대한 [illegible] 약화로, 쏘베트 국가의 그의 제 기관의 [illegible] 강화할 필 [illegible] 한과 수행가에 로, 쏘베트 국가를 백방으로 [illegible] 할 필요성을 [illegible] 해 주는 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 국가를 백방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창시하였으며 그 발전의 전망을 규정하였으며 [illegible] 자본주의 포위가 계속 존재한다면 공산주의 하에서도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illegible]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쓰딸린적 학설은 쏘베트 동맹에게 적대적인 자본주의 포위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국가, 그의 제반 기구, 그의 정단의 [illegible] 에 [illegible] 끝을 막았다. 쓰딸린의 [illegible] 학설은 [illegible] 사회주의 [illegible] 관한 문제의 명백한 [illegible] 불쉐위끼당과 쏘베트인민을 무장시키였으며 그 [illegible] 쏘베트 [illegible] 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illegible] 위한 무기를 그들에게 주었다. [illegible]
사회주의 국가 [illegible] 한 쓰딸린동지의 학설에 의거하면서 불쉐위끼당은 사회주의 국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illegible] 대한 [illegible]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illegible] 사회주의 국가를 전세계에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국가로 변화하게 하였다.
제十八차 당대회에서의 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지도적 간부들을 양성하고, 교양하고, 선택하고, 등용하고 열하는 데 대한 당의 불쉐위끼적 사업강령을 지적하였다. 쏘베트국가는 새로운 기술을 정통한 간부들을 배치하였다. 간부들을 유능하게 리용하는 것이 파업으로 되었다. 쓰딸린동지는 교시하기를 「정당한 간부선택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간부를 평가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매개 공작원이 어떠한 공작에서 그의 능력을 가장 유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연구하고 공작원들이 장성하는 것을 방조하며 상급으로 제고하며 젊은 간부를 과감히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부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정당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쓰딸린동지는 간부들의 연구 등용 및 선택사업을 각부와 각지부에 갈라놓는 일이 없이 하기를 제의하였다. 이 목적으로 전동맹공산당(불쉐위끼) 중앙위원회 내에 인재관리국과 각 공화국, 변강 및 주 당단체 내에 간부부가 창설되었다.
쓰딸린동지는 당적 선전과 간부들의 맑쓰—레닌적 훈련에 관한 문제를 특별히 명민하게 제기하였다. 쓰딸린동지는 간부들의 맑쓰—레닌적 훈련이 전체 국가적 및 당적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국가 및 당사업의 어떤 부문의 일군을 물론하고 그들의 정치 수준과 맑쓰—레닌수의적 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자체가 더 높아지고, 실효(實效)가 많으며, 사업의 결과가 성과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사업자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쓰—레닌수의적 각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에서의 파탄과 실패가 필연적인 것이요, 사업자 자체가 필연코 천박하게 되어 인색한 목전리익(目前利益)의 사무주의자로의 퇴화가 필연한 것이며, 그들의 변태(變態)가 필연한 것을 공리(公理)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쓰딸린동지는 말하였다.
맑쓰—레닌수의 선전사업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선전선동관리국이 창설되었다.
제十八차 당대회에서의 보고에서 쓰딸린동지에 의하여 가장 심오하고 솔직히 제기된 중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 기본적 제 문제는 이상과 같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대회에서 진술한 쓰딸린동지의 보고는 무계급적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 또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전환의 강령이다. 볼쉐위끼 대회는 자기 수령의 결산보고를 일체 찬성하고 이 보고를 당의 일체 활동적 지령과 법규로 승인하였다.」(쓰딸린략전 조선어판 一八二페지)
전동맹공산당(불쉐위끼) 제十八차대회에서 쏘련 인민경제 발전 제三차 五개년계획에 관한 몰로또브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제三차 五개년계획은 쏘련 인민경제 발전의 방대한 과업을 지적하였다. 제三차 五개년계획, 말에는 쏘련 공업생산이 一九一三년에 비하여 十五배로 장성될 것이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대회에서의 몰로또브동지의 보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적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즉 「제二차 五개년계획의 승리적 완수와 사회주의의 달성된 제 성과를 토대로 하고 쏘련은 제二차 五개년계획에로, 새로운 발전지대에로, 무계급적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완성

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적 전환의 자대로 들어섰다。」

제三차 五개년계획에 있어서 쏘련의 주요한 경제적 과업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주요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가며 앞서 갈것이라고 한 쓰딸린동지의 지시를 성과있게 해결하기 위한 필요되는 조건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

제三차 五개년계획에 있어서, 쏘련의 주요한 정치적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쏘베트사람들의 의식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잔재를 극복하는 데 있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제十八차대회는 一九三八ㅡ一九四二년의 쏘련 인민경제 발전 제三차 五개년계획을 확인하였다。 제三차 五개년계획은 쏘베트국가에서 공산주의의승리의 로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진전이였다。

十八차대회에서는 당의 새로운 규약이 채택되었다。당의 새로운 규약을 채택하는 필요성은 쏘베트국가에서 十八차당대회까지에 생긴 경제와 계급적 구성에 있어서의 근본적 개혁으로 제약되었다。당의 새로운 규약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발전으로의 당의 로선이 반영되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규약 변경에 관한 보고에서 스다노브동지는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 「…우리당 앞에는 새로운 거대하고 전취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대하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이 과업을 해결하고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선진적 투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자기의 조직된 무기를 부단히 예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의 새로운 무기는 당원의 적극성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당원에게서 관료주의의 표현이 없게 하기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새로운 규약을 레닌—쓰딸린당원의 위대한 칭호를 더 한층 높이였다。十八차당대회의 결정은 쏘베트국가가 공산주의로 가는 행정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일보이었다。

쏘련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 기간은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 방어준비 기간이었다。 쓰딸린동지는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의 쏘련의 승리를 총결하면서 一九四六년二월九일 선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전체국가를 적극적 방어로 미리 준비함이 없이 그러한 력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그러한 준비가 단기간에 三—四년동안에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에 못하지 않는 잘못이다。」쏘베트국가에서는 전쟁 평화시기를 통해서 적극 방어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一九三八년—一九四一년 六월 기간은 적극 방어준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였다。적극 방어로의 쏘련의 준비는 다음의 로선으로 진행되었다。즉 물질 기술적, 군사적, 대외정치적, 사상 정치적인 로선이다。

물질 기술적 적극 방어준비는 볼쉐위끼당이 국가의 공업화와 농촌경제 집단화 정책을 시행한 데 표현되었다。당은 전체 인민경제 장성과 국방력 강화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과 기계 건설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당은 전쟁이 박두하였다는것, 중공업 없이는 국가를 방위할 수 없다는것, 될수 있는대로 시급히 중공업 발전에 착수해야 할것,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쓰딸린동지는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연설에서 진술하였다。

중공업과 기계건설을 발전시키면서 쏘베트동맹은 제二차 五개년계획 말기에 벌써 산출되는 자동차, 뜨락또르, 비행기 수효에 있어서 구라파에서 제一위를 차지하였으며 화학공업 발전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당은 공업중심지를 위협당하는 경계선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 즉 우랄, 씨비리 및 중앙아세아로 멀리 하면서 생산력 배치의 통찰력있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쓰딸린동지의 창의에 따라 동부에 제二의 석탄 금속 기지와 볼가와 우랄 사이에 「제二의 바꾸」가 창설되었다。우랄, 씨비리에와 중앙아세아에 위력한 공업이 창설되었다。

볼쉐위끼당은 국가 공업화에 급속한 공업발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그래서 一九一三년부터 一九四〇년까지에 대공업 총생산이 전국 평균 一〇九배 장성하였다면 까자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二二二배, 아르메니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二二三배, 그루지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二六四배, 끼르기즈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一六〇배, 따지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二四二배로 장성되었다。산업의 새로운 배치는, 자여부원을 더욱 우수히 리용하고, 불합리한 수송을 없이하고, 전쟁시에 군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되는 기지를 창설하고 수많은 공업 간부를 길러내는 가능성을 주었다。이 모든 것은 국가의 생산력 발전속도를 촉진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와 민족 공화국과 주(州)의 문화를 발전시키였으며, 쏘베트 제 민족의 사상 정치적 통일과 친선강화와 쏘베트적 애국심의 발전을 촉진시키었다。당은 특수화된 군사공업 건설을 강행하였으며 전쟁 경우에 동원될 준비의 목적하에 모든 공업의 재전을 수행하였다。

국가를 적극적 방어에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농

촌경제 집단화가 또한 위대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경제 집단화는 붉은군대와 도시주민에게 식량을 완전히 보장하였으며, 공업에 원료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쏘베트국가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의 장성을 위한 필요되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전쟁경우에 대한 식량의 국가적 예비의 창설을 보장하였다.

농작물 배치부면에 있어서 당의 정책은 쏘베트동맹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농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주(州)는 그 산품을 생산하게 변화되었다. 당은 동방의 파종면적을 확장할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극히 명민하게 설정하였다. 당에 의하여 실시된 다수의 시책의 결과 제二차 五개년계획 말에는 벌써 우랄 서부 및 동부 씨비리에서 우크라이나와 크림보다도 더욱 많은 상품곡물을 산출하였다.

쏘베트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농촌경제 기계화가 무한히 고귀한 역할을 놀았다. 농촌경제 기계화로 인해서 전쟁시의 로동문제가 성과있게 해결되었다.

제二차 五개년계획기간에 七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뜨락또르운전수와 콤바인 운전수로 꼴호즈로 나아갔다. 가장 곤난한 농업의 기계화는 녀성과 소년의 로동을 적용하고 이 로동을 전쟁시에 가장 효과있게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쓰딸린적 五개년계획 기간에 뜨락또르 운전수, 콤바인 운전수 및 자동차 운전수의 수다한 간부가 훈련되었다. 一九三八년 국영농장과 꼴호즈의 뜨락또르 지정소에서 약 一백五십만명의 전문 기술자가 일하고 였다. 그들은 그후 붉은군대의 전차 및 기계화부대에서 황금같이 귀중한 보배로 되었다.

볼쉐위끼당에 의하여 국가 공업화와 농촌경제 집단화가 수행된 결과 재二차 五개년계획 말기에는 벌써 자기경제와 국방 필요물을 모든 필요되는 기술적 무기로서 보장하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로 되었다. 一九三八—一九四一년 六월 기간에 당과 쏘베트 정부는 국가의 산업 농촌 및 국방력의 앞으로의 장성을 촉진하는 거대한 시책을 수행하였다.

十八차당대회는 기계전설, 고급강철, 압연철판, 유색금속, 화학산업의 급속한 발전, 연료 전기 및 기타 국방산업에 대한 거대한 국가 물자 예비의 창설, 또한 교통운수 발전에 대한 설정을 하였다.

이 결정을 토대로 하고 一九三八—一九四一년 시기에 약 三천개소의 기업소가 작업하게 되었으며 一九四○년도에는 총액 七十六억 루블이나 되는 국가물자 예비가 조성되었다.

쓰딸린동지의 지시에 따라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정부는 산업, 운수 및 국가기업을 향상시키는 데로 지향된 다수의 시책을 수행하였다.

一九四○년 六월 二十六일에 八시간 로동제, 주간 七일로동제, 기업소와 기관으로부터 로동자와 사누원의 자유퇴거금지에 관한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지시가 발표되었다. 이 지시의 실현은 로동시간을 一五%나 증대시키었으며, 로동규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로동생산성의 제고를 촉진하였다.

一九四○년 十월 二일 쏘베트 정부는 로동 예비대의 준비와 분배계획에 관하여 결정하였다. 직업학교와 철도학교 및 제조소 공장학교가 창설되었다. 그 학교들은 산업을 위한 유자격 간부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로동 예비대의 준비와 계획적 분배의 필요성은 쏘베트국가에 실업이 없고 산업과 농업의 거대한 확장이 진행되는 관계로 인한 것이었다.

직업학교와 철도학교 및 제작소—공장학교에서 로동 예비대의 준비는 기술강습, 쓰따하노브 강습, 사회주의 로동기술자 학교 등의 공업과 농업에 있어서의 광범한 대중적 직업간부 양성형태로 보충되였다.

볼쉐위끼당은 꼴호즈 강화에 관해서 부단히 배려하였다. 다수의 주에서는 토지의 리용부면에 있어서의 당 정책의 중대한 외곡이 제때에 폭로되었다. 그것은 농업 협동조합 규약을 위반하고 꼴호즈의 공동적 토지를 꼴호즈원 개인 경제를 위해서 투매(投賣)하여 로동규률을 파괴하고 일부 꼴호즈원들의 사유재산을 위한 로력을 강화시킨데서 표현되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는 一九三九년 五월에 꼴호즈 건설부문에 있어서의 당정책 외곡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지방당과 쏘베트 기관에게 그 일을 시정하고 꼴호즈의 공동적 토지를 금후 개인적으로 소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제의하였다. 一九四○년 四월에 채택된 쏘련인민위원 쏘베트와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꼴호즈의 앞으로의 발전사업에 있어서 중대한 일보(一步)이였다.

一九四○년에 당과 정부는 「쏘련 동부 지역의 꼴호즈와 솝호즈에 있어서 상품곡물 경제의 앞으로의 제고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는 동부 지역의 주당 및 변강당 위원회에게 파종면적을 더욱 확장하고 수확을 높이도록 책임지웠다. 위대한 조국전쟁 초기에는 동부 지역의 파종면적이 一九三一년에 비해서 二천만 헥따르 증대되였다.

국가의 모든 력량과 자원을 전체 인민경제를 앞으로 발전시키고 쏘베트동맹의 국방력을 일층 강화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표지 밑에 一九四一년 二월에 개최된 제十八차 전동맹 당 대표자회의가 결정되었다。동 대표자회의는 「산업과 운수부문에 있어서 당 조직의 과업에 관하여」라는 말렌꼬브동지의 보고와 「一九四〇년도 경제총화와 一九四一년도 인민경제 발전계획」이라는 워즈네쎈스끼동지의 보고를 청취하였다。제十八차 당 대표자회의는 一九四一년도 쏘련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비준하였다。一九四一년 二월에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와 쏘련인민위원 쏘베트는 十八차 당 대회 결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관계에 있어서 중요자본주의 제 국가를 능가할 과업을 해결할 것을 예산하는 十五년간의 쏘련의 총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할 것을 쏘련국가계획위원회에 위탁하였다。

쏘딸린동지는 一九四六년 二월 九일 자기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국방력 강화의 견지에서 공업화와 집단화 정책의 의의와 결과를 표시하였다。쏘딸린동지는 지적하기를 제二차세계대전에 들어서기 전의 쏘베트동맹은 제一차세계대전에 들어서기 전의 옛날 짜리로씨야보다 해아릴 수 없을 만한 거대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一차세계대전 전야인 一九一三년에 로씨야에서는 선철은 四二二만톤、강철은 四二三만톤、석탄은 二천九백만톤、석유 九백만톤、상품곡물 二천一백六十만톤、면화七十四만톤이 생산되었다。一九四〇년에 쏘련에서는 선철 一천五백만톤、강철 一천八백三十만톤、석탄 一억六천六백만톤、석유 三천一백만톤、상품곡물 三천八백三十만톤、면화 二백七十만톤이 생산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면서 볼쉐위끼당은 경제적 위력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국가의 군사적 위력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였다。그것은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그러므로 당과 정부에 의하여 물질적 지반을 창설함과 아울러 국가의 무력을 강화하고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다수의 전문적인 방책이 연구되었다。

전쟁전야에 붉은 군대와 해군의 필요에 대한 지출이 년년이 증가되었다。一九三八년에는 二백三十一억五천一백만 루블이었고、一九四〇년도에는 五백六十一억二백만 루블、一九四一년에는 七백八억六천五백만 루블이었다。당과 쏘베트 정부는 붉은 군대를 기술적으로 장비하는 데 대한 대사업을 수행하였다。쏘베트 군대가 一九三九년에 소유하고 있던 무력의 수효는 一九三〇년에 비해서 전차는 四十三배、비행기는 六·五배、포는 七배、전차 및 반전차포는 七十배、기관총은 五배로 장성되었다。보병과 공군을 강화함과 아울러 당과 쏘베트 정부는 해군에 거대한 주의를 돌렸다。一九三八년에는 조선소에서 제二차 五개년계획 기간의 어떤해 보다도 五배 이상의 함정을 산출하였다。一九三九년에는 一一二척、一九四〇년에는 一六八척의 대소함정을 산출하였다。一九三九년에 있어서 쏘베트해군의 잠수함 수효는 어떠한 외국함대의 잠수함 수 보다도 릉가하였다。

붉은 군대 건설의 모든 기본적이고 중대한 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목적으로 一九三八년에 군사 쏘베트본부가 창설되었다。쏘딸린동지는 그 성원으로 들어갔다。

一九三九년에 쏘딸린동지의 창의에 의하여 붉은 군대 보충의 지역적인 경찰 제도는 종결적으로 폐지되고、그것은 통일적 정규적 보충으로 전이(轉移)하였다。고려한 붉은 군대의 재 조직은 군대가 복잡한 전투기재로 장비하게 되고、그것을 정통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시간이 요구되며 침략자들이 선전포고없이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러한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야기되었던 것이다。이러한 조건하에서 붉은 군대 보충의 지역적 경찰 제도는 쏘베트국가 방어의 과업에 적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정규적 보충제도로 교대되였던 것이다。

군대를 정규적인 형편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군사관리의 지방적 제 기관은 재 조직되었으며、그것은 병역 의무 계산제도를 철저히 광호하게 하였으며、전쟁경우에 있어서의 동원조건을 향상시키었다。

쏘련최고쏘베트 제四차회의 결정으로서 전반적 병역 의무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그것을 토대로 하고 군대의 수효는 증대되었으며 그 성원은 훈련받은 간부로써 보충되었다。

「동부」전선의 창설은 국가의 적극적 방어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이었다。

「력사의 위조자」의 력사적 시정서에서 쏘련 정보국은 지적하기를 만일「동부」전선이 없었다면 쏘、련은 침공할 때에 히틀러 군대가 수백키로메터의 범위를 리득하는 데 성공하여 전선을 레닌그라드—모쓰크바—민쓰크—끼예브로(二一[illegible]지 三백키로메터나 접근시키었을 것이라고 하였다。그렇게 되면 독일군이 쏘련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시켰을 것이며、끼예브와 우크라이나의 함락을 빠르게 하였을 것이요、독일군에 의한 모쓰크바 강점과 독일군과 분란군에 의한 레닌그라드 강점이 수행되었을 것이고、쏘련은 장기적 방어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이것은 자연히 히틀러가 영국、에지프트 및 스에즈 운하를 강점할 수 있게 하였을 것이며、원동에 있어서도 파시스트 침략자들에게 리롭게 정세가 현저히 착잡하게 되었을 것

이다。 결국 제二차 세계대전은 수개년 늦어서 종결되었을 것이요、一九四五년에 종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않은 것은 「동부」 전선이 독일 군대가 동부로 이동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로 되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조국전쟁 전야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볼쉐위끼당과 정부의 활동은 쏘베트인민을 레닌—쓰딸린의 위대한 사상으로、공산주의적 교양을 주는 사업과 불가분으로 관련되었다。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교양、귀한 쏘베트인테리겐차의 교양에 대한 과업을 성과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볼쉐위끼당은 전쟁 전야에 당원 및 첫번째로 당의 지도적 간부의 사상적 무기를 강화하는 로선을 취하였다。 一九三八년 十월에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가 세상에 나왔다。

이것은 볼쉐위끼당과 전체 쏘베트국가의 사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사건이었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의 저자는 쓰딸린동지이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가 발행됨에 따라 당은 위력한 사상적 무기를 얻었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가 세상에 나온 뒤를 이어 一九三八년 十一월에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는「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발행에 관련한 당 선전사업 설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는 선전사업 설정에 있어서의 결점이 지적되었으며 맑쓰—레닌주의 선전의 형식과 방법의 재과업이 규정되었다。맑쓰—레닌주의 선전사업은 높은 리론적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끼)략사」의 출판은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인민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위력한 사상적 정치적 앙양의 단서를 주었으며 쓰딸린동지에 의하여 一九三七년에 제기된「볼쉐위즘을 정통하자」라는 구호를 실현하는 단서를 이루었다。맑쓰—레닌주의 사상을 선전하면서 당은 간부들이 복잡한 정세에서 정당하게 방위(方位)를 정할 것을 가르쳤으며 쏘베트 사람들에게 열렬한 쏘베트애국정신과 쏘베트조국에 대한 무한한 희생적 헌신성、성격의 견고성 및 어떠한 장애물이나 곤난도 극복할 수 없는 능력을 교양주었다。

당의 거대한 교양사업은 쏘베트인민속에 통일성과 견인성을 단련시키었다。그 통일성과 견인성은 후에 위대한 조국전쟁의 곤난한 조건하에서 발휘되었다。

× × ×

볼쉐위끼당과 쏘베트 정부는 위대한 조국전쟁 전야에 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현명한 외교정책은 평화적 휴식의 연장과 침략자를 반대하

는 국가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히틀러 독일의 정치적 고립화의 가능성과 쏘베트동맹을 선두로한 위력한 반파시스트 련계의 조성을 준비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인 정책、기술적 경제적 토대의 발전의 결과 쏘베트국가의 기술적 경제적 독립성이 보장되었으며 전쟁수행을 위한 필요되는 물질적 전제가 조성되었다。

쓰딸린동지、볼쉐위끼당 및 전체 쏘베트인민의 배려로서 현대전을 수행하고 승리를 달성하는 조건에 완전히 합당한 그러한 쏘베트군대와 해군이 보장되었다。

사회주의의 승리、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의 교양사업을 토대로 하고 쏘베트국가 제 민족의 사상적 정치적 통일성과 친선이 조성되었으며 견고하고 우수히 조직된 후방이 조성되었다。

그러한 중요한 총화를 가지고 쏘베트동맹은 위대한 조국전쟁에 들어섰다。그 총화는 히틀러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하는 쏘베트동맹의 승리적인 위대한 조국전쟁이 발전되고 완성되는 로대로 되었다。

조국전쟁의 조건하에서 볼쉐위끼당은 쏘베트조국의 명예와 자유와 독립을 위한、파시스트 침략자들의 격멸을 위한 쏘베트애국자들의 투쟁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었다。볼쉐위끼당과、그의 수령 쓰딸린동지는 모든 곤난과 시련을 통해서 쏘베트인민을 적에 대한 완전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지금 전후시기에 있어서 레닌—쓰딸린당의 모든 사업은 쏘베트국가의 경제적 위력을 일층 제고하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주는 과업을 해결하며、사회주의국가를 백방으로 강화하며、부단히 위대한 쏘베트조국의 국방력을 향상시키며、전세계에서의 평화사업을 강화하는 데로 향해지고 있다。이제 과업의 해결을 통해서 제국주의 진영의 모든 군사적 모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놓여 있으며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 놓여 있는 것이다。

(「쓰딸린쓰끼보인」一九四八년도 一七一·一七二·一七三호에서)

당생활경험

인민경제계획 협조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북조선로동당 흥남시당부 위원장 정 가 원

공화국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축성하는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성과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흥남시당단체는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의 정확한 결정과 이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도당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시당위원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토이하고 생산행정에서 나타난 제반 경향을 시정하며 성과에 자만자족하는 경향들과의 사상투쟁을 강경히 전개하여 당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보장하도록 당단체를 강화하는데 그 중심을 두었다.

당단체는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그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는 과학적인 생산조직과 합리적인 로력조직에 주의를 집중하였으며, 로동자들의 생산행정에서 체득한 실질적 경험과 창발성을 널리 대중화하는 한편 군중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을 정치적으로 보장하게끔 하였으며, 당간부들의 사업지도에 있어서 당세포가 생산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위에서 해결하였으며 동시에 초급당단체들의 사업수준을 제고하는데 당적 지도의 중심을 두었다.

또한 시당단체는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과 핵심당원들의 사업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직업동맹의 역할을 대중속에서 제고하여 광범한 증산경쟁운동을 조직 지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광범한 군중적 운동과 함께 정확한 도급제 실시와 적기한 표창제로써 그들에게 생산에 대한 모범적 열성과 창조적 활동을 제고하였으며 승리에 대한 굳은 자신심과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적 정신으로 훈련하였다.

시당단체는 이러한 기초위에서 군중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로동자들로 하여금 우리당의 구호에 호응궐기케 하였으며 자발적 열성으로써 광범히 증산경쟁운동에 참가하게끔 복작하였다.

이와 같은 운동의 성과는 막대한 것이 있었다. 五대공장을 위시한 국영기업소들에서의 상반년도 계획숫자 달성을 보면 비료공장은 一○六%로, 서호 수산사업소에서는 고등어 생산을 一四○·五%로, 룡성공장은 一○七%로, 본궁공장은 一·四분기에 七三·二%로

부터 二·四분기에 一○七%로 국가계획을 초과달성하였으며 화약공장에서는 一·四분기 七七·九%로부터 二·四분기에 一○三·八%로 국가계획을 초과달성하는등으로 금년도 상반년 계획을 흥남시당 산하 전체 생산부문에서 초과 완수하였다.

이는 시당단체가 당 정치적 내용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경제계획을 협조」하라는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과 도당부의 적절한 지도에 의하여 얻은 성과인 것이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 시기까지 흥남 시당단체는 적지않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부 당지도일꾼들이 당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당적 계급적 책임성이 희박한데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당사업을 지도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당단체들에서 당원들의 창발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였으며 당내 민주주의는 약화되였던 것이다. 결과에 부분적 세포위원장들은 직접 증산사업에서 리탈하여 사무실에 앉아 있게 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계획을 협조함에 있어서 당단체를 발동함으로써 성과를 거둘데 대한 주의는 적게 돌리고 행정과더측을 대행하여 자연하는 엄중한 경향들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흥남시당단체는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와 도당 제六차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시당 제六차위원회를 소집하고 당내부사업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의 토대위에서 시당단체 앞에 제기되는 경제계획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토의하고 하급당단체를 지도한 결과 적지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흥남시당단체는 이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데 있어서 승리에 대한 확신성의 기초를 항상 로동자들의 각성된 애국적 열성에 두었으며, 당과 군중과의 튼튼한 련계에 두었으며, 기술적 창의창안과 기술수준 향상에 두었다. 다른 편으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부터 분조의 역할을 제고하며 초급당부의 지도적 수준제고와 우수한 당간부들을 분세포 지도에 정상적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켰으며 그 경험을 제때에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례로써 본궁공장 카-바이트 五분세포를 지도한 시당 지도원동무는 그 세포의 사업정형을 직접으로 살펴보며 그 세포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세포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체 당원들에게 구체적 분공을 주게 하는 동시에 매개 당원들에게 분공받은 자기 과업을 집행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분공위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납득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성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세포위원회의 역할을 높게 놀수 있는 방법적인 지도를 하였던 결과 이 세포는 당의 중심적 고리를 계획적 기준량 통과에 두었다.

그리하여 세포위원장동무는 관리측을 적극 협조하여 교대 인계를 철저히 할것과 동시에 작업일지를 정확히 기입하며 안전조작법을 엄수함으로써 기준생산을 통과함에 대한 제도를 세우고 열성당원들이 솔선하여 기계에 자기의 명칭을 붙여 그 기계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며 그 기계계획을 一○○%로 보장할 것을 맹세하여 당원이 선두에 섬으로써 비당원 열성자들과 공장내 전체 로동자들에게 증산 의욕을 고무시키는 사회적 운동을 더욱

광범히 벌어지게 하였다。

결과에 생산은 점차 제고되어 八월의 一〇五%로부터 九월에는 一一五%、三·四분기 생산은 九월 二十일에 一〇〇%로 완수하였다。 출근률은 九五%에서 九八%로 제고되였다。

이와 같이 당세포와 당원들의 솔선적 궐기와 모범적 투쟁으로써 전체 군중을 증산투쟁에로 인입하는 전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당과 군중과의 련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 우리 당의 신임은 군중속에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또한 당원들의 당성을 더욱 제고시킴과 동시에 초급당부의 역할을 질적으로 제고하였다。

초급당부는 이 분세포 지도에 열성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그 실적과 조건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케 한 결과로 시당관하 세포 분세포들에서 자기 계획서에 의거한 개별적 분공을 당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실천케 하였다。

례로써 비료구역당 유산 부문 초급당부 지도 일군들은 항상 분세포에 나려가서 그、세포의 사업정형을 직접 살펴보며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조를준 결과에 그 세포는 자기의 활경과 정형에 따라서 출계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생산협의회 및 작업 검토회에 직접 참가하여 제기되는 애로들을 즉시 해결하여 주는 사업과 매주 一회 이상 경험 교환회를 초급당부가 직접 조직하여 새로운 방법들을 제기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열성을 더욱 제고시켰던 것이다。

특히 핵심당원들의 역할에 대한 방조와 조건을 적극 보장하여 주어 그들의 핵심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고 있다。 이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증산에 무한히 고무시켜 항상 적과의 투쟁적 태세에서 애국적 열성과 창의성을 더욱 발휘케 하였다。

또한 쏘련기술자의 기술적 방조를 접수하여 유산부내 로력조직을 四조 三교대로 개편하였던 결과는 三一二명의 로력을 감소하고도 매일매월계획을 초과하였다。

이제 유산부내 생산실적을 보면 三월 一〇八·五%、四월 一一〇%、五월 一〇五·七%、六월 一一五%、七월 一四二%、八월 一四二·二%로 매월 자기 계획을 초과달성케 함으로써 三·四분기 비료생산을 九월 十九일에 一〇〇·二%로 초과완수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시당안에서는 이 경험을 본궁공장에 제때에 서붕시켜 카ー바이트 부문 로력을 八七명이나 축소하고 생산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하였다。

또한 시당단체는 관리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맡은 관리행정사업에 능수가 되게끔 추동하였다。

시당단체는 광범한 군중조직인 직맹단체를 발동시켜 경제계획을 보장케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되는 증산경쟁운동을 조직 지도하였다。

경쟁운동은 비료공장을 선두로 공장의 모범로동자 창조운동으로부터 전반적 증산경쟁에로、또 개인맞세로부터 부리카ー다운동에로、부리카ー다 운동으로부터 전 공장 증산경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운동에 당원이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시당단체는 직맹을 통하여 五·一절과 八·一五기념등의 증산경쟁운동을 정치적 깜빠니야와 결부시켜 군중들의 정치적 자각을 제고하는 군중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적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경쟁운동은 많은 부리카ー다에 많은 로동자들이 자진하여 자기 개인의 명칭을 붙여 가면서 호상간에 경쟁을 전개하는 운동으로써 자기 부리카ー다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개되였다。

이와 같이 전 군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운동을 비료공장만 하여도 八월중 자기계획을 능가한 부리카ー다가 四十四개나 된다。 그중 비료공장 아ー크가ー봉 장해운동누의 부리카ー다에서는 년간계획을 八월 十三일에 二〇〇%로 완수하였으며、주강눌 생산은 八월 十七일에 一〇一·九%、단조물 생산은 九월 十四일에 각각 년간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증산투쟁을 통하여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의 창안과 모범로동자들이 속출되고 있다。 一九四九년 상반년만 하여도 창의 고안과 모범로동자로서 표창받은 자가 실로 八一〇여에 달하며 그중 공로메달을 수여받는 자가 二七명이나 되는바 우리당원이 九〇%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산투쟁을 통하여 기술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쟁에 모든 력량을 경주하였던 결과 금년도 상반년만 하여도 기능자로서 기술자로 승격한 자가 一一九여이나 되며 로동자로서 기능자로 승격한 자는 실로 六、七六五명이나 된다。

로동자 기술자들의 높은 기술 습득과 생산력 발전은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어 물질 문화 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하게 하였다。

또한 시당단체는 가두 농촌 군중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시내 전체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일층 제고함에 당적 고려를 경주하였다。 결과에 그들의 애국적 운동으로 공장내 채자룰을 일소하였으며 비료 반출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의 모든 성과들은 시당단체가 당단체를 강화함으로써 경제계획을 협조하다는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이루어진 성과물이다。

이러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전체 로동자들을 당 주위에 굳게 집결시킴과 동시에 전체 인민들속에서 전 당원들이 영예로운 북조선 로동당원의 칭호를 높이 들고 항상 적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며 자기 배렬을 강화하여 금년도 류안비료 계획생산 四만톤을 초과 완수하는 투쟁에 광범한 군중들을 고무 추동시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도록 우리 당단체는 보장할 것이다。」

국제보도

신 중국 탄생 감언(感言)

정 설 송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는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중국 인민은 자기들의 헌장(憲章)을 제정하였으며 중국 인민은 자기들의 중앙정부를 선거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부와 국가(國歌) 및 년호를 결정하였으며 국기를 제정하고 九월 三十일에 폐막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에는 력사적인 신 기원이 시작되었으니 중국은 이로부터 독립과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부강한 새 길을 걷게 되었다. 동시에 이는 전세계 진보인류들이 세계평화 민주사업과 인류의 리상적인 미래를 위하여 진행하는 위대한 투쟁에 있어서 영원히 소멸될 수 없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공헌인 것이다. 중국인민들의 이 위대한 승리는 근 백여년에 걸쳐 무수한 혁명적 선렬들의 뒤를 따라 희생적 분투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二十八년간의 영웅적인 투쟁과 중국인민해방군의 二十二년간의 악전고투로써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백여년 이래 중국인민은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一八四〇년의 아편전쟁으로부터 태평천국(太平天國)운동, 중일전쟁, 두술정변(戊戌政變), 의화단(義和團)운동을 통하여 一九一一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두차에 걸친 혁명운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만 一九一七년 로씨야의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있어서 선진적인 중국사람들은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서 거主를 찾아 이것을 중국혁명의 실제에 호상 결합하여 중국공산당이 탄생(誕生)된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서만이 중국혁명은 비로소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탄생되면 그때로부터 중국인민민주혁명을 령도하였다. 二十八년간 중국공산당은 영명한 모주석의 령도와 전당의 악전고투에 의거하였으며 당의 실패와 성공, 퇴각과 전진, 축소와 발전, 또한 풍부한 경험으로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결론은 곧 이미 一九三九년 十월 四일 모주석이 『공산당인』 창간호 발간사에서 지적한 『통일전선 두장투쟁 당의 건설은 우리당이 중국혁명중에 있어서의 세가지의 기본문제이며 중국공산당이 중국혁명에 있어서 적을 승리할 수 있는 세개의 중요한 보물(法寶)—인 것이다. 一九三九년 이전 특히 이후에 있어서 모주석은 전당을 령도하여 이 三대 보물을 정확하게 운용하고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통일전선에 대하여서는 一九二五—二七년의 대혁명시기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은 이를 극력히 강조하였다. 이에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찬동을 얻어 국민당의 개조를 방조하여 국공합작은

북벌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통일전선은 장개석의 배신(背信)으로 말미암아 파탄되고 말았다. 十년간의 토지혁명 시기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은 농민에 의거하고, 도시 소부르조아지와 단결하여 여전히 노력하여 항일시기에 이르러 제二차 국공합작을 하기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장개석은 항일전쟁 시기에 있어서 또다시 三차에 걸쳐 반공을 기도하여 통일전선을 파탄하려고 하였으나 전체인민들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항전이 결속된 이후에 있어서도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모주석은 몸소 중경에 가서 국민당 반동파와 회담을 진행하여 쌍십협정(双十協定)에 서명하고 一九四九년 一월에 국민당 반동파 및 기타 인사들과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반동파 및 이들 지지하는 미국반동파는 그들이 직접 서명한 모든 협정을 파기하고 전국적 규모의 반혁명전쟁을 도발하여 분렬적이며 독재적인 소위 『국민대회』를 소집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전부터 견결히 주장하여 오던 혁명통일전선을 견지함으로써 미국과 장개석의 중국식민지화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一九四八년 五월 一일에 시국에 대한 주장을 발표하여 반동분자가 참가하지 않는 새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련합정부를 수립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는 드디어 전국인민 및 각 민주당파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정치협상회의가 개막될 때까지 불과 一년 四개월만에 중국정세의 발전은 상상하던 것과는 대단히 속하여져 인민해방군의 신속한 승리적 진군으로써 전중국의 우수한 인물들은 해방구에로 즉 중공 중앙소재지인 북경으로 운집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서 전중국민주력량은 대대적으로 단결되어 작년 五월 一일에 호소하였던 꽃은 드디어 오늘의 승리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번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은 즉 중공이 종전부터 주장하여 오던 민주통일전선의 조직상에 있어서의 최후 형성이며 또한 전국인민의 공선의 혁명적 대단결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통일전선의 최후형성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무장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一九二五년 북벌전쟁으로부터 중국공산당은 이미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또한 十년간의 내전에 있어서 무장투쟁은 당의 기본투쟁의 형식으로 되었다. 무장투쟁으로써 농민의 토지혁명을 보장하였으며 무장투쟁으로 자기 인민정권의 근거지를 수립하였으며 또 무장투쟁으로써 반제 반봉건적 인민민주혁명을 견지하여 항일전쟁 시기까지 八년간의 유격전을 하여 왔다. 一바로 중국공산당이 항일전쟁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무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차에 걸친 국민당의 투항위기와 三차의 흑심한 반공을 분쇄하고 항일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이다. 특히 三년간의 해방전쟁중에 있어서 영웅하고도 강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의 무기로써 미국이 원조하는 국민당 반동정부의 수백만 군대의 진공에 전승하였으며 자기로 하여금 반공(反攻)과 진공으로 들어서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러한 기초위에서 민주통일전선의 최후 형성과 인민공화국의 탄생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중국인민의 무장은 이러한 형세를 창조하였으며 또한 二十二년 이래의 이러한

인민의 강유력한 무장력은 통일전선의 유력한 지주(支柱)로 되었으며 또한 금후에 있어서 재중국의 강력한 보위자로 되는 것이다。

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은 중국공산당 二十八년간에 있어서 일관불변의 정치로선이다。그러므로 당의 건설과정도 역시 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의 정확한 처리과정이다。二十八년간 중국공산당은 모주석의 령도하에서 복잡하고 곤난한 판두에 부닥칠때마다 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을 정확히 처리하였으므로 당건설은 볼쉐위끼화에로 공고히 발전하였다。또한 당건설이 바로 볼쉐위끼화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당정치로선을 정확히 처리하며 더욱 통일전선과 무장투쟁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였던것이다。그러므로 모주석은『통일전선과 무장투쟁은 적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두개의 기본무기이다。통일전선은 무장투쟁의 통일전선이며 당조직은 이 두개의 무기를 잡고 적군진지에 돌입하여 함락시키는 영용한 전사이다。이것이 곧 三자의 호상관계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과 중앙인민정부의 수립은 중국공산당 二十八년간의 정치로선의 승리의 결과이며 이 정치로선을 시종일관하게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한 모택동사상의 빛나는 성과를 볼 수 있다。또한 모택동사상의 기초인『방지사해이개준(放之四海而皆準)』(백발백중—다시말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뜻)의 맑쓰—레닌주의의 이 보편적 진리가 로씨야 十월혁명과 반파쑈전쟁 승리 이후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번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은 신중국의 정권기구 군사제도 및 경제정책의 총원칙을 규정하여 주었다。이것은 전 중국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집중적 표현이며 지금까지의 혁명투쟁 경험의 총화인 것이다。그는 중국인민에게 대범위의 민주권리를 보장하였으며 또한 사람마다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몇개의 의무를 규정하였다。이것은 본래 중국공산당의 최저강령으로서 지금 전국인민들에게 접수되어 신중국이 신민주주의 계단에 있어서의 시정방침으로 되였다。

공동강령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국체』는 인민민주독재로 규정되어 있다。즉 중국의 로동계급、농민계급、소부르조아지、민족부르조아지 및 기타 애국적 민주분자들이 련합하여 공동적으로 제국주의、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정권인 것이다。

이 정권의 기초는 로농동맹을 주체로 한것으로서 그의 령도권은 로동계급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다。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정체』는 즉 정권의 구성형식은 민주집중제로 규정되어 있으니 그의 구체적 표현은 인민대표대회제의 정부인 것이다。

즉 인민이 국가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인민의 보선으로써 산생되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 각급 인민정부가 각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된다。국가최고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중앙인민정부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 된다。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은 부르조아지 구민주주의의 三권분립제와는 같지 않다。구민주주의의 의회제도는 부르조아지 가운데서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일부분의 소수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소위 반대파는 의회연단에서 헛소리만 하게 된다。이리하여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자는 이 춧대를 잡고 통치에 유리한 일을 한다。이것은 착취계급이 광대한 인민들 앞에서 자기 사복을 채우며 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롱락하는 한 수단의 민주제도인 것이다。

사법에 있어서 명의상으로는 독립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실천을 틀어쥐고 있는 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다。중국의 정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필요없다。오직 그는 진정하게 인민의 의사를 집결시키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그는 명실 그대로 일체권리를 인민대표대회와 대회 폐막후의 중앙인민정부에 집결된다。모주석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 중앙인민정부의 주석이니 그는 곧 전국인민과 중앙인민정부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국 일체 립법 행정 사법 군사등등을 집중령도(集中領導)하는 최고령도자이다。이는 명의상에 있어서도 이러하며 또 실제권력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하다。

중국인민공화국의 정권은 로동계급을 그 령도로 하여 로농의 동맹을 주체로한 민주집중제이다。이 원칙상에서 말하면 그는 쏘베트의 사회주의 정권과 동구라파 각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인민민주독재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같은 한 형식으로서 세계 반제국주의 진영에 속해 있다는 이 점은 서로 동일한 것이다。그러나 중국의 경제기초가 너무 락후하였기 때문에 혁명 성질상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자산계급성 민주혁명이다。때문에 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하여 타격이나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합작과 개조하는 것이니 이점은 동구라파 인민민주국가들이 지금바로 실현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같지 않는것이다。

정치협상회의 폐막시에 전중국인민에게 또다시『중국인민은 자기의 중앙정부를 가지었다。이 정부는 앞으로 공동강령에 의거하여 전중국 경내에서 인민민주독재를 실현할 것이다。그는 인민해방군을 지휘하고 혁명전쟁을 끝까지 진행하여 남은 적군을 소멸하고 전국령토를 해방하여 중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사업을 완성할 것이다。그는 앞으로 전중국 인민을 령도하여 대규모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진행하여 과거 중국에 남겨놓은 빈곤과 무매를 숙청할 것이다。그는 반혁명분자들의 모든 음모활동을 진압할 것이다。그는 인민의 해 륙 공군을 강화하여 국방을 공고히하며 령토주권의 완정을 보위할 것이다。그는 평화와 자유를 애호하는 모든 국가와 민족과 인민들과 련합할 것인바 먼저 쏘련과 제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련합하여 자신의 맹우들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 음모를 공동적으로 반대하고 세계의 영구한 평화를 쟁취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들어라！이것은 장엄하고도 힘찬 외침이니 그는 세계의 매개 선량한 사람들을 고무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민과 혁명을 반대하는 놈들을 떨게 하고 있다。

보라！새 중국은 우리앞에 엄연히 나섰다。

(一九四九、十、十)

사회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선 인민민주주의 제국

리 문 일

영웅적 쏘련군대의 신격에 의하여 제二차세계대전이 승리로 종결된 후 인민들은 과거 생활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로서는 락후하였던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 새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가 발생한 그것이다.

「발칸은 아직도 암흑 왕국으로 남아있다. 五천만의 인간들은 형용할 수 없는 빈궁과 기근 민족적 증오심과 민족적 분쟁속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제二차세계대전 전에 동구라파를 유랑한 불란서 박사 모베는 기술하였다.

그러나 제二차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이와 같이 락후하였던 동남구라파 제국에 사회발전의 새로운 형태인 인민민주주의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구라파 국가들에서는 이미 봉건제도가 숙청된지 오랬다. 그러나 동남구라파 제국에는 봉건제도의 잔재가 독일의 패망전까지도 경제 및 사회생활에서 근본적 역할을 놀고 있었으며 그의 역할은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각각 상이하였다.

동남구라파 제국가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잔재는 그 나라들에서의 반동세력의 지반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봉건제도의 잔재를 숙청하는 것이 동남구라파 제국의 민주개혁에서 결정적 의의가 있었다.

민주개혁의 근본적 내용으로 되는 토지개혁을 단시일 내에 실시하였는바 一년도 되지 못하는 동안에 파란에서는 二〇〇만헥따르 이상, 항가리에서는 一七〇만 헥따르 이상, 루―마니아에서는 一二〇만 헥따르 이상의 토지를 농민에게 분여하였다. 이 사실은 一九一九―一九二二년간에 동구라파 여러나라에서 실시된 토지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 농업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토지개혁은 그 나라 경제 및 정치 생활에 있어서 첫 장애로 되는 봉건제도의 잔재를 소멸시켰으며 로동계급의 지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할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와 함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인민경제에서 국가부문을 강화하는 사회주의경제의 요소로 되는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제二차세계대전 전까지 중요 산업부문이 민족자본가에게는 물론 외국자본에 많이 장악되어 있었다. 루―마니아의 전 민족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철광, 석탄 같은 루―마니아인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에 속하여있었는바 그중 「스탄다드·오일」회사와 「로얄·댓취·쉘」회사는 루―마니아 석유의 주인으로 되어 있었고 「쉬베이더·코다」회사와 「왓개스」화사는 철광주인

으로 되어 있었고 기타 외국자본은 트란실바니아의 금광업, 불가리아의 석유산업을 통제하였다.

보는 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 제국은 봉건제도의 잔재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에까지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동남구라파 제국의 발전은 봉건잔재의 억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억제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국유화가 실시된 현재에 와서는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주요산업부문, 교통운수, 체신, 은행등이 국유화되었고 민족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이 숙청되었고 외국자본의 영향이 극히 미약하게 되었다. 물론 산업국유화의 실시는 각 국가의 력사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시기와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이미 一九四五년 十월에 대규모의 산업, 은행, 보험회사등을 국유화하여 七五%의 생산능력을 가지는 산업부문을 국가소유로 만들었다.

파란에서는 一九四六년 一월에 一교대에 五十명 이상의 로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기업소를 전부 국유화하였는데 一九四六년말 현재로 국유화된 산업비중은 전 산업의 八〇% 이상에 달하였다.

항가리에서는 산업국유화가 여러 계단에 걸쳐 실시되었다. 즉 一九四六년 五월에는 탄광이 국유화되었고 동년 八월에는 발전소, 十二월에는 七만명 이상의 로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三개 주식회사가 국유화되었고 一九四八년 二월에는 보―키사이트광산과 알류미늄업, 三월에 와서는 백명 이상의 로동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소가 국유화되었다.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군주제가 폐지된 후 一九四八년 六월에 이르러 대산업과 은행등이 국유화되었다.

주요산업부문에 대한 국유화 실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경제 제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계획적 경제를 수립할 수 있으며 락후된 나라를 급속도로 공업국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다수의 동남구라파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二―三개년 인민경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계획에 기초한 생산력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은 부단히 향상되고 있다.

산업국유화, 토지개혁, 계획적 인민경제 수립은 착취계급의 경제력 및 정치적 기반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어떤 사회변혁을 물론하고 그의 주되는 문제는 주권에 대한 문제라고 일찍기 레닌은 말하였다. 동남구라파 제국의 로동계급과 농민계급은 부르죠아와 지주계급에 대하여 결정적 공격을 전개하면서 파시즘과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성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여왔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주권은 자기의 사명을 민족의 이익보다 높이 평가하는 자본가와 지주들을 제외하고는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광범한 민주전선체에 장악되여 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민주개혁은 [illegible] 실시된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 사이의 [illegible]에서 실시되었다.

[illegible] 패망된 후의 첫시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정당들중 일부

정당들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부르죠아계급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 인민앞에 폭로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반동적 정당의 뒤를 따르지 않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가장 꾸준하게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따르게 되였다.

공산당의 주위에는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여 농민계급과 기타 중간층들이 집결되기 시작하였나. 그 결과에 공산당은 어떤 정당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당 좌익층과 련합하게 되였다. 합당 사업은 처음으로 루─마니아에서 시작되어 다음으로 항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파란등에서 진행되였다. 이와 같은 합당사업이 진행된 결과에 로동계급의 립장과 그의 지도적 역활은 일층 강화되였다. 로동계급의 립장과 지도적 역활은 이로써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토지개혁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농민계급을 로동계급의 튼튼한 동맹자로 만들어 놓은 결과에 로동계급의 립장은 더욱 강화되였다. 로농동맹의 결성은 동남구라파 제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승리의 조건을 지어 주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경제 및 정치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사변은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변천에서 일어난 사변과 다름없다. 인민민주주의국가자 수립된 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에 의하여 수립된 쏘베트동맹과 마찬가지로 부르죠아나 지주계급은 정치적 주권을 상실하였고 국가주권은 로동자와 농민을 핵심으로한 근로대중이 장악하였고 산업은 국유화되였고 지주의 토지는 농민에게 분여되였다. 인민주권은 자기의 프로그람을 실시하기 위하여 튼튼하고도 믿을 수 있는 국가제도를 새로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 국가제도는 근본적으로 정비되였다. 무력은 재사회제도를 사수할 수 있는 튼튼한 장벽으로 되였으며 국내 치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안기관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전에 상층계급에 복무하던 일군들이 국가기관에 남아 있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인민주권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있으며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실시에서 자기의 자산을 몰수당한 이전 유산계급과 관리들은 외래의 반동세력과 야합하여 온갖 반동음모를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주권은 외래 반동세력과 야합하여 부르죠아 지주독재를 회복하고 인민을 제국주의 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 이전 착취계급의 반항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국가주권은 十월혁명 이후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행하던 직능과 본질적으로 다름없는 직능을 수행하고 있다.

승리를 쟁취한 프로레타리아트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억압하는 것을 첫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레닌은 가르쳤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튼튼하고도 결정적인 국가주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말하기를 『프로레타리아 독재란 것은 자본을 전복하며 완전한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가 지도적 역활을 수행하는 로동계급과 농민근로대중의 계급적 동맹의 특별한 형태이다』라고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계급적 기초 즉 인민의 절대 다수인 로동자 농민대중 인테리 및 기

타 근로대중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수립된 국가주권도 역시 로동계급을 핵심으로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기초로 하여가지고 전복된 착취계급의 온갖 반항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발전의 길로 국가를 인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인민민주주의 제국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길에 들어섰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 요소(국유화된 산업부문과 협동조합)와 소상품 경제요소(농업과 수공업)와 부르죠아 경제요소(도시상업 부르죠아와 농촌 소지주)로 구성되였는데 그중 사회주의적 요소가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이와 같이 인민민주주의 제국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경제토대가 구축되였으며 대내 및 대외무역이 주로 국가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경제구조와 계급구성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이 승리한후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던 때의 쏘베트동맹과 별로 다름이 없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제도는 국가를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로 이전시키는 직능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나. 다시말하면 인민민주주의 제도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정치형태로 되는 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경험과 인민대중의 경험은 정치적 기구와 투쟁방법의 새 형태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무진장으로 되어있다』고 일찌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레닌은 말하기를 『물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는 극히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적 형태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본질은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 하나뿐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시기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치적 형태가 수행하는 역활은 본질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수행하는 직능과 다름없을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로동계급이 정치적 주권의 최고형태로서 쏘베트가 현존하여 있다 하여 국가주권의 다른 형태가 없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것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거쳐서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는 로동계급의 정치적 형태인 쏘베트를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직능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직능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二차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발전 경험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특수한 력사적 원인과 환경에 의하여 두가지 형태 즉 쏘베트형태와 인민민주주의형태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시하여 주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국가제도는 정치 및 경제생활 각 분야에서 로동계급이 지도적 역활을 노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형태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나.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길은 그 나라의 력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회주의로의 과도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맹렬한 계급투쟁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동남구라파 인민민주주의 제국이 사

회주의로 과도하는 모든 경험은 현재 국제환경에서 쏘베트동맹을 수위로 한 민주진영 특히 쏘베트동맹과의 튼튼한 동맹과 원조없이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쏘베트국가는 자본주의 포위속에서 한 나라 안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었지만 인민민주주의 제국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성벽으로 되는 쏘베트동맹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쏘베트동맹은 인민민주주의 제국을 팟쑈기반과 민족부르조아와 지주의 착취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외래 침략세력으로부터 자국을 옹호할 수 있는 아낌없는 원조를 주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은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을 성과있게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결과에 사회주의경제요소가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원만히 만들어 주었다。 현재 인민민주주의 제국앞에는 농업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요소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후에 빈농、중농층이 로동계급의 동맹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농촌경제 문제를 사회주의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농민계급은 아직도 사유제도에 기초한 소부르조아형태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찌또도배들은 마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은 듯이 소지주계급을 옹호하여 나서고 있다。 찌또반역도당들은 사회주의를 도시에만 건설하면 농촌은 자연히 도시를 따라 온다고 놀라운 「학설」을 내여 놓고있다。 레닌은 뜨로쯔끼의 온갖 반역적 행동에 대하여 그를 유다・뜨로쯔끼라고 이름하였다。 이런 반역적 행동이 현재 찌또도당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찌또반역도당들을 유다・찌또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유다・찌또도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원수인 외래 미영제국주의 반동세력과 국내 지주계급의 비호를 받아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망상하고 있다。

찌또반역도당은 쏘베트동맹과 기타 인민민주주의제국의 원쑤로서 미영제국주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신뢰를 받았으며 또한 인민을 해방투쟁으로 총궐기시킨 유—고슬라비아의 진정한 공산당원들과 전체 애국적 인민들은 유다・찌또도당을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쏘베트에서의 사회주의건설 경험은 국제프로레타리아에게 대하여 커다란 교훈으로 되는 것이다。 쏘베트동맹은 사회주의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사회로 과도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쏘베트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이와 같은 쏘베트동맹의 사회주의건설 경험과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대한 아낌없는 쏘베트동맹의 원조는 공산주의 세기인 二十세기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끝없는 공헌으로 될 것이다。

요시다 팟쑈정책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

송 성 철

一九四九년 一월 二十三일 실시된 일본의 전후 제三차 중의원의원 총선거는 일본의 계급적 력량관계를 더 한층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의회내 세력배치와 아울러 일본의 정치정세를 변경시켰다。

이 선거 실시에 있어서 일본의 민주세력의 진출을 조해하기 위하여 맥아더와 요시다(吉田) 반동정부는 미국헌병과 일본무장경관들을 동원하여 공산당원 립후보자들을 비법적으로 검거투옥하며、기관지에 의한 선거선전공작을 탄압하였으며、아오모리(青森)、나가노(長野)량 현에서 비행기로 인민들을 위협하며 반공선전삐라를 산포하는 등 온갖 수단의 파쑈적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공산당은 맥아더와 요시다반동정부 및 반동정당들의 이와 같은 테로 간섭 방해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진보적 근로인민 三백여만의 지지를 받고 四명으로부터 일약 三十五명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는 투표수에 있어서 一九四七년도 선거에 비하여 三배가 되는 것이며 반동탄압의 조건하에서도 갈수록 대중의 지지가 증대되는데 그 의의가 큰 것이다。 一월선거 이후 일본 인민들 앞에 제기된 중심 문제는 일본을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하고 군사기지화하는 민주자유당을 위하느냐、일본의 독립과 민주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공산당에 따라가느냐의 두가지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였다。

의회의 반수를 차지한 민주자유당은 맥아더의 지시에 의하여 제三차 요시다 내각을 조직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주자유당은 일본의 대지주、독점자본가、침략적 구국주의 제국주의 팟쑈분자들의 재벌을 규합한 극우 반동정당이며 그의 수괴 요시다는 전후 벌써 제三번에 걸쳐 일본의 정권을 장악하고 미제의 충실한 주구로서 일본을 식민지 노예화시키며 군사기지화 재무장화 정책을 감행하여 나왔다。

금번 二월의 내각조직에 있어서 요시다는 로동계급의 권위 즉 일본공산당에 대한 투쟁이 그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이라고 폭언하였다。

일본 공산당 도꾸다(德田) 서기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三차 요시다 내각은 「일본을 식민지화하고 일본 인민을 노예화하여 미국독점자본과 일본 매판 독점자본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미제가 지시한 일본경제부흥안정계획(日本經濟復興安定計畫) 및 경제 九원칙을 실시하는 것과 일본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시다 반동정부는 그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각성립과 함께 급속한 템포로써 파쑈화의 길로 걸어갔다。

二월 二十三일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성명서에는 「요시다내각은 소위 반일활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을 개악하자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민

주구이들 파괴하기 위한 흉책이고 또 파시즘에의 길에 그 일보를 전진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정책은 국가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제三차 요시다내각의 팟쇼적 본질을 폭로하였다。

× × ×

일본의 一九四九—五〇년 재정년도의 예산편성은 맥아더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였다。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작성한 일본경제부흥안정계획의 실현을 촉진시키며 그 실현을 위한 경제九원칙의 실시를 감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맥아더의 경제고문 월가 대리인 『뜻치』가 작성한 일반회계 七천여억원 륙별회계 二조(兆)이억원에 달하는 기액의 예산안을 요시다반동정부에 지시하고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였다。

이 식민지적 예산의 일반회계 七천여억원중 그 수입면의 약 九一%가 대중과세로써 충당되고 있는 반면에 그 지출면에 있어서는 一천二백五十이억의 압도적 부분을 미군점령비용으로, 일본인민이 부담하는 것이며 미제들은 이것을 비행장 해군기지 기타 일본군사기지 재무장화 정책에 소비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비하는 물자는 전부 공정가격, 혹은 그 이하로써 라고 말하고 있음으로, 실질가격으로써는 그 수배의 기액에 달하는 것이다。

다음 一천五백여억원은 수입보급금이라는 명목밑에 국고로부터 일본의 매관적 독점가들에게 지출되고 미국 생산잉여품 짜어진 밀가루, 과자, 설탕등 일본인민이 요구치 않는 물품을 딸라당 三백六十원 기준의 고등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근로인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판매하고 이러한 망국적 무역의 독점을 통하여 일본의 매판적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보장하면서 미독점자본가들은 막대한 리익을 일본인민으로부터 수탈해가고 있다。또 일반 예산지출면의 약 三〇%를 점유하는 二천二十억원은 『가격조정비』라는 명목으로써 독점자본에 무상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중요산업을 한줌도 되지 않는 독점자본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소위 반동적 집중생산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가격조정비(價格調整費)를 철강에 四〇%, 석탄에 三六%, 잔액은 비료, 강(鋼), 소—다 등의 군수산업, 독점자본에 배분함으로써 그들의 막대한 미윤을 보장하며 이러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못하여 그들의 산업의 독점과 집중생산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이 독점자본은 일본상품의 수출독점하고·미국상품과 경쟁대립되는 산업 및 생산품을 통제하여 일본경제를 군사기지 재무장화에 필요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재건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조정비의 지출내용을 본다면 그것이 독점자본을 옹호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한 것이다。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 중소 상공업과 민족산업 기업소들은 아무런 자재와 기금도 보급받지 못하여 파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요시다반동정부는 산업의 독점과 집중, 생산정책으로써 한편으로는 일본의 민족산업을 파괴시키면서 다른 편으로는 일본경제를 미제의 식민지적 구조로 급속히 재편성하고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대기업 정리를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였다。

그와 동시에 치렬한 로동공세를 방비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공무원법의 실시, 로동조합을 개악하며 특별고사위원회(特別審査委員會) 단체규정령(團體規正令)

등의 탄압기구를 립법화하였다。지난 五월 三十일 제五차의회에서는 『공무원정원법(公務員定員法)』을 채택하였다。이 『공무원정원법』이란 국철、체신、전관공청의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하여 관공립학교 교직원들 즉 정부소속산업 및 각 기관의 로동자들을 一二할내지 三할을 대량적으로 해고하여 실업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생활을 파멸시키며 일본경제를 미독점자본에 예속화시키는 토대를 구축하는 악법의 하나인 것이다。

요시다반동내각의 행정정리의 결과 중앙관청에서만 二十六만여명의 로동자 사무원이 가티되이 각지방의 것을 합하면 약 九十만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된다。

금년 二월 二十八일 일본로동성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개인 기업체의 해고로동자를 합하면 금년도에 一백八十八만의 실업로동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현재 일본의 실업자 실수는 一천만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요시다반동내각은 대량적으로 로동자와 사무원을 가두로 몰아내면서도 아무런 실업대책도 세워있지 않다。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실어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단지 二十一억원을 지출하고 있을뿐이다。

요시다반동정부는 국가예산을 모조리 독점자본의 리익과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경찰기구 확장비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요시다반동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생산비의 二분의一의 안가로써 쌀을 강제공출시키고 있다。이같은 략탈적 정책은 농업경리를 급속히 파탄시키고 있다。반동정부는 지주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군국주의의 사회적 지반을 재건하려고 하며、소작료를 인상시키는등 갖은 흉책을 다하고 있다。반농 소작농들의 생활은 략탈과 중세(重稅)로 인하여 기아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농 이상 상농가에 있어서 一년의 경작면적이 평균 一정(町)七단(段)인데 一년간 손해이 일호당 一만二천六백원이 된다고 한다。이러기 때문에 경작방기면적이 작년에 二만三천정보에 달하였으며 五만여호의 농가가 농업을 포기하였다。식량이 부족하다는 일본에 있어서 생산을 방기하는 것은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략탈정책에 기인되는 것이다。농촌에 있어서는 지금 인신매매가 전전과 다름없이 번성하고 있다。十二、三세전후의 남녀들이 三년내지 五년기간으로 二천원에 팔려간다。그것은 주로 동북(東北) 북륙(北陸) 지방에서 一년에 一만명 이상이나 된다。또 교육、과학、기술、예술、문화부문에 지출되는 예산은 겨우 一%에 불과하며 물질적 및 정책적으로 식민지노예화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미제의 소위 『일본경제부흥안정계획』이라는 것은 로동자、농민、일반근로자를 가혹하게 략탈하는바 五천 백五十여이라는 다액의 세금을 수탈하고 있다。철도 여객운임의 六〇%인상등 갖은 방법의 중세는 근로인민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새로운 공제의 제一보이며 그들의 실질임금은 전전의 반분이하로 저하되고 있다。

반동 요시다내각의 강압정책의 실시는도、一월선거후의 의회세력 배치를 뒤종하여 전후 일본인민에게 부여되었던 극저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으로부터 착수하였다。그러나 인민대중은 미제의 침략과 요시다반동정권의 타도를 외치면서 자기의 대렬을 강화시키고 있다。

금년 四、五월에 개회된 제五차 의회에서는 二五九에 달하는 반인민적인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중에는 소위 『비일활동조사위원회(非日活動調査委員會)』를 이회내에 설

계하자는 법안이 들어 있었다.

『비인활동조사위원회』설치의 흉악한 음모는 공산당을 선두로한 각계 각층 민주진영의 분노를 일으킬뿐 아니라 사회당、로농당 및 일부 반동우익정당까지 요시다의 팟쇼정을 비난하였다.

이 두쟁의 결과 맥아더와 요시다는 그 음모를 실행치 못하고 다른 전술로 바꾸었다. 즉『특별고사위원회(特別考査委員會)』를 국회에 부설시키자는 것이였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반민주주의적 활동』즉 공산당과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였다. 미 점령정책 및 맥아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도든 수단에 대한 일체의 저항은 반민주주의적 활동이고『폭력적 활동』이라고 선언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조직은 해산당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그 성원은 여하한 사회적 활동으로부터든지 추방되는 이러한 권한이 요시다 반동내각에 위임될 것이였다.

요시다 반동정부는『특별고사위원회』설치법안을 제五차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채택하였으며 四월에는『단체등 규정령』이라는 정부령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발포하였다.

이『단체등 규정령』이라는 것은 一九四六년의 포츠담조례(條例) 一〇一호에 준하여 그 내용을 개악한 것이다. 포츠담 조례 一〇一호는 일본을 비군국주의화하고 민주주의화한다는 련합국 포츠담선언의 원칙에 의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적、국수주의적 팟쇼적인 단체들을 해산하고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였다. 맥아더와 요시다는 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을 유린하여 포츠담조례 二〇一호를 개악하고『단체등 규정령』이라는 팟쇼적 악법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화 군사기지화 정책과 요시다 반동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일체의 민주주의적 단체가『폭력 파괴단체』로 지적되어 소위『특별고사위원회』『단체등 규정령』에 의하여 탄압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금번 조선인련맹과 민주청년동맹을『반민주적인 폭력 파괴단체』라고『단체등 규정령』를 적용하여 해산명령을 내리고 재산을 몰수하여 그 간부들을 추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그들의 팟쇼적인 악법의 본질을 명백히 폭로해 준 것이다.

五월 六일 제五차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통과된『로동법 개악안(改惡案)』을 맥아더 사명부 로동과와 요시다 반동정부가 공동작적한 것이다. 이 로동조합규(規) 개악은 일본인민의 민주적 자유를 분쇄하고 로동조합과 로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쟁중의 산업보국령(産業報國令)과 같이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앞에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제와 일본반동파들은 일본의 로동운동과 공산당의 활동을 비롯하여 모든 민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많은 악법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헌법까지 개악(改惡)할 준비공작을 하고 있다. 일본의 팟쇼반동파의 수괴 요시다는 一월선거 이후에 수차 헌법개악의 가능성을 언명하면서 의회에서 그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대의원수를 획득하기 위하여 보수파의 합동을 계속 주장하여 나왔다. 일본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중의원 의원 三분의二 이상의 찬동이 없이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시다는 민주당 기타 군소(群小) 우익 반동정당들을 규합 합동하여 그의 팟쇼적인 야망을 실현하기에 광분하고 있으며 맥아더 역시『일본헌법의 개정』

에 대한 외국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법적 수속을 통한 헌법개정은 일본국회의 자유』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미제와 일본반동파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현재 일본인민에게 부여되고 있는 약간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법적으로 박탈하여 일본인민들을 패전 전과 마치 한가지의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노예화하여 일본독립과 평화와 민주를 위한 인민들의 일체의 민주주의적 운동을 억압하고 말살하려는 음모인 것이 명백하다.

× × ×

반동탄압의 이같은 환경에도 전체 근로 인민들은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되어 있다. 아오모리(青森)、나가노(長野)、이와데(岩手)를 비롯한 각 지방에 있어서는 공산당 사회당의 합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 하부조직으로부터의 사동합공(社同合共)의 발전은 사회당의 몰락을 더 한층 촉진시키는 것이다.

금년 六월 이바라기현(茨城縣)에서는 대중적 집회에서 一월간에 로동자가 三五〇명、농민이 一、一三七명이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그 중에는 많은 사회당 간부와 로동조합、농민조합、농촌、시민단체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쏘련으로부터 귀국한 포로군인들은 수천명씩 집단적으로 입당하고 있다. 이 사실은 맥아더와 요시다 반동정부가 귀환한 포로병들을 반쏘선전에 리용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하부로부터의 로동자 계급의 통일과 강화는 중앙에도 반영되고 현재 로농당은 완전히 공산당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 야마구찌(山口)、다께히데(武藏) 중의원 의원은 六월六일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참의원 이마노(今野) 대의사도 입당하였다.

一월선거 이후 특히 주목할 것은 지방정권기관의 보결선거에 있어서의 민주진영의 승리이다.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 一월—三월까지의 지방정권기관 보결선거 四五二회의 집계를 발표한데 의하면 一월선거에는 공산당이 제四위였던 것이 민주당파 사회당을 능가하여 민주자유당 다음 제二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방에 있어서 공산당의 위신이 제고되며 장성 발전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요시다 반동내각의 대량적 해고정책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금년 五월 한달만하여도 탄광로동자 총파업이 一、四八一건이며 一七三만명이 이에 참가하였다. 요시다의 대량적 해고를 반대하고 총궐기한 국철(國鐵) 파업을 중심으로한 전국적인 로동공세의 전개에 공포 당황한 매국노 요시다 반동정부는 미 점령군의 무력을 빌어 로동자에 대한 발광적인 테로 탄압의 채찍을 강화하고 있다.

즉 요시다 반동정부는 탄압본부인 치안각료회의(治安閣僚會議) 하에 치안로찰회의(治安僚官會議)를 상설(常設)하였다. 그리하여 포츠담선언、극동위원회의 결의를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로동계급의 정당한 실력행사에 대하여『정부도 실력행사로서 대항하겠다』는 란포한 결의를 채택하여 일체의 탄압법규를 동원하여 공·연한 테로공격의 구체적 방침과 로동조합 파괴공작을 전개하였다.

十二만五천여의 경관과 二백만의 소방대를 동원한 반동 요시다정부는 국철 로동자의 제一차 해고때에는 시모야마(下山) 괴사(怪事) 사건을、제二차 해고에 있어서는 미다까 무진(三鷹無人) 전차사건을 공산당에 결부시키고 다수의 당원을 체포함과 동시에 공산당을

미치테로단체와 같이 선전하였다. 이리하여 최근에는 일본공산당본부습격, 당기관지 탄압의 폭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민주운동이 비약적으로 강대하게 장성되자 이에 당황실색한 일본 반동 요시다정부는 최근에 와서 미제와 리승만도배들의 사수밑에 일본의 민주세력을 두려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탄압 말살할 예비조치로서 일본의 민주진영의 주요한 일원인 재일 조선인련맹과 민청을 불법 탄압해산하였으며 일본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조련(朝聯) 고문인 김천해(金天海)씨와 주석단 윤근민(尹槿民)씨 외 二十六명을 남조선으로 특별수송하여 살인귀 리승만도배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와 같은 참을수없는 박해와 모욕은 조일 량인민들의 분노를 극도로 앙양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인민들은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노사까(野坂)씨는 지난 九월 十七일 일본인민들에게 조선인들의 투쟁은 우리일본인 자신을 위한 투쟁과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선인들의 투쟁을 형제적 립장에서 열렬히 지지하고 공동투쟁할 것을 전일본인민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인민공세는 사회의 모든 부면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인민들은 누가 진정한 일본민주화를 위한 원조자이며 벗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쏘베트동맹은 미제의 일본침략과 장기점령을 반대하고 대일강화조약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제국주의자는 국제협정을 유린하며, 일본의 침략과 장기주둔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갖은 흉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민은 쏘베트동맹의 주장을 원칙으로한 쏘베트동맹이 참가하는 대일강화조약 체결만을 지지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민은 쏘베트동맹의 우의(友誼)에 감사하고 있으며 쏘베트동맹만이 일본인민을 독립 민주 평화 번영의 길은 미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원조를 아끼지 않는 국가이라는 확신을 깊이하고 있다. 쏘베트동맹을 선두로 하는 전세계 민주진영에 굳게 련결된 일본인민들은 일본공산당의 령도하에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 한층 굳게하며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一九四九년十월 十일 인쇄
一九四九년十월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十九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거 석 복
인쇄인 오 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ㄷ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一ㅡ五번

ㄱ서 14660